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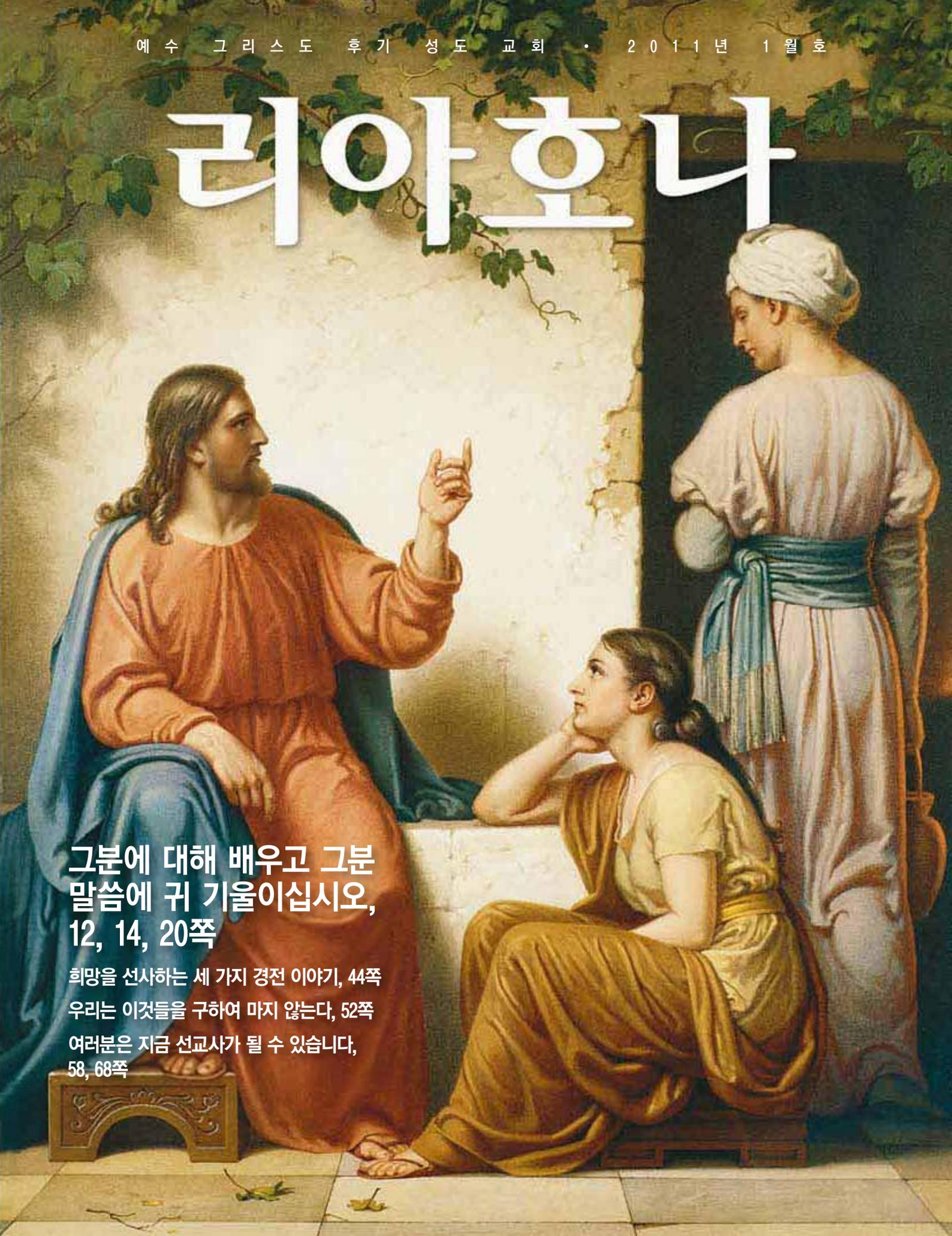
# 리아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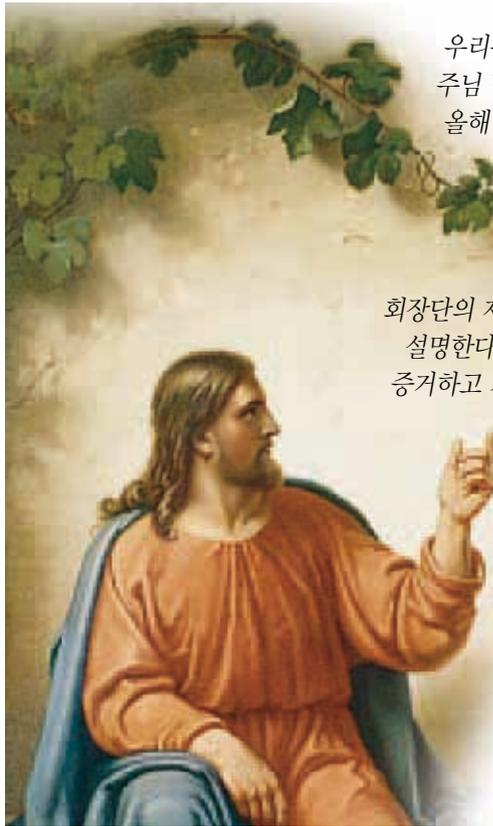
**그분에 대해 배우고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12, 14, 20쪽**

희망을 선사하는 세 가지 경전 이야기, 44쪽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52쪽

여러분은 지금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58, 68쪽





우리는 마리아가 했듯이 실제로  
주님 발치에 앉을 수는 없겠지만  
올해 주일학교에서 신약 전서를  
공부하면서 그분에 대해  
배우고 그분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다. 칠십인  
회장단의 제이 이 켄슨 장로는 이렇게  
설명한다.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칩니다. 경전에 몰입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음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구주—위대한 교사”,  
14쪽 참조.



아들 디모데에게 거룩한 경전을 가르치는 유니게, 샌디 프렉클레톤 가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하며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5)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 일꾼”(테살로니가전서 3:2)으로 그리고 바울에게는 충실한 보조자 역할을 하였기에 바울은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디모데전서 1:2)이라고 불렀습니다.



© 1983 FFI

그분을 안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래그 올슨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요한계시록 3:20~22)



리아호나, 2011년 1월호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주님께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유산

특집 기사

- 14 구주-위대한 교사  
제이 이 켄슨 장로  
우리 모두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강화하기 위해 경전을 사용하신 구주를 본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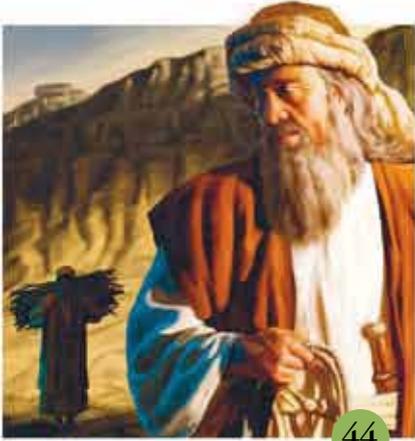
표지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 안톤 돌프,  
Hope Gallery 제공.

- 20 신약의 역사적 배경  
토머스 웨이먼트  
신약전서를 쓴 사람은 누구인가요?  
신약전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나요?
- 26 우리 신앙의 기초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이웃들은 우리 신앙에 관한 이런 핵심적인 진리들을 모를 수 있습니다.
- 34 개인 발전 기록부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녀 회장이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생긴 몇 가지 변화를 설명한다.
- 37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아론 신권  
데이비드 엘 벡  
새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의무 책자는 복음을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 본부 기사

- 8 작고 단순한 일
- 11 우리 가정, 우리 가족: 기록에서 발휘되는 회복의 힘  
마르코스 에이 워커
- 12 우리의 믿음: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 40 후기 성도의 소리
- 74 교회 소식
- 79 가정의 밤 제언
- 80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아담 시 올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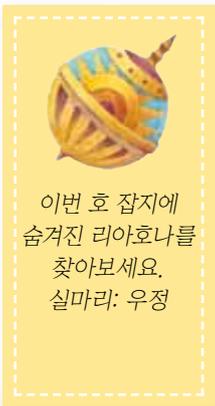




**44** 고대인들이 보인 모범, 현대에 받은 약속  
의명

수천 년 된 이 이야기들이 오늘날  
내게 의미 있는 이유.

**47** 내 삶의 복음: 믿음에서 앞으로  
치아오-이 린



이번 호 잡지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실마리: 우정

53



**48** 해답을 찾아서

**50** 선교 임지에서: 천사가 함께하여  
새뮤얼 고을드

**52** 우리는 믿습시다!  
본부 청년 회장단  
성신의 권능을 얻으려면 표준과  
가치관을 믿고 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53** 충실한 신권 형제가 됩시다  
본부 청년 회장단  
여러분이 충실한 신권 형제가 될 때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54**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신앙개조  
제13조

**55** 세미나리를 들어 봐  
리사 페이스  
친구의 제언이 내 인생을 바꿔  
놓았다.

**56** 우리들 공간

**57** 포스터: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58** 나 선교사 되고 싶어라?  
로렌 쿡  
선교 사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여기 다섯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8



**60** 가장 훌륭한 브리검 영  
카렌 에이 킴볼  
대본에는 브리검 영 역할이 잘못  
그려져 있었습니다. 캐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2** 특별한 증인: 어떻게 영적인  
기초를 세울 수 있을까요?  
닐 엘 앤더슨 장로

**63** 우리들 이야기

**64** 함께 나누는 시간: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앤 차일드 및 크리스티나 프랑코

**66** 예수님 이야기: 어린 시절의  
예수님  
다이앤 엘 맥검

**68** 이사벨은 어디 있지?  
수잔 데니  
사진을 찍으려는데 침례식 주인공인  
이사벨이 보이지 않았습시다!

**70**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2011년 1월호, 제48권, 제1호  
리아호나 09681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입니다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허,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앨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레슬 밸라드,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율렌드, 데이비드 에이 베타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폴 비 파이퍼  
**고문:** 스탠리 지 엘리스, 크리스토퍼 글든 이세, 요시히코 가부찌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이트  
**편집 책임자:** 비디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윌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율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폴리트, 라렌 포터 콘트, 애니 존스,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엘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샬리 데이 오데카코, 조슈아 데이 피카, 체드 이 페리스, 찬 핀보로우, 리처드 롬바, 돈 엘 설, 제인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선임 비서:** 로벨 듀셔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엘 피타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요, 콜레트 네베커 오우,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데이 크리스티슨, 킴 핀터마커, 캐슬린 허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카비, 스킵트 엠 무이, 지니 데이 날슨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데이 벤슨

통 권: 제531호, 제48권, 제1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1년 1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 동 현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감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http://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mailto: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http://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1,0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된다.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기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0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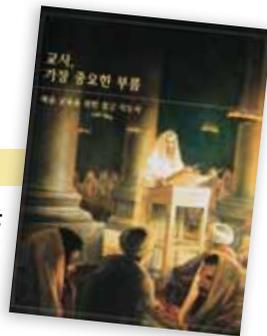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mailto: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http://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January 2011 Vol. 35 No. 1.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 인터넷에 실린 추가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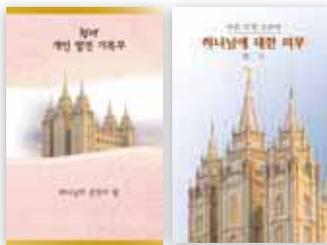
[Liahona.lds.org](http://Liahona.lds.org)



## 성인

구주께서는 훌륭한 교사이셨다.(14쪽 참조) 가르치는 기술을 향상하려면 [www.teaching.lds.org](http://www.teaching.lds.org)를 방문한다.

## 청소년



이번 호에서 개인 발전 기록부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에서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찾아본다.(34쪽 및 37쪽) 그런 후 웹사이트 [www.PersonalProgress.Lds.org](http://www.PersonalProgress.Lds.org)와 [www.DutytoGod.Lds.org](http://www.DutytoGod.Lds.org)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다.

## 어린이



72쪽에 나오는 "전 세계에서 친구 사귀기" 기사를 살펴보고 [www.liahona.lds.org](http://www.liahona.lds.org)에서 온라인 게임을 해 본다.  
어린이들의 미술품이 현재 솔트레이크시티 교회 역사 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으며, 출판된 모든 작품은 인터넷 [www.liahona.lds.org](http://www.liahona.lds.org)에서도 볼 수 있다.

##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기타 교회 자료는 [www.languages.lds.org](http://www.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 이번 호 주제들

숫자는 기사 첫 페이지를 뜻합니다.

- |                            |                       |                     |
|----------------------------|-----------------------|---------------------|
| 가르치기, 14                   | 덕(정결), 54             | 신약전서, 20            |
| 가정 복음 교육, 42               | 매체, 48                | 신화, 26              |
| 가족 역사, 8                   | 물문경, 47               | 아론 신권, 37           |
| 가족, 26, 48                 | 봉사, 58, 62            | 예수 그리스도, 14, 66, 80 |
| 간증, 49, 55                 | 상호 향상 모임, 52          | 용기, 60              |
| 개인 발전 프로그램, 34             | 상호부조회, 7              | 우정 증진, 8            |
| 개중, 41                     | 선교 사업, 41, 50, 58, 68 | 정직, 56, 60          |
| 경전, 12, 20, 44, 47, 62, 64 | 세미나리, 55              | 친절, 57, 58, 70      |
| 계시, 26                     | 순종, 50                | 하나님에 대한 의무, 37      |
| 교회 부름, 43                  | 신권 축복, 42             | 하나님의 보호, 50         |
| 기도, 48, 56, 62             | 신앙, 44, 58            | 활동화, 40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주님께는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지**난 10월 연차 대회에서 저는 더 많은 사람이 선교 사업을 나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합당하고 건강한 젊은 남성은 선교 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은 신권 의무이며, 많이 받은 자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바라시는 의무입니다. 청년 여러분, 선교 사업을 준비할 것을 권고합니다. 주님을 대표하기 위해 깨끗하고 순결하며 합당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십시오. 경전을 연구하십시오. 가능한 곳에서는 세미나리 또는 종교 교육원에 참여하십시오. 선교사 지도서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익히십시오.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청남들처럼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신권 책임은 없지만 여러분도 선교사로서 귀중한 공헌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봉사를 환영합니다.

교회의 연로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중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아직 부부 선교사로 나갈

시기에 이르지 않은 분들께 촉구합니다.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배우자와 함께 선교 사업을 나갈 그날을 위해 지금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사업에서 배우자와 나란히 전임으로 봉사할 때 얻는 감미로운 성과 만족감을 누릴 기회는 이제 여러분의 삶에서 많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천성적으로 수줍음이 많거나, 봉사하라는 부름에 긍정적으로 답하기에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주님의 사업이며,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때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받은 짐을 짊어질 수 있도록 그에 걸맞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봉사하기에는 합당하지만 자신에게 더욱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사무엘상 2:30) 헌신적이고 온정 어린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를 더 영화롭게 섬기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율리우쉬 푸섹과 도로시 푸섹은 선교 사업에서 이러한 봉사에 대해 모범이 될 만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폴란드에서 선교 사업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푸섹 형제는 폴란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폴란드어를 했고 폴란드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영국에서 태어난 푸섹 자매는 폴란드 말을 거의 하지 못했고, 폴란드인들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부부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봉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길은 외로웠고 임무는 막중했습니다. 당시 폴란드에는 선교부가 조직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선교부를 세울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는 것이 푸섹 부부에게 부여된 임무였습니다.

자신들이 맡은 임무가 막중하다고 해서 푸섹 부부가 좌절했을까요? 한 순간도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부는 기도로 하나님께 신성한 도움을 주시기를 간구했고, 온 정성을 다해 과업에 매진했습니다.

드디어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와 당시 칠십인이었던 한스 비링거스 장로 그리고 제가 푸섹 장로와 함께 폴란드 정부 종교 담당 장관인 애덤 워파트카 장관을 만났습니다. 워파트카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교회를 환영합니다. 이곳에 건물을 세우실 수 있고, 선교사들을 보내셔도 좋습니다.” 이어 그는 올리우쉬 푸섹 장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교회를 위해 훌륭하게 봉사하셨습니다. 그분이 보인 모범과 노고에 고마워하셔야 할 것입니다.”

푸섹 부부와 같이 주님의 사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합시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올리우쉬 푸섹, 도로시 푸섹 부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시편 구절을 되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

너를 지키시는 이가 줄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시편 121:2~4) ■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복음 원리대로 생활했을 때 여러분 삶에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나눈다.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한 경험을 간단하게 나누도록 부탁한다.”([1999년], 180쪽) 이 말씀을 읽은 다음 몬슨 회장님이 선교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인지 가족들에게 물어본다.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경험을 나눈다. 미래에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을 나눌 수도 있다. 가족들에게 각자가 세운 계획과 긍정적인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한다.

## 청소년



### 자전거를 타고 미래로

피터 에반스 및 리차드 엠 롬니

**만능**은 청년들은 선교 사업을 위해 재정 면에서도 준비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여권을 받기 위해 충분한 돈을 버는 일이 그러한 준비 중 하나입니다. 세드릭 트쉬암비네는 기업가다운 방식으로 필요한 자금을 벌었습니다. 세드릭은 바나나를 자전거 뒤에 싣고 팔았습니다.

세드릭은 콩고민주공화국 루푸타에 삽니다. 선교 사업을 나갈 때 필요한 여권 마련 비용을 모으기 위해 일을 하는 루푸타 지방부 청남은 모두 45명으로, 세드릭도 그 중 한 명입니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여권을 마련하려면 250달러가 드는데, 이는 집 한 채를 짓는 데 드는 돈의 3분의 2 정도에 해당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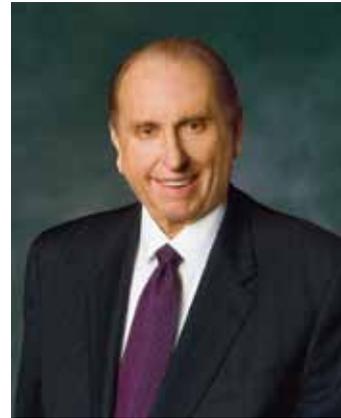
하지만 세드릭은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선교 사업 비용을 벌기 위해 세드릭은 루푸타에서 자전거를 타고 15~30 킬로미터를 여행하여 작은 마을에 가서 바나나를 샅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에 가득 실은 채, 뜨거운 아프리카 초원을 지나 도시로 돌아와서 과일을 팔았습니다. 세드릭은 매주 모랫길을 따라 약 180킬로미터를 자전거로 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넘어진 적은 딱 한 번 뿐, 그것도 짐이 균형이 맞지 않아서였습니다.

세드릭은 이렇게 일하여 일주일에 약 1.25달러, 1년에 65달러를 벌었습니다. 여권을 마련할 충분한 돈을 버는 데는 4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드릭은 전임 선교사라는 자신의 미래가 가능하게 되었음을 압니다. 세드릭은 봉사하라는 부름에 응할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어린이

### 어려서부터 준비할 거예요

어린이들이 선교 사업을 준비하라는 몬슨 회장님의 권고를 기억하도록 돕기 위해 이 증서를 복사하거나, LDS.org에서 인쇄하거나, 증서를 직접 만든다. 그런 다음 자녀가 서명하게 한 뒤 벽이나 일지에 증서를 붙여서 이를 상기하게 한다.



### 나는 준비할 거예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나에게 선교 사업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 주님을 대표하기 위해 늘 깨끗하고 순결하며 합당한 생활을 하겠다.
-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겠다.
- 기도하고 경전을 연구하겠다.

나는 선교 사업을 준비하겠다.

(서명)



# 상호부조회의 역사와 유산

이 자료를 공부하고, 상황이 적절하다면 방문하는 자매들과 토론한다. 여기에 있는 질문들을 토대로 자매들을 강화하고, 또한 상호부조회의 가르침을 여러분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적용한다.

신앙 · 가족 · 구제

**엘** 리자 알 스노우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상호부조회]란 명칭이 현대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이 조직은 고대에 기원을 둡니다.”<sup>1</sup>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셉 스미스를 방문하셨으며 그를 통해 충만한 복음을 지상에 회복하셨습니다. 상호부조회는 회복의 일환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조직되고 나서야 교회는 비로소 완전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습니다.<sup>2</sup>

앞으로 여러 달 동안 우리는 방문 교육 메시지를 통해 회복된 복음에서 상호부조회가 맡은 역할과 상호부조회의 역사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것입니다. 여러 측면에서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이해하는 일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첫째,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이해하면 우리는 영감을 받아 마땅히 되어야 할 하나님의 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고귀한 후기 성도 여성들이 보인 모범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을 과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sup>3</sup>

둘째, 상호부조회의 역사에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토대가 되는 원리들과 초기 교회의 원리들이 동일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상호부조회 목적, 즉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 줍니다.

셋째,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 영적인 유산을 더 잘 나눌 수 있습니다.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인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라는 은사를 받도록 도울 때 여러분은 그 유산을 전하는 것입니다. …… 상호부조회의 역사는 말씀과 숫자로 기록되지만, 그 유산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집니다.”<sup>4</sup>

마지막으로, 상호부조회의 역사를 이해하면 미래의 상호부조회에서 훌륭한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킴볼(1895~1985) 회장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과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성은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sup>5</sup>

줄리 비 벡,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 방문을 받는 자매들이 사랑이라는 은사를 누리도록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2. 나의 미래를 의롭게 하기 위해 이번 달에 어떤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가족과 다른 사람의 미래를 의롭게 하기 위해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www.reliefsociety.lds.org](http://www.reliefsociety.lds.org) 를 방문한다.

## 상호부조회 역사에서

“상호부조회는 주님께서 여성들을 위해 마련하신 조직입니다.”<sup>6</sup> 조셉 스미스는 1842년 3월 17일에 선지자로서 상호부조회를 조직했다. 이 첫 번째 모임에 참석한, 몇 안 되는 다양한 여성들은 오늘날의 상호부조회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헌신적이었다. “가장 어린 자매들은 십대 세 명이었고, 가장 연장자는 50대였다. 자매 중 열한 명이 기혼자였고, 두 명은 남편을 여읜 자매, 여섯 명은 미혼이었으며, 한 명은 결혼 여부가 알려지지 않았다. 교육 수준과 출신 배경이 매우 다양했고 경제적 여건도 마찬가지로였다. 상호부조회의 회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다양성도 더욱 커졌지만 상호부조회의 자매들은 단합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sup>7</sup>

### 주

1. Eliza R. Snow, “Female Relief Society”, *Deseret News*, 1868년 4월 22일자, 81면.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51쪽 참조.
3. 엘 톰 페리, “미래를 대치하는 과거의 방법”,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73~76쪽 참조.
4. 헨리 비 아이어링, “영원히 지속될 상호부조회의 유산”,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124~125쪽.
5. 스펜서 더블류 킴볼, “여성의 특권과 책임”, *성도의 빛*, 1979년 4월호, 150쪽.
6. Spencer W. Kimball, “Relief Society—Its Promise and Potential”, *Ensign*, 1976년 3월호, 4쪽.
7. Jill Mulvay Derr, Janath Russell Cannon, 및 Maureen Ursenbach Beecher, *Women of Covenant*(1992년), 28쪽.

## 성구에서

- 에스더 9:28~29;
- 로마서 16:1~2;
- 앨마서 37:8;
- 모로나이서 7:45~47



# 작고 단순한 일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지며”(앨마서 37:6)



## 새로운 회원이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돕는 방법

- 와드나 지부에 있는 새로운 회원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공과나 성찬식 모임에서 옆에 같이 앉으려고 특별히 노력한다.
- 이름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 신권 지도자들과 주일학교 및 상호부조회 회장단은 공과 시작 전에 새로운 회원에게 자신을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다.
- 회원이 새로 이사오면 도움을 주고 그 지역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 와드 또는 지부 활동에 초대한다.
- 친구가 된다! 몇 주 또는 여러 달에 걸쳐 새로운 회원과 계속 친해지려고 노력한다.

##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세요

**아**마도 여러분은 가족 중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어서 가족 역사 사업이라는 말이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또는 가족들이 이미 조상을 위해 가족 역사와 성전 사업을 많이 수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이든 여러분이 이 중요한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사람, 즉 자신부터 시작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가족 역사는 단순히 돌아가신, 사랑하는 가족들만을 위한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삶에 대한 개인 역사를 남기는 일도 포함됩니다.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상자를 하나 마련해서 그 안에 출생 증명서, 졸업장, 상장, 일지, 사진 등 자신의 인생을 나타내 주는 중요한 기록들을 넣는다.
- 스캐너를 이용할 수 있다면 오래된 중요한 사진은 스캔하여 디지털 자료로 만들 수 있다.
- 살면서 겪은 영감 어린 생각이나

느낌, 사건을 계속 일지에 기록한다.

- 친족들을 인터뷰하여 그들의 인생 역사를 기록한다. 생존해 있는 친족 중에 최고령인 사람부터 시작한다.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을 얻게 되었는가? 어렸을 때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가족 전통이 있었는가? 가족들의 특별한 재능이나 특징을 말해 줄 수 있는가? 가족 역사를 수집해 놓으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보가 될 것이다.
- [www.New.FamilySearch.org](http://www.New.FamilySearch.org)에 계정을 등록하여 자신과 가족에 관해 수집한 계보 정보를 입력한다. 인터넷에 있는 훈련 자료로 한 단계씩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가능하다면 성전에 참석하여 조상을 위해 의식을 수행한다.

가족 역사 사업에 관해 질문이 있다면 와드 또는 지부 가족 역사 상담자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늘에 쌓는 보화

### “자신의 혈통을

조사할 때 우리는 성전 의식에 사용될 이름이나 숫자를 넘어서는 것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관심이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조상에게로 향하여 그들을 찾고, 알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여러분의 가족 역사: 일을 시작함”, 리아호나, 2003년 8월호, 17쪽.





## 헝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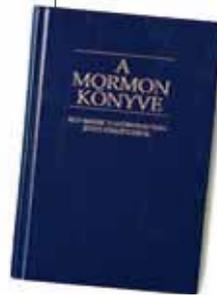
**처**음으로 후기 성도 선교사가 헝가리 땅을 밟은 때는 1885년이었으나 결실은 미미했고, 그는 약 3개월 만에 그곳을 떠났다. 교회에 가입한 첫 번째 헝가리인으로 알려진 사람은 미스차 마르코우이며, 1887년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 후에 그는 유럽에서 선교사로 봉사했으나 이후에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그 나라에서 추방되었다.

여러 해 동안 헝가리의 정치 풍토 때문에 선교 사업은 제약을 받았다.

1980년대에 교회에 관한 광고가 나오자 수많은 헝가리인이 교회를 알아보게 되었으며, 1986년 후반에 헝가리 정부 관리들은 선교사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

그때 이후로 선교사들의 노력은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 1991년에는 헝가리어 몰몬경이 출판되었으며, 2006년에 첫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1904년에 완공된 헝가리 국회의사당은 부다페스트에 있는 다뉴브 강둑에 위치해 있다.



헝가리 교회	
회원	4,594명
선교부	1개
스테이크	1개
지방부	2개
와드 및 지부	21개



## 역경에 대처하기

**복**음대로 생활하며 우리 가족은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 금식하고 십일조를 바치며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희망을 얻을 때 유혹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역경 없이 살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나는 많은 장애물을 만날수록 축복을 받기에 더욱 합당해지고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역경이란 연을 날리는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더 세계 불수록 연은 더 높이 날아 오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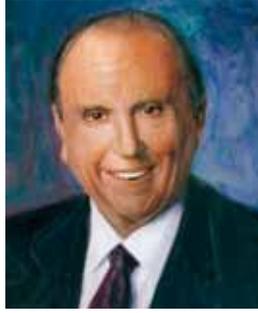
크호운 라부스, 캄보디아



하워드 더블류 헌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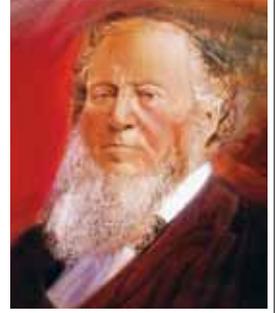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조셉 스미스



브리검 영



에즈라 테프트 벤슨



스펜서 더블류 김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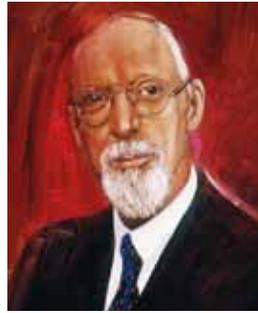
해롤드 비 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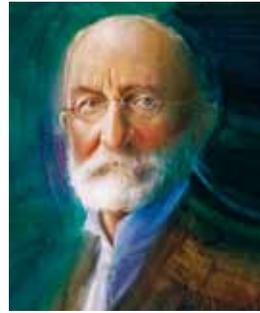
조셉 필딩 스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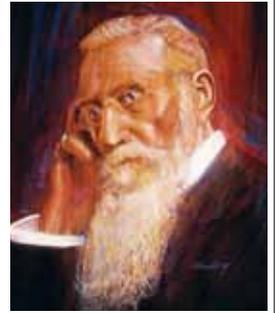
데이비드 오 맥케이



조지 앨버트 스미스



히버 제이 그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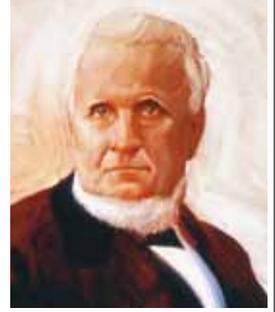


조셉 에프 스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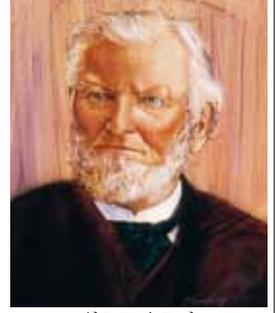
## 교회 선지자들

**교** 회 선지자들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시나요? 다음 질문을 보면서 답을 생각해 보세요. 답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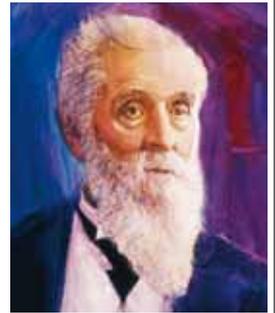
1. 조셉 스미스 이후, 교회 회장이 되기 전에 가장 짧은 기간 사도로 봉사한 분은 누구일까요?
2. 총관리 역원으로 가장 오랜 기간 봉사한 분은 누구일까요?
3. 교회 회장으로 가장 오래 봉사한 분은 누구일까요?
4. 유일하게 미국 이외 지역에서 태어난 교회 회장은 누구일까요?
5.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 이전에, 유일하게 감독으로 봉사한 경험이 있는 교회 회장은 누구일까요?
6. 지금은 하와이 섬으로 알려진 지역에서 열다섯 살 나이에 선교 사업을 한 분은 누구일까요?
7. 사도로 봉사하며 미국 농무부 장관을 지낸 분은 누구일까요?
8. 최장수 교회 회장은 누구일까요?
9. 팔다리가 부러지고, 우연히 도끼에 발을 베이고, 광견병에 걸린 개에 물리고, 쓰러지는 나무에 다리가 으스러지고, 패혈증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물에 빠져 가까스로 생명을 구하고, 거의 얼어 죽을 지경에 이르고, 기차 사고에서 목숨을 건진 분은 누구일까요?



존 테일러



윌포드 우드러프



로렌조 스노우

1. 에즈라 테프트 벤슨  
2. 데이비드 오 맥케이, 97년  
3. 윌버드 리

4. 테일러, 9년  
5. 하워드 테프트 벤슨  
6. 조셉 에프 스미스

7. 윌버드 리  
8. 데이비드 오 맥케이, 97년  
9. 윌버드 리

# 기도에서 발휘되는 회복의 힘

마르코스 에이 워커

**열** 살 난 아들 에이리언의 볼을 타고 흘러내리는 회개의 눈물에서 느낀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아이는 두 살 많은 형 조엘과 함께 침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투는 소리가 들려 제가 뛰어 들어가 질서를

에이리언은 제가 용납할 수 없는 태도로 제게 대들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그런 태도를 두 번이나 꾸짖었지만 (아들이 저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바람에)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들은 통제 불가능한 지경이 되어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달아오르며 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는 신경이 곤두섰지만 소리를 지르지 않고 그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기도의 원리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그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들을 제 방으로 데리고 가서 문을 닫고 말했습니다. “에이리언, 무릎을 꿇자. 아빠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거야.”

아들은 계속 격렬히 울어댔지만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을 어떻게든 도와 주고 싶은 마음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하던 중 아들의 흐느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아들 뺨에 흐르던 눈물은 이제

회개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마쳤을 때, 에이리언은 울려다보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절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는



## 기도라는 은사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영혼에게 주시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적인 존재이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며, 전능하신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미미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과 함께 대화하라고 권고하십니다. ……

어떤 상황에 있든지, 겸손하거나 오만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자유롭거나 속박되어 있거나, 학식이 있거나 무지하거나, 사랑받거나 버림받았거나에 관계없이 우리는 그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전 약속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간구는 간단할 수도 있으나 필요한 만큼 모든 시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긴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도움을 구하는 긴박한 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셀 수 없이 많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세상들에 사람들을 살게 하신 분이시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분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으며 그분께서는 언제나 응답하실 것입니다.”

리처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기도라는 하늘의 선물을 사용함”,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8쪽.

서로 끌어안았고 저도 참지 못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영혼이 평안과 사랑으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에이리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아들이 기도에서 발휘되는 회복의 힘을 경험했으며, 또한 성신이 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아들은 기도의 힘을 알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다시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그 나이 아이들이 으레 그렇듯이 두 아이는 자주 다투었습니다.

형과 싸우고 분해서 울부짖던

#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증거합니다

**경**전에는 선지자들이 준 권고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역사하신 일에 대한 영감 어린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마련하신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는 지상에 왔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이곳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시켜 주는 영적 생명줄 역할을 합니다.

경전의 주된 목적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영생을 누리도록 돕는 것입니다.(요한복음 5:39 참조) 그러므로 후기의 선지자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가족과 함께 날마다 경전을 공부하도록 권고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벼락치기 공부는 경전을 매일 읽고 삶에 적용시키는 것만큼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경전이 가르치는 교훈에 친숙해지십시오. .... 선지자들이 직접 여러분에게 말씀한다고 여기며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전에 담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주신 계명을 읽음으로써 옳고 그름의 차이를 깨닫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아울러 죄에 대한 유혹을 물리칠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순종하고 싶은 소망이 커질 것입니다. 지상에 거하는 동안 우리는 경전에서 위안과 가르침을 받으며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배웁니다.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68쪽.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복음 원리*(2009년), 45~49쪽과 *신앙에 충실함*(2004년), 21~26쪽을 참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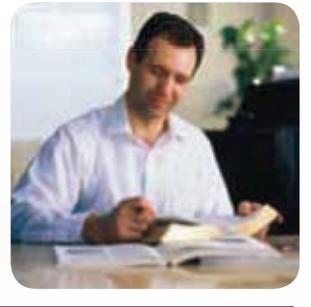
“모든 경전의 기본 목적은 우리 영혼이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입니다. ....

.....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성신이 우리 영에 전해 주는 확신, 즉 영에서 영으로 전해 주는 확신을 통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흠족히 취할 때 신앙은 성숙해집니다. ....

..... 경전을 주의 깊고 신중하게 연구하십시오. 경전을 상고하고 그에 대해 기도하십시오. 경전은 계시이며, 경전을 읽으면 여러분은 계시를 더 받을 것입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경전의 축복”,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34, 35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다음 기록들을 경전으로 여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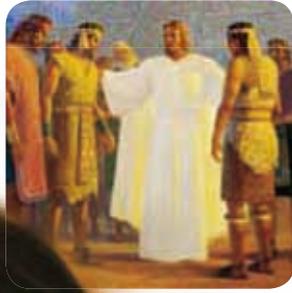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후서 3:16)

1.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에 있던 고대 선지자들에게 주신 계시가 담긴 성스러운 기록 모음집입니다. 신앙개조 제8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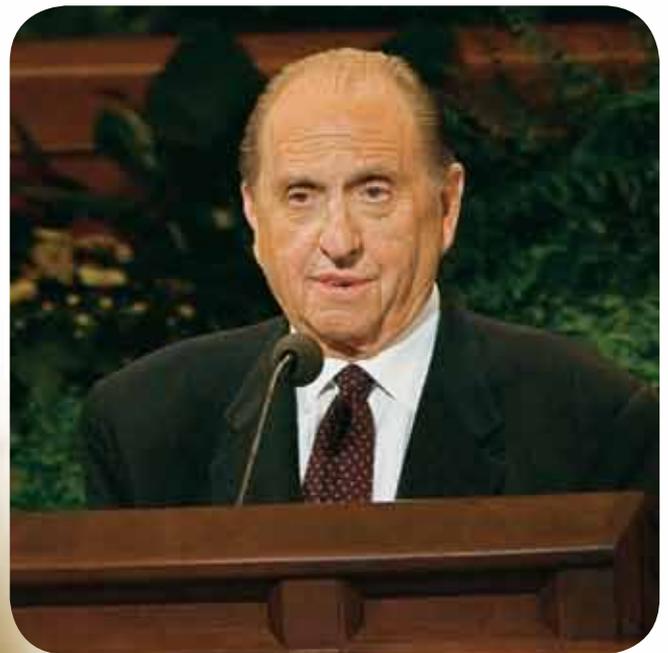
2. 몰몬경: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에는 하나님께서 고대 미대륙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주신 계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 기록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명한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20:9 참조)



3. 교리와 성약은 조셉 스미스를 시작으로 현대의 선지자들이 받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에 관한 계시가 담긴 책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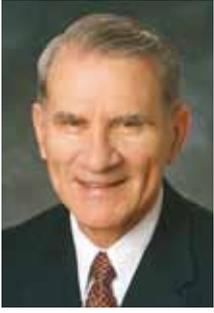


4. 값진 진주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브라함과 조셉 스미스에게 추가로 주신 계시가 실려 있습니다.



5. 하나님께서는 성신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해 살아 있는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진리를 계시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경전으로 여깁니다.(교리와 성약 68:4 참조) 이러한 말씀은 주로 4월과 10월 첫째 주말에 열리는 연차 대회에서 받습니다. 연차 대회 동안 전 세계 회원들은 선지자와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 말씀을 듣습니다.

왼쪽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사진 삽화: 데릭 이스라엘슨 © 2002; 셋세마네 동산에 계신 그리스도, 해리 앤더슨 © IR; 세 명의 나파이인, 게리 캡 © 1996 IR;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윌터 레인, 교회 역사 박물관 제공; 첫번째 시편, 빌 피슨 © 1987 IR; 사진 촬영: 크레이그 다이먼드 © IR; 사진 삽화: 크리스티나 스미스 © IR



제이 이 젠슨 장로  
철심인 회장단

# 구주 위대한 교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즉 경전을 흠족히 취하고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강화하는 일에 경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무수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신 여호와이자 구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거한 사람 중 가장 위대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요한복음 4:34) 지상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성역을 통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며 약속된 메시아임을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실 때 구약전서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그분은 성역을 준비하고, 악마와 유혹을 물리치며, 과거 선지자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들이 참된 선지자임을 확인하며,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을 강화하기 위해 경전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보이신 모범을 통해 부모, 지도자, 교사라는 책임을 수행할 때 경전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면에서 완전한 모범을 보이셨으며 위대한 교사로서도 우리에게 모범이 되십니다.

## 성역을 준비하며

주님께서 지상에 오셨을 때 그분의 생각은 우리처럼 망각의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은혜에 은혜를 받으며 성장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93:11~17

참조) 주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요한복음 8:28; 12:49 참조) 지상에 있는 교사들에게서 배우셨습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하셨던 제임스 이 탈매지(1862~1933) 장로님은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에 비추어 볼 때 소년 예수는 율법과 경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의 규율에 따르면 그 나이에 그와 같은 것을 배우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년 예수는 공부하여 지식을 쌓았고, 기도와 사색과 노력으로 지혜를 얻었다.”<sup>1</sup>

어린 시절부터 공식적으로 성역을 시작하기 전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에 관한 일화에 대해서는 열두 살 때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것밖에 알려진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이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남달랐음을 보여줍니다. “사흘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누가복음 2:46) 이 구절을 분명하게 밝힌 조셉 스미스 역 성경에는 교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분께 질문을 드렸다고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지식을 쌓으신 일은 그분께서 1829년에 하이럼 스미스에게 주신 권고에 대한 모범입니다. “내 말을 선포하려 힘쓰지 말고 먼저 나의 말을 얻으려 힘쓰라. 그리하면 네 혀가 풀리리라. 그런 후에 네가 원하면, 너는 나의 영과 나의 말, 참으로, 사람을 확신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11:21)

우리고 새로운 부름이든, (부모 역할과 같은) 새로운 책임이든, 단순한 가정의 밤이든 성역을 시작할 때 가르침과 영감을 얻기 위해 경전을 상고할 수 있습니다.

### 악마와 유혹을 물리치며

성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중 두 가지 유혹은 의심하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마태복음 4:3, 6) 사탄을 물리치며 구구께서는 구약전서에 나오는 세 구절을 인용하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4, 7, 10절)

구구께서는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악을 극복하는 방법을 경전에 나오는 예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위대한 교사께서는 사람들에게 악마를 물리치

원문: 내 아버지 쥘, 해리 앤더슨, 재림인사일 예수 제명 교회 제명: 오펜복, 사진: 신화: 매튜 라이머 © R: 나사렛 회화에 개신 예수. 그리고 윌슨, 레오 배무스와 안네트 배무스 제명

않으면 참담한 결과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가르치시며 구약전서 이야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생즉, 주님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마태복음 10:15)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에는 보호하는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 내지 못할 것이니라.”(니파이전서 15:24)

오늘날 사탄을 물리치는 것에 관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눈은 너희 위에 있느니라. 나는 너희 가운데 있으니”(교리와 성약 38:7) 이 구절은 “아무도 모를 거야.”라는 거짓말을 영원히 불식시킵니다.

### 과거 선지자들에게 존경을 표하며

구주께서는 고대 선지자들을 인정하셨으며 그들이 한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에도 구주께서는 시드니 리그돈에게 “거룩한 선지자들을 인용하여 [조셉 스미스의] 말을 입증할지니라.”(교리와 성약 35:23)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약전서 선지자들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기 위해 구주께서는 노아(마태복음 24:37~38 참조), 아브라함(누가복음 16:22~31; 요한복음 8:56~58 참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마태복음 8:11 참조), 모세(요한복음 5:46 참조), 다윗(누가복음 6:3 참조), 엘리야(누가복음 4:25~26 참조), 이사야(누가복음 4:16~21; 요한복음 1:23 참조)를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던 침례 요한을 존중하고 지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1:7~11 참조)

구주께서는 구약전서의 선지자들과 그들이 구주에 대해 가르친 내용을 산상수훈에 접목하셨습니다. 우리는 팔복(마태복음 5:3~11 참조)의 가르침과 이사야서 61장 1~3절 사이에 나타나는 밀접한 관계를 통해 이를 알 수 있습니다.<sup>2</sup>

우리도 과거 및 현재의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을 주님의 말씀이자 뜻으로 여김으로써 존경을 표할 수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68:4 참조) 경전에서 가르치기 위해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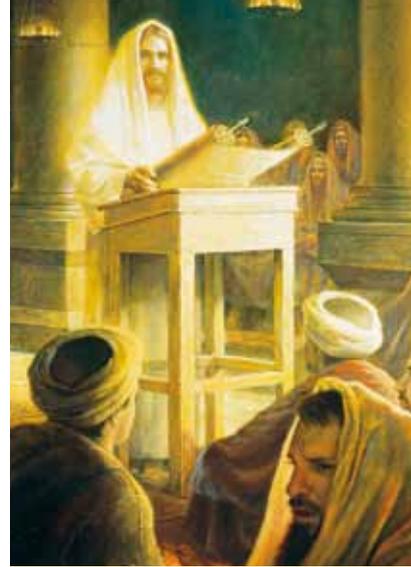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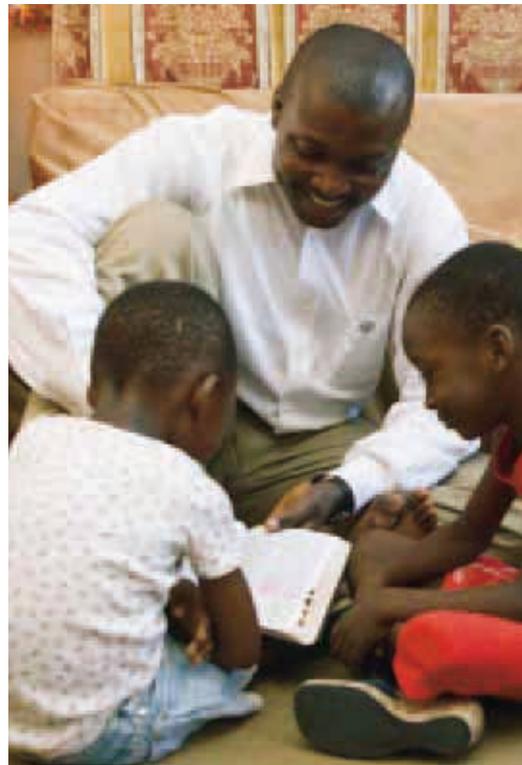
### 사람들을 강화하며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주신 가르침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입니다.(요한복음 6장 참조) 이 설교는 그분께서 명하신 내용과 경전의 사용 및 경전이 우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날, 주님께서서는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셨으며 이 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요한복음 6:5~14 참조) 이 기적과 다른 기적들이 주님을 믿게 하는 데 충분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서는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널리 선포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 사도들은 훈련을 받았으며, 특히 베드로는 간증이 강화되었습니다.(63~71절 참조)

위대한 교사께서는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소개하기 위해 구약전서에 나오는 일화를 언급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 위대한 교사

“구주께서는 위대한 교사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비길 데 없는 교수법 강연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철학자, 경제학자, 사회 개혁가 등 수많은 칭호로 불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칭호에 앞서 구주께서는 교사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다?’ 하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정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분은 교사이셨습니다. 우리의 이상으로 삼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위대한 교사는 예수님이십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Mine Errand from the Lord*(2008년), 336쪽.



그런 다음 구주께서는 속죄를 성찬 빵과 물이라는 상징과 연관시켜 성스러운 교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요한복음 6:53)

우리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통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요한복음 6:69)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는 우리에게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강화하기 위해 경전을 읽고 공부하고, (말로 풀어서 설명하기보다는) 직접 인용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전 기록을 성취하다: 승리의 입성**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일은 그분께서 경전을 알고 활용하셨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여호와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시편 118:26; 또한 마가복음 11:9~10 참조)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성취하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 나귀를 타시나니”(스가랴 9:9; 또한 마태복음 21:4~5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성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겿세마네 동산, 십자가, 빈 무덤에 가실 때까지 고대 경전과 그분이 베푸신 성역과 기적과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요한복음 6:32~33; 또한 출애굽기 16장 참조)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요한복음 6:34)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대답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약속된 메시아이며 구주라는 신성한 정체성을 영적으로 받으셨음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6:35)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 나귀를 타시나니”



## 생명의 떡 나누기

카를로스 로베르토 푸스코가, 마이비 마르시아 바스토스 푸스코에게 들려준 이야기에서

**브**라질 파라나 포스두이구아수에서 무더운 날을 보내고 있었다. 몇 시간을 여행한 탓에 피로했다. 교회 교육 기구 지도자인 나는 교회에서 감독님을 만나 어떤 문제들을 다루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감독님이 잠시 자리를 비워서 감독님과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감독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성이 교회로 들어왔다. 그녀는 내게로 오더니 빵을 사게 돈을 좀 달라고 겸손하게 말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신이 굶주렸으며 구걸이 창피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조그만 빵이면 돼요.”

나는 측은한 마음에 주머니에서 돈 몇 푼을 꺼냈다. 그녀는 돈이 너무 많다고 여겼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빵이랑 우유랑 고기도 좀 사세요.”

그녀는 고마워하며 남편이 다음 주 화요일에 일자리를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남편이 급여를 받는 대로 돈을 갚고 싶어 했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완고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돈을 갚는 대신 일요일 아침에 이 집회소로 오세요. 이곳에 와서 아무한테나 선교사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씀하세요. 아셨죠?” 그녀는 알겠다고 했다.

그녀는 돌아갔다. 나는 감독님과 논의해야 할 문제를 해결한 후 파라나 여행을 계속하며 임무를 수행했다.

수 개월 후, 한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포스두이구아수에 있는 그 집회소를 다시 찾았다. 합창단이 아름답고 감미로운 노래를 선사했다. 대회가 끝나자 합창단 중 한 명이 내게로 다가왔다. 그녀는 아름다운 웃음으로 나를 반기며 악수를 청한 다음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감사합니다, 형제님. 형제님은 남편과 제가 허기를 달래도록 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떡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녀가 바로 내가 몇 달 전에 돈 몇 푼을 쥐여 준 여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자 큰 기쁨이 밀려왔다. 나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의 인생을 바꿔 놓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약속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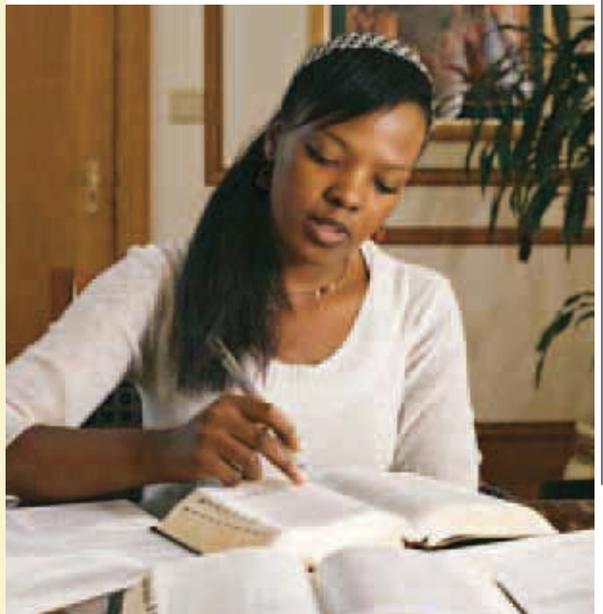
겻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 이와 같은 겸손한 말씀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무한한 속죄 희생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가장 위대한 교사로 남으시리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칩니다. 경전에 몰입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음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한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니, 그런즉 너희는 이 말이 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요 사람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증언할지니라.”(교리와 성약 18:34) 저는 제가 우선 가정에서 아내와 가족과 함께 경전에 몰입할 때 교회에서 더 훌륭히 봉사하게 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저는 경전을 사랑합니다. 경전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구주께서 그러셨듯이 가정에서, 그리고 부름을 수행할 때 경전으로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가르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강력한 효과”를 미치게 합니다.(앨마서 31:5) ■

### 주

1.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3판(1977년), 116쪽.
2. Thomas A. Wayment, “Jesus’ Uses of the Psalms in Matthew”, Frank F. Judd 및 Gaye Strathearn, 편, *Sperry Symposium Classics: The New Testament*, (2006년), 137-149쪽 참조.



# 신약의 역사적 배경

토머스 웨이먼트  
브리검 영 대학교 고대 경전학 부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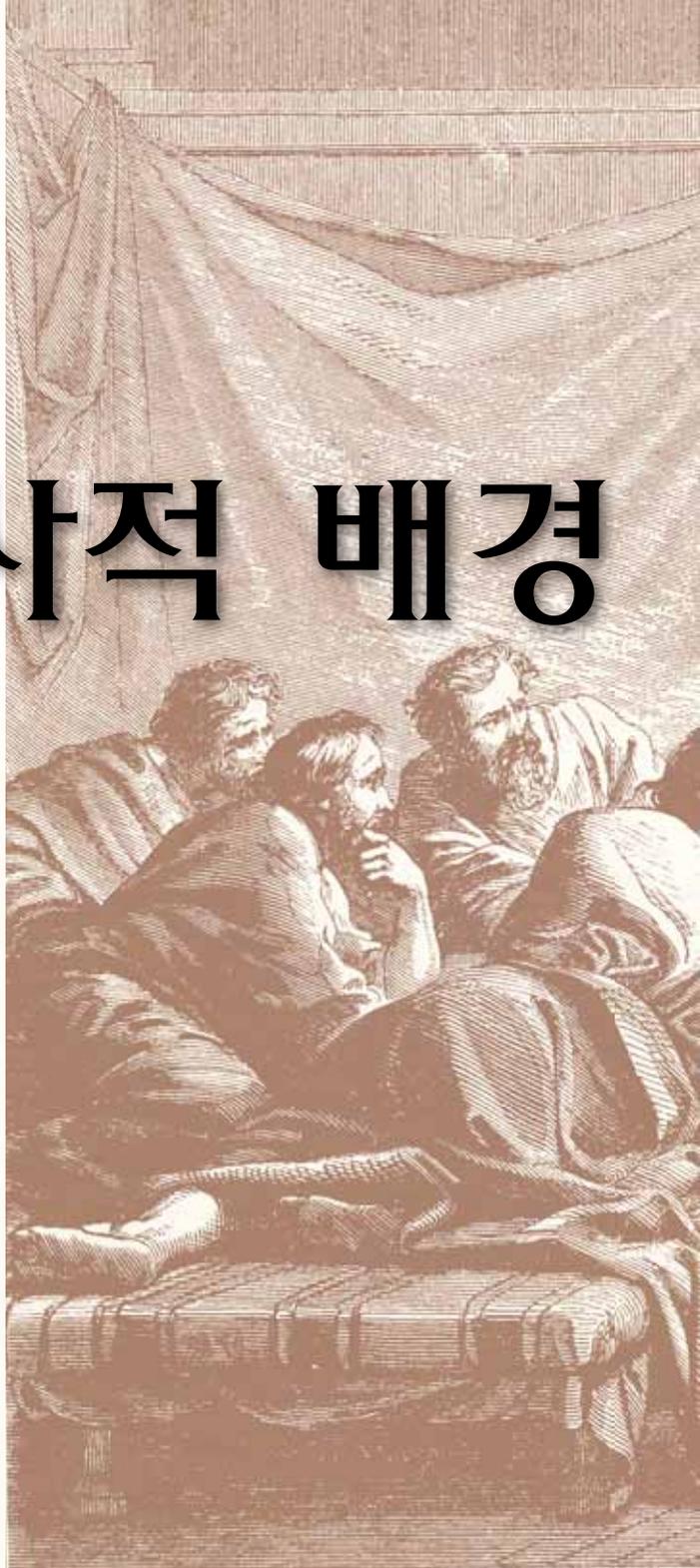
거룩한 경전에 포함된 모든 책은 각각 독특한 역사를 담고 있으며, 고유한 방법으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신약은 다른 책과는 달리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거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그분을 따랐던 이들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은 우리가 구주께 가까이 다가가고 그분의 지상 성역을 어렵듯이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매우 귀중한 자원입니다. 신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왔는지, 또 누가 그것을 기록했는지와 같은 신약의 역사를 이해한다면, 이 놀라운 경전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되며, 그리하여 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처럼 시련에 맞설 더 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신약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몇 년 동안 “신약”이란 단어는 주님의 삶과 죽음에 관해 기록된 책

모음집이라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구주께서 최후의 만찬을 드시던 날 밤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을 뜻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28) “신약”으로 번역된 이 그리스어는 사실 성약, 즉 구주께서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성약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신약이라 일컬어지는 이 기록은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새로운 성약을 설명하고 문서로써 증거하며 가르칩니다.

신약에 보존된 기록들은 구주의 성역 중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춥니다. 신약은 복음서로 시작되며, 여기서 복음이란 “기쁜 소식”을 뜻하는 단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역과 신성한 역할을 가리킵니다. 또한 신약에는 교회에서 최초로 행한 선교 사업의 역사도 담겨 있습니다.(사도행전) 또한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초기



이 놀라운 경전의 기원을 이해한다면 경전을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의 편지도 수록되어 있는데, 초기 기독교인들(성도라고도 불렀음)에게 주는, 신앙에 충실하라는 훈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간중(히브리서)과, 후기에 주님께서서

재림하시리라는 약속이 담긴 계시(요한계시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의 저자들은 각자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을 했으며, 역사 기록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메우려는 목적보다는 특정한

독자층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주후 4세기 중반, 주님의 새로운 성약을 기록한 책 27권이 집대성되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순서대로 정리되었습니다.



바울의 서한을 들고 있는 초기 성도들

### 신약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서는 수많은 제자 가운데 열두 명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성역 내내 그분을 따르며 고통을 함께하고, 승리를 기뻐했으며, 영이 충만한 경험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사도들은 예수님을 충실히 따른 다른 이들과 함께 자신이 겪은 일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의 삶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고자 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첫째, 예루살렘과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 병사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둘째, 배도의 영향력이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사도행전 20:29~30 참조) 그리하여 당시에 불어닥치던 재난과 논쟁 속에서 충실한 이들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도록 돕기 위해 신약의 많은 기록이 집필되었습니다.

이들이 겪은 상황을 살펴 보면, 그들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떻게 맞섰으며 복음의 기쁜 소식이 어떻게 배도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확고한 힘이 되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1세기 말엽, 현재 신약에 실린 모든 기록이 완성되어 교회의 각 지부에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필경사(인쇄술이 보급되기 전 글씨 쓰는 일을 직업으로 하던 사람-옮긴이)들이 파피루스에

당시에 불어닥치던 재난과 논쟁 속에서 충실한 이들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도록 돕기 위해 신약의 많은 기록이 집필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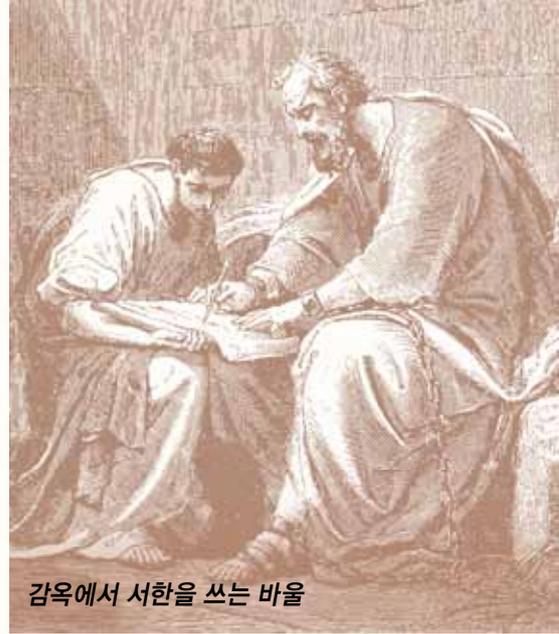
말씀을 베껴 썼고 그 후 양피지에 옮겨 적기도 했으나 그 수는 비교적 적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구할 수 있는 책을 모아서 주님과 사도들의 말씀을 읽고 공부했습니다.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주후 303년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자 경전 보급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는 기독교 경전을 불태우라고 명했으며,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교도 신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라고 강요했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박해가 계속되는 동안 많은 충실한 성도들은 성스러운 기록을 숨겼습니다. 후에, 첫 번째 기독교도 황제인 콘스탄티누스가 새로운 경전을 만들라고 명하자 황제의 학자들이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칙령이 있기 전에 교회 지부 사이에서 사용되던 경전을 복원했습니다. 현대에 출판되어 나오는 신약전서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복원된 성경에 기원을 두므로, 결국 신약의 기원은 주님의 새로운 성약을 보존하고자 자신의 안전을 희생한 이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신약을

필사해서 다시 보급하라고 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금의 성경을 구성하는 책들이 현재와 같은 순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순서는 구약의 양식을 본땀습니다. 신약은 율법(복음서), 기독교 역사(사도행전), 그리고 선지자들(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주님의 재림(말라기와 요한계시록)에 대한 약속으로 끝을 맺습니다. 또한 이 예언서들이 배치된 방식에서 구원과 미래에 관한 계시를 고대하는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 누가 신약의 저자인가?

신약의 저자들은 각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독특한 관점에서 기록했습니다. 복음서 중 두 개는 사도인 마태와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이 사도들의 증언은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격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후 주님을 따르던 두 제자가 각각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직접 느끼고 들은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감옥에서 서한을 쓰는 바울

한때 바울의 동반자였으며(사도행전 12:25; 디모데후서 4:11 참조), 또한 우리는 유대 이외 지역 거주민들과 주님께서 살아 계시는 동안 그분을 알지 못한 사람들을 개종시켜 성도 수를 늘리는 데 이 두 사람이 관심을 두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이 두 사람의 기록은 그들이 믿은 구주에 대해 생생한 간증을 전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신약의 책들 중 가장 먼저 쓰인 것으로 추정되나 모두 같은 시기에 쓰이지는 않았습니 다. 바울의 간증은 선교사로서 겪은 일들과 몇 가지 강렬한 시현(사도행전 9:1~6; 고린도후서 12:1~7 참조), 그리고 베드로와 그 외 다른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갈라디아서 1:18 참조) 싹텄습니다. 바울은 주로 지부들 간에 일어난 분쟁을 잠재우고자 서신을 썼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친구들(디모데와 디도)에게 썼습니다. 한 서신에서 바울은 감옥에서 만난 도망친 노예(빌레몬)가 돌아가면 받아들 줄 것을 노예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히브리서는 어느 때처럼 바울이 도입부에서 자신이 저자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으로 바울이 쓴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실과는 관계없이



고넬료 가족에게 설교하는 베드로



설교하고 병을 고치는 베드로와 요한

히브리서는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지를 증거합니다. 신약에서 바울의 서신들 다음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는 역경에 맞서 신앙을 행사하는 것을 다루는 일종의 논문입니다.

야고보의 짧은 서한 역시 꽤 초기에 쓰였으며,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와는 별개로 구두로 전해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관해 언급합니다.(야고보서 1:13; 4:12; 5:12 참조) 이 서한의 저자는 예수님의 남동생인 야고보로 추정됩니다. 야고보는 부활하신 구주를 뵈고 그분을 알고 지내는 특권을 누렸으며(고린도전서 15:7 참조), 교회사의 많은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사도행전 15:13~29 참조)

신약에는 사도 베드로가 쓴 두 서한과 사도 요한이 쓴 세 서한도 포함됩니다. 이 두 사도 모두 기독교인들에게 충실할 것을 촉구했는데 베드로는 특히 시련 속에서 충실할 것을 염원했습니다.

유다서는 신약에서 가장 늦게 기록된 책 중 하나입니다. 야고보서처럼 이 책 또한 주님의 형제 가운데 한 명이 쓴 듯합니다.(마가복음 6장 3절에 나오는

“유다”) 유다는 지부들 사이에서 점점 확산되는 배도를 막기 위해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은 사도 요한이 남긴 계시록으로 끝을 맺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어 복천년 통치에 들어가는 시현을 기록했습니다. 이 시현에는 선과 악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생생하고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장들은 요한에게는



### 목격자들의 설명

저는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의 여행과 그들이 베푼 기적, 그리고 바울의 서한을 무척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모범, 속죄에 관한 목격자들의 설명을 특히 더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시각과 평안을 사랑합니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스러운 성경의 기적”,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81쪽.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다루었으며, 여기에는 후기, 즉 우리 시대에 일어날 일들도 있습니다.

### 신약은 누구를 위해 쓰였는가?

신약은 정확히 주님과 주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 맺는 새로운 성약을 뜻하므로, 이 경륜의 시대 혹은 이전 경륜의 시대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본래 신약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기록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당시 교회 지부들 사이에서 바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은 자신의 기록을 하나의 증거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요한복음 20:31) 누가를 포함한 다른 이들은 역사를 상세한 기록으로 남길 목적으로 썼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 어린이

### 경전 어디에 있나요?

**경**전에 나오는 여덟 가지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각 이야기가 어느 경전에 나오는지 맞춰 보세요. 잘 모르면 색인이나 경전 안내서에서 이야기 주제를 찾아보세요.

- 사냥에 쓸 활을 부러뜨린 니파이(1)
- 방주를 만드는 노아(2)
- 지혜의 말씀(3)
- 민족을 구한 에스더(4)
- 집으로 돌아온 탕자(5)
- 자유의 가치를 만든 모로나이 대장(6)
-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예수님(7)
- 커틀랜드 성전 헌납(8)

괄호 안에 있는 숫자를 퍼즐 속에서 찾아보세요. 아래에 나온 대로 각 경전마다 정해진 색깔에 따라 그 부분을 색칠해 보세요.

구약=파란색      물문경=노란색  
신약=빨간색      교리와 성약=갈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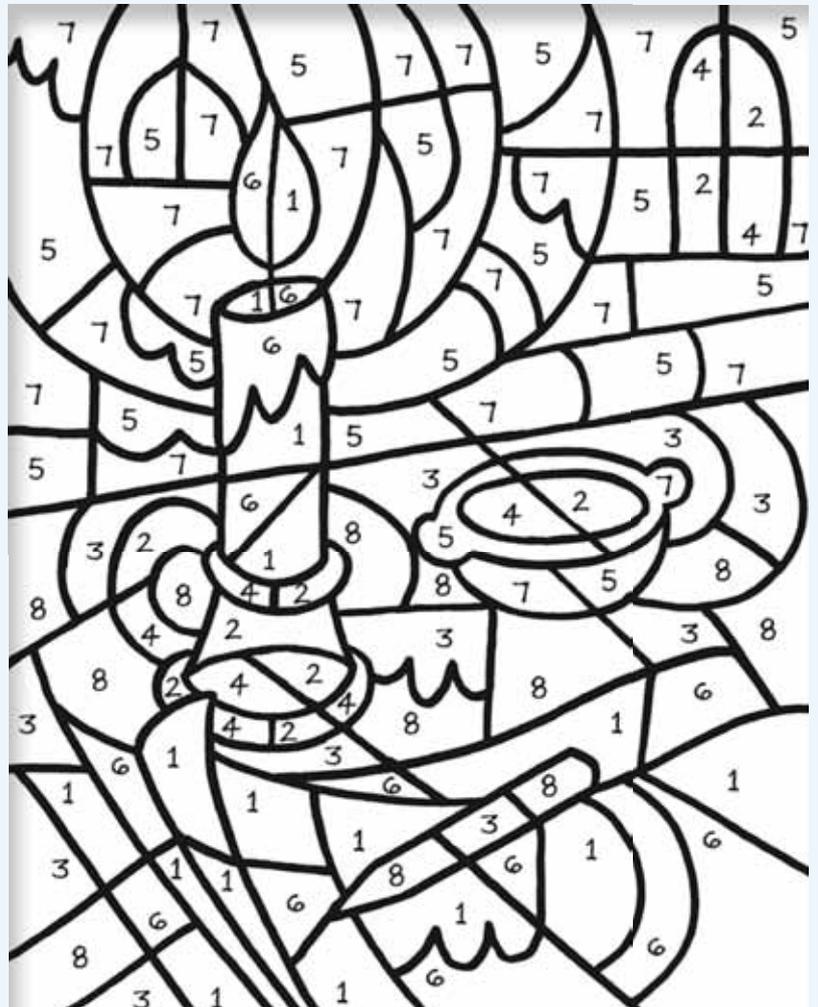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누가복음 1:1~3)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 가정에서 자란 이들도 있었으며, 침례 받기 전에 정식으로 종교에 가입한 적이 거의 없는 사람들도 있는 등 출신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오늘날 다양한 집단의 성도들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노력은 시련과 유혹 가운데 있을지라도 악을 극복하고 충실하게 남는 방법에 관한 설득력 있는 교훈을 제시합니다. 또한 회원 수가 많지 않던 시기에 각 지부가 얼마나 고군분투했으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이 어떻게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었는지 알려 줍니다.

### 우리 시대를 위한 간증

신약은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불확실한 시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사도행전 2:42) 이들이 보전될 수 있었음을 알려 줍니다. 신약에서는 의로운 이들도 시험 받을 수 있다는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고린도전서 10:13 참조), 또한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간결하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야고보서 1:27)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그는 살아 계시다”(교리와 성약 76:22)라고 간증한 교리와 성약과 같이 신약에도 부활절 아침에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비슷한 간증이 나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 그가 살아나셨느니라”(마태복음 28: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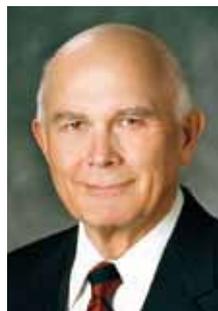
2010년 2월 26일, 하버드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

**후** 기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교리와 가치관을 잘 모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사실은 게리 시 로렌스가 최근에 출간한 책, *How Americans View Mormonism*(미국인들은 몰몬교를 어떻게 보는가)에 실린 전국에 걸친 그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중 4분의 3은 우리 교회가 높은 도덕 표준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우리가 비밀스럽고 신비로우며 우리에게 “이상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sup>1</sup> 일반적으로 후기 성도를 묘사할 몇 가지 표현을 고르라고 하자 87 퍼센트가 “가족에 큰 비중을 둔다”를 선택했고, 78 퍼센트가 “정직”, 45 퍼센트가 “맹목적인 추종자”를 선택했습니다.<sup>2</sup>

로렌스가 파견한 조사원들이 “여러분이 보기에 몰몬교의 주된 주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자 오직 14 퍼센트만이 초대 기독교가 회복되거나 재건되었다는 개념과

# 우리 신앙의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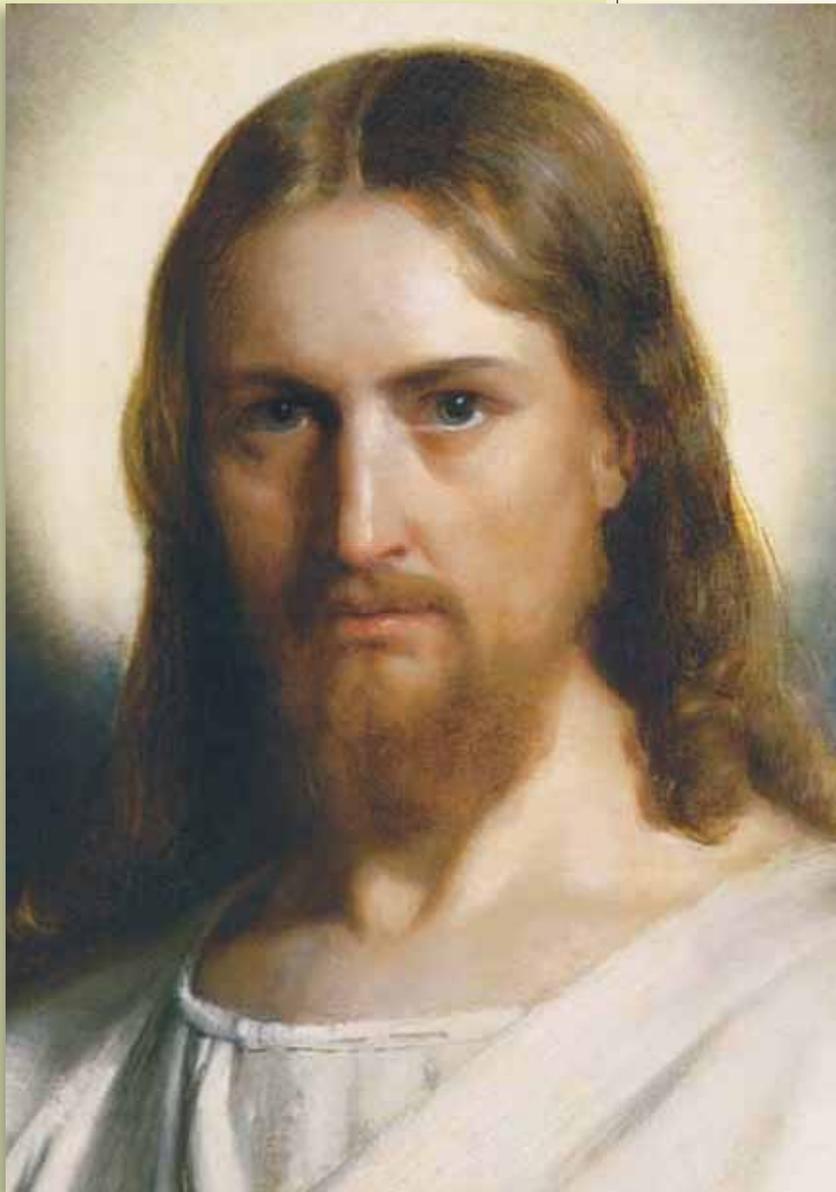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가깝게 설명했습니다. 전국으로 실시한 또 다른 조사에서는 몰몬교에 대한 인상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자, 단 한 사람도 초대 기독교 혹은 기독교 회복이라는 말이나 개념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sup>3</sup>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한 제 실망감은 종교 주제에 관한 로렌스의 또 다른 관찰과 결과 내용으로 아주 조금 완화되었을 뿐입니다. 로렌스는 미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신앙심이 깊으나” “극심하게 무지”하다고 했습니다. 가령, 응답자 가운데 68 퍼센트만이 적어도 일주일에 몇 차례 이상 기도한다고 답했고, 44 퍼센트만이 거의 매주 종교 모임에 나간다고 답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복음서 명칭 중 하나라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사도로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리와 성역, 권세를 증거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 직분에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이러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참되다는 간증을 전합니다.



겨우 절반뿐이었고, 대부분이 성경의 첫 번째 책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10 퍼센트는 잔다르크가 노아의 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sup>4</sup>

이처럼 종교 주제에 대한 무지함이 만연한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요인 중 한 가지는 고등 교육이 일반적으로 종교에 적대적인 편이거나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학과 대학교는 가치 중립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종교에 대한 태도는 기껏해야 중립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과 도덕적 절대원칙을 믿는 학생들과 신앙심 깊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고등 교육 기관 전체가 도덕 가치관을 가르치는 주된 역할을 다시 맡아주리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일인 듯합니다. 그것은 가정과 교회, 교회 관련 대학과 대학교의 몫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두가 이 중차대한 과업이 성공하기를 염원해야 합니다. 학교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 관해 중립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그와 같은 중립적인 기틀 위에서는 생존하지 못합니다.

저는 후기 성도 신앙의 기본 전제들을 나타내기 위해 세 가지 범주의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1. 하나님의 본질. 여기에는 신화를 구성하는 세 분께서 말씀하신 역할과 도덕적 절대원칙이 존재한다는 당연한 진리가 포함됩니다.
2. 인생의 목적
3. 인간과 우주에 관한 진리를 얻는 세 가지 원천: 과학, 경전, 지속적인 계시. 그리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

### 1. 하나님의 본질

제가 제시할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기본 전제는 하나님께서 실재하시며, 오늘날 과학 수단으로는 검증하지 못하는 영원한

진리와 가치관도 실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앙인들처럼 우리는 궁극적인 율법을 세우시는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며 도덕적 절대원칙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현대 문화 전반에 비공식적인 신조가 되고 있는 도덕적 상대주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과 우리의 관계에 관한 진리는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한 열쇠가 됩니다. 의미심장하게도,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기독교 종파 대부분이 믿는 공식적인 신조로부터 우리를 분명하게 구분짓습니다. 우리의 신앙개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제1조)

우리는 다른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신화를 믿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신화는 대부분의 기독교와 다릅니다. 우리는 신화의 세 구성원은 서로 다른 독립된 세 존재이며,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 아니라 만져볼 수 있는 육신을 지니신 영화로운 존재이고, 그분의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분들은 서로 정체성이 다르지만 목적에서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분의 아버지께 기도드리면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그분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기를 간구하셨을 때, 이는 곧 목적은 하나이나 정체성은 다른 관계를 일컬으셨다고 믿습니다.(요한복음 17:11)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고],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교리와 성약 130:22)라는 독특한 믿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게리 로렌스가 실시한 조사에서 보여 주듯이 우리는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sup>5</sup>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첫번째 시현이라 부르는 일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시현을 통해 예수

**1** 우리는 신화의 세 구성원이 서로 다른 독립된 세 존재이며,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 아니라 만져볼 수 있는 육신을 지니신 영화로운 존재이고, 그분의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분들은 서로 다른 정체성을 지녔지만, 목적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교육도 받지 못한 14세 소년 조셉 스미스는 어느 교회에 가입해야 할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한 시현에서 형용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중 한 분은 다른 분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조셉 스미스-역사 1:17) 하나님의 아들은 어린 선지자에게 그 당시에 있던 교회들의 모든 “신조”는 “그[분] 보시기에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조셉 스미스-역사 1:19) 이 거룩한 선언은 신조를 질책하신 것이지 그것을 믿는 충실한 신도들이 나무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은 당시 널리 퍼진 하나님의 본질과 신화에 대한 개념이 옳지 않으며, 이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 후로 주어진 현대 경전은 이 근본적인 진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몰몬경을 받았습니다. 이 새로운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증거입니다. 몰몬경은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본질과 성역에 관한 예언과 가르침을 확인해 줍니다. 이 책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면서 가르치신 내용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들이 참됨을 아는 데 도움이 되는 계시에 관한 많은 가르침과 설명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말해 줍니다.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철학이 아무리 유서 깊고 훌륭하다 해도 우리는 그러한 것에 기초를 두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지자와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계시에 기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통해 우리가 명백히 밝히고자 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지상에서 베푸신 비길 데 없는 성역으로 우리의 교사가 되십니다. 그분의 부활 덕분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들려질 것입니다. 그분은 구주이십니다. 그분께서 치르신 속죄 희생으로 우리 각자가 범한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깨끗이 씻기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를 아울러 선지자들이 전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 위대한 진리를 신앙개조 제3조에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몰몬경에 나오는 베냐민 왕과 함께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는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길이나 방법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니,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올 수 있느니라.”(모사이야서 3:17)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께서는 어떻게 사망의 줄을 끊으실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었을까요? 더럽고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속죄를 통해 깨끗해지고 부활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은 제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부분입니다. 저로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속죄라는 기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신께서 제게 그 기적이 참됨을 증거해 주셨으며, 저는 그 소식을 전파하며 생애를 보낼 수 있어서 기쁩니다.

## 2. 필멸의 삶의 목적

제가 제시할 두 번째 기본 전제는 필멸의 삶의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는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하며, 그분의 자녀인 우리의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리는 우리가 지상에 오기 전에 영으로 살았다는 확신에서 비롯합니다. 또한 필멸의 삶에 목적이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아울러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일은 하늘 아버지처럼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 관계를 영원히 이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육신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께서 주신 복음 율법과 의식에 순종하여 승영 혹은 영생이라 부르는 영화로운 해의 영광의 상태와 관계에 합당해지기 위해 지상에 왔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로 적절하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족 중심주의는 필멸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가 기본 교리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창조주의 위대한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교회는 우리가 해의 왕국에서 승영을 이루도록 돕는다는 사명을 따릅니다. 그것은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로 맺어지는 영원한 결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교리와 성약 131: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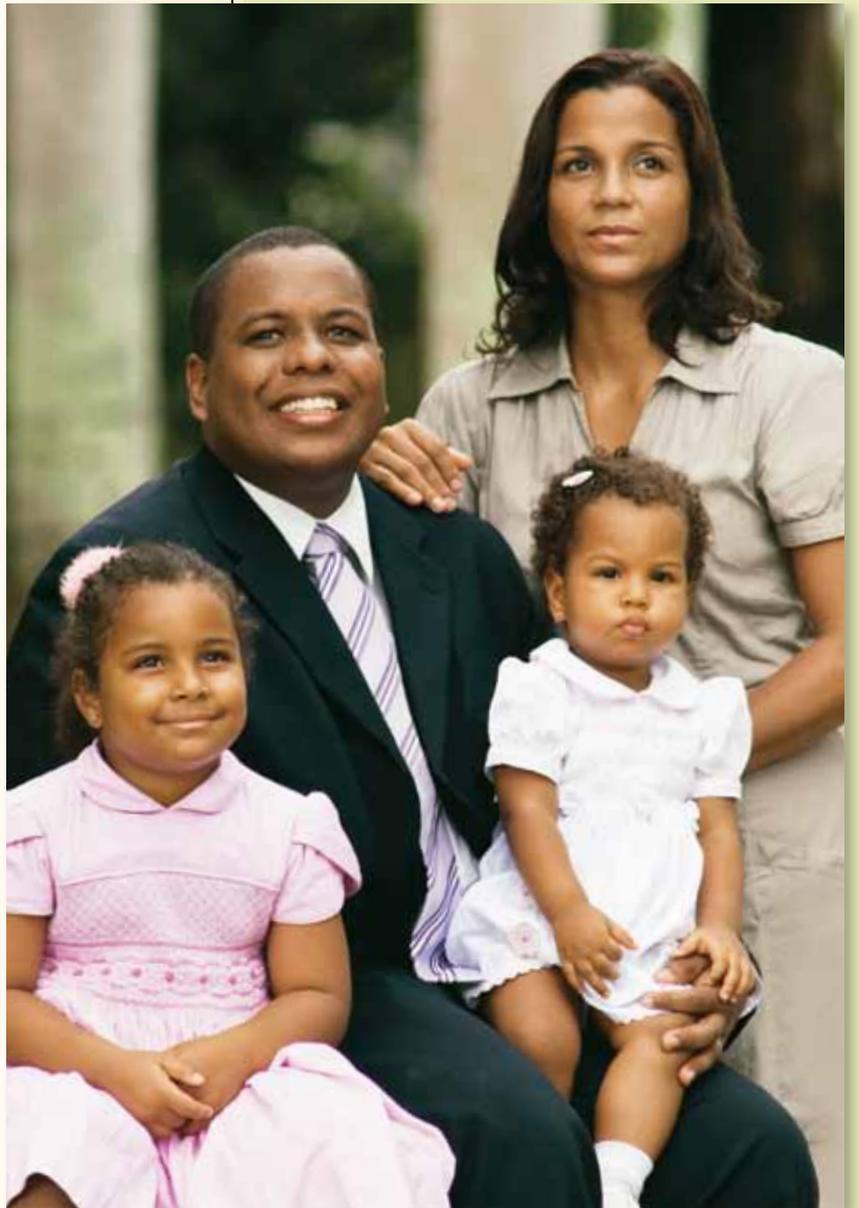
충실한 미망인이셨던 제 어머니는 가족 관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점을 의심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신 충실한 아버지의 위치를 늘 존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정에 아버지가 함께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성전 결혼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 우리가 내세에서 가족으로 함께할 운명이라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구주의 약속에 합당하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지 자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결코 남편을 잃은 분이라 여기지 않으셨고,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성장기에 있던 소년인 제 눈에도 어머니는 남편을 잃은 분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있었고 우리에게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자리를 비우신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필멸의 탄생을 위한 합당한 환경을 제공하고, 영생에 이르도록 가족을 준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를 이루는 데 결혼이 꼭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후기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식에서 결혼과 자녀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 계획의 일환이며 이는 또한 그 일에 참여할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받은 성스러운 임무라고 봅니다. 우리는 자녀와 후손들이 지상과 하늘에 있는 궁극적인 보물이라고 믿습니다. 나아가 모든 자녀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가장 훌륭한 환경을 제공하는 지상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필멸의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2** 우리 교리는 필멸의 삶에 목적이 있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아울러 우리가 가장 열망하는 것은 하늘 어버이처럼 되는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가족 관계를 영원히 이어갈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주신 가장 숭고한 능력입니다. 이 창조하는 능력을 사용하라는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창세기 1:28)라는 첫 번째 계명에 나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계명은 그 능력을 오용하는 일을 금합니다. “간음하지 말라”(출애굽기 20:14) “음란을 버리[라]”(데살로니가전서 4:3)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계획을 이루는 데에서 출산 능력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순결의 법을 강조하는 우리의 태도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 압력이 성별에 혼란을 주고, 결혼의 중요성을 경시하거나 결혼의 정의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모호하게 만드는 변화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관점에서 그와 같은 변화에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멸의 삶의 목적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는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독특한 교리가 포함됩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도 이생을 떠나면 하늘(낙원) 또는 지옥에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운 자와 간악한 자, 이렇게 둘로 갈리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이 부활과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동안 놓이는 일시적인 상태일 뿐이라고 믿습니다.(엘마서 40:11~14) 최후의 심판 뒤에 오는 종착지는 좀 더 다양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라고 명하십니다.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영원한 목적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 모두는 그분의 계명에 얼마만큼 순종했느냐에 따라 다른 영광의 왕국에 배속될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낸 두 번째 서한에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고린도후서 12:2) 사람의 시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이야기하며 바울은 각기 다른 영광을 지닌 해와 달과 별처럼 서로 다른 영광을 띤 “형체”를 묘사했습니다. 바울은 이 형체 중 앞의 두 가지를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고린도전서 15:40~42 참조)로 묘사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높은 영광인 해의 왕국에서 누리는 영생은 불가사의한 영으로 된 신과 신비롭게 함께하는 일이 아닙니다. 영생은 사랑의 하늘 아버지와 조상과 후손과 함께하는 가족

생활입니다.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교리는 포괄적이고 보편적이고 자비로우며 진실합니다. 필멸의 삶이라는 필수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은 궁극적으로 부활할 것이며, 그 어떤 필멸의 존재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영화로운 영광의 왕국으로 갈 것입니다.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아주 사악한 사람조차도 궁극적으로 정도는 덜 하지만 놀라운 영광의 왕국에 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 자기 손으로 지은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교리와 성약 76:43)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와 부활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 3. 진리의 원천

후기 성도는 지식을 추구하는 데 큰 관심이 있습니다. 브리검 영(1801~1877) 회장님은 이러한 점을 잘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종교는 …… 지식을 열심히 연구하도록 촉구합니다. 우리만큼 진리를 보고 듣고 배우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없습니다.”<sup>6</sup>

또한 브리검 영 회장님은 우리 교회가 회원들에게 “모든 학문 분야에서 …… 지식을 쌓으라고” 장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예술과 과학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며, 그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sup>7</sup>

우리는 지식을 추구하나 특별한 방식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지식에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차원의 지식은 과학적 탐구로, 영적 차원의 지식은 계시로 추구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및 그분과 교통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계시는 분명 우리 신앙의 독특한 특성 중 하나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평생 지속되는 계시를 통해 지시 받고 고양되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을 포함하여 자신이 출판한 방대한 양의 계시를 통해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의 선지자라는 자신의 독특한 부름을 수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셉 스미스와 그 뒤를 이은 교회 회장들에게 주신 이 예언적 계시를 통해 그분의 백성을

교화하고, 그분의 교회를 운영하고 지휘하기 위해, 그분의 선지자이자 지도자들에게 진리와 계명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가르침에 기술된 계시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아모스 3:7)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 항상 그래왔듯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역시 직접적인 계시 위에 세워졌습니다.”<sup>8</sup>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묻고 답했습니다. “물문경과 계시를 없애 버린다면 우리 종교에 무엇이 남을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sup>9</sup>

아울러 조셉 스미스는 계시가 초기 사도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날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신의 개종과 이해와 의사결정을 위해 개인적인 계시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계시를 받는 것은 하나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sup>10</sup>

신약은 그와 같은 개인적인 계시를 설명합니다. 가령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는 확신을 밝히자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복음 16:17)

“영감”이라고도 부르는 개인적인 계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옵니다. 대개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에 대한 갑작스런 깨달음, 혹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느낌을 통해 마음속에 전해지는 말씀이나 생각으로 찾아옵니다. 보통 개인적인 계시는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구했을 때 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7)

**3** 우리는 물질적 차원의 지식은 과학적 탐구로, 영적 차원의 지식은 계시로 추구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및 그분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성신을 동반하고 성신과 의사소통하기에 합당할 때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회원들이 어떻게 현대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각자의 삶에서 인도를 받는지 궁금해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종교적 전통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후기 성도들이 그 지도자들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한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개인적인 계시를 답변으로 내놓겠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교회에서 지도력을 행사하고 가르칠 때 영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지도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확인을 받을 특권이 있으며, 그렇게 하도록 권고 받습니다.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경전으로 사용하는 거룩한 책들의 권위 있는 모음집인 정경 편찬을 끝내셨으며, 그 후로 그에 견줄 계시가 없었다고 믿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경전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보여 주었습니다.<sup>11</sup> 실로 정경은 두 가지 면에서 열려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지속적인 계시라는 개념은 중요합니다.

첫째,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께서 정경에 새 기록을 더하심으로써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경은 그와 같이 추가된 기록입니다. 교리와 성약과 값진 진주에 나오는 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 시대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하고, 실행하기를 바라시는지 알기 위해 필요합니다.

둘째, 경전 독자들이 성신의 영향을 받아 각각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새로운 경전적 의미와 방향을 찾는 동안 정경은 지속적인 계시를 통해 열려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디모데후서 3:16; 또한

베드로후서 1:21 참조)이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고린도전서 2:11; 조셉 스미스 역 성경, 각주 c 참조)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전을 이해하려면 우리 마음을 깨우치기 위해 주님의 영으로부터 개인적인 영감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원들에게 경전을 공부하고 스스로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감을 구하라고 격려합니다. 궁극적인 지식은 성신을 통해 받는 개인적인 계시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태복음 7:20) 저에게, 수많은 다른 신앙인들에게, 나아가 많은 목격자들에게 그 열매는 아름답습니다. 회원들에게 아름답고, 지역 사회에 유익하며, 그 국가에 훌륭합니다. 2010년 1월 아이티 지진과 같은 비극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그 회원들이 조용히 효율적으로 제공한 수백만 달러 상당의 물품과 봉사는

그와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저는 사도로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교리와 성역과 권세를 증거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이 직분에 부름 받은 사람으로서 저는 이러한 우리 신앙의 기초가 참되다는 간증을 전합니다. ■

말씀 전문을 영어로 읽으려면 [www.lds.org/fundamental-premises-of-our-faith](http://www.lds.org/fundamental-premises-of-our-faith)를 방문한다.

## 이 기사 나누기

**다** 음은 옥스 장로 기사를 나누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제언이다.

- 이 기사를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친구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 그 친구를 만날 때,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나눈다.
- 온라인 상에서 기사를 나눈다. [www.liahona.lds.org](http://www.liahona.lds.org)를 방문하여 1월호에서 이 기사를 찾아 “Share”를 클릭한다. 기사와 함께 메시지를 보낼 때, 옥스 장로가 전하는 기본 교리가 여러분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적을 수 있다.

### 주

1. Gary C. Lawrence, *How Americans View Mormonism*(2008년), 32쪽.
2. *How Americans View Mormonism*, 34쪽.
3. *How Americans View Mormonism*, 42쪽 참조.
4. *How Americans View Mormonism*, 40쪽 참조.
5. *How Americans View Mormonism*, 49쪽 참조.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년), 194쪽.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 193쪽.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195쪽.
9.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196쪽.
1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132쪽.
1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7-216, 265~266쪽 참조.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년 회장

# 개인 발전 기록부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지** 금은 여러분을 기다리는 멋진 미래를 준비할 때입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는 여러분이 준비를 갖추고 하나님의 딸로서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는 여러분의 인생과 동떨어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구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지도력을 배우고, 사람들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성전 성약을 맺을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 생활 속에서 의로움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들을 꾸준히 행할 때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의 일부가 되고, 그에 따라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참으로 “작고 단순한 일로 큰 일이 이루어[집니다.]”(앨마서 37:6)

개정된 개인 발전 기록부 표지에는 성전이 나옵니다. 성전은 우리가 모든 청년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표지를 볼 때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언젠가 성전에서 성약을 맺고 지킬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새로 나온 개인 발전 기록부는 분홍색입니다! 이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색은 여러분이 여성으로서 독특한 특성과 은사와 역할을 지닌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줍니다.

새로운 기록부에서는 몇 가지 가치관 경험과 활동이 좀 더 현대 흐름에 맞고, 여러분이 언젠가 맺고 지킬 성전 성약에 좀 더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질문에 몇 가지 답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를 어떻게 시작하나요?**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느 것이든 관심있는 가치관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치관을 순서대로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수 경험을 하면 그 가치관과 그리고 왜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이 아닌 친구들에게도 함께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하자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나 다른 여성들도 참여할 수



**꿀벌상징**은  
별집이며, 화합과  
협력과 일을  
상징합니다.

**장미상징**은  
장미이며, 사랑과 신앙과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월계상징**은  
월계관이며, 영광과  
성취를 상징합니다.

## 촛불 목걸이

여러분이 청년 조직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지도자는 여러분에게 촛불 목걸이를 줄 것입니다. 이 목걸이는 여러분이 언제 어디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진리와 의를 수호하겠다는 결심을 상징합니다. 이 불꽃 상징은 또한 여러분이 “일어나 빛을 발하[여] …… [여러분의] 빛이 열국을 위한 기가 되게”(교리와 성약 115:5) 일깨워 줄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이 목걸이를 걸고 여러분의 결심을 기억하십시오.





**청녀 표창**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완수하면 여러분은 간증을 일지에 기록하고 감독님 또는 지부 회장님과 접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여러분은 청녀 표창을 받을 자격을 얻습니다. 메달에는 성전과 더불어 연령별 상징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장미 한가운데에는 작은 루비도 있습니다. 이 루비는 여러분이 개인 발전 프로그램과 새로 추가된 정결 가치관을 완수했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은 이 루비를 보며 정결한 청녀는 고귀하고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잠언 31:10)라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영광의 꿀벌**

메달을 획득한 후에 물문경을 다시 읽고, 다른 청녀가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돕는 것을 비롯하여 더 많은 봉사를 행한다면 영광의 꿀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발전 기록부**

각 가치관 경험과 활동을 완수하면 개인 발전 기록부 뒤쪽에 붙일 금색 스티커를 하나 받게 됩니다. 그곳에 가치관을 완수한 날짜도 기입하십시오. 개인 발전 기록부와 일지는 여러분이 성취하는 모든 훌륭한 일이 기록된 개인 일지가 될 것입니다.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



있습니다.

**진도를 얼마나 빨리 나가야 하나요?** 개인 발전 기록부를 펼쳐 보면 여러분이 이미 학교나 가정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띌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여러분은 각자 자신의 속도에 맞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 12세이고 매달 가치관 경험 하나와, 매년 가치관 활동 두 가지를 할 경우, 월계반 연령이 되었을 즈음에는 모두 끝마칠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다른 청년들에게 지도를 해 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였음을 상징하는 영광의 꿀벌 펜던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호 향상 모임에서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할 수 있나요?** 상호 향상 모임에서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일부 할 수 있습니다. 상호 향상 모임 활동으로 가치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반에서 가치관에 관해 배우고 경전을 공부할 때에도 개인 발전 기록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지도력을 키우는 기회를 어떻게 얻게 되나요?** 10시간짜리 가치관 활동을 행하기 위해 준비할 때 여러분은 다른 청년들에게 도움을 달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미래에 아내와 어머니와 주부 역할을 해낼 때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어떻게 계획을 세워 준비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힘든 일을 완수할 수 있는지를 배웁니다.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어머니와 함께 해야 하나요?** 네. 어머니에게 함께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하자고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과 어머니는 서로 격려하고, 잘하는 점을 인정해 주고, 서로 가치관 활동을 승인하며 상대방 기록부에 서명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참여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개인 발전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청년 언니나 다른 의로운 여성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지도자들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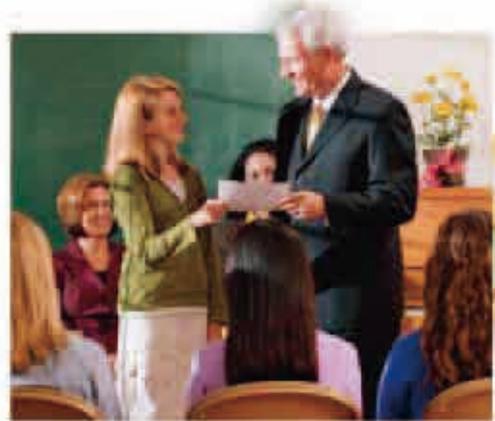
**왜 일지를 기록해야 하나요?** 일지는 여러분이 청년 조직에 속해서 보내는 나날과 여러분이 결심한 사항을 알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일지를 쓰면 성신이 함께할 것입니다.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받는 축복은 청년 시절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구주와 회복된 복음에 대한 신앙과 간증이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상에서 수행해야 할 신성한 사명과 역할을 해내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봉사에서 느끼는 감미로움과 의로운 성취에서 오는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가르쳐 줄 성신의 속삭임을 느낄 것입니다. 현세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러분 삶에 축복이 될 삶의 양식을 개발할 것입니다. 계속 발전하고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키는 생활 양식 말입니다. 진보를 위한 삶의 양식에 첫 발을 내딛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소중한 딸입니다. ■



### 경전 리본

각 가치관 경험과 활동을 완수하면 가치관에 관해 좋아하는 성구를 표시하도록 리본을 받게 됩니다. 이 리본의 색은 이를테면 신앙은 흰색, 정결은 금색 등 각 가치관이 나타내는 색과 동일합니다. 청년 지도자는 청년 모임에서 이 리본을 줄 것입니다.



### 진급 증서

한 연령 그룹에서 다른 연령 그룹으로 진급할 때 여러분은 감독이나 지부 회장에게서 표창 및 달성 증서를 받게 됩니다. 이 증서를 특별한 장소에 보관하면서 꿀벌반, 장미반, 월계반에서 배우고 성취한 것들을 되새기십시오.

개인 발전 프로그램에 관해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다면 개인 발전 기록부에 나오는 소개를 읽거나 [www.PersonalProgress.Lds.org](http://www.PersonalProgress.Lds.org)를 방문하십시오.

데이비드 멜 벅  
본부 청담 회장



#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아론 신권

## 하나님에 대한 의무 메시지

**4**년 전에 저는 제 친형인 게리 형님의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연사 중 한 분이 형님에게 큰 찬사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때 이후로 그 찬사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게리 형제님은 신권 소유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 그는 신권을 잘 알고 있었고 존중했으며 신권과 그 원리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게리 형님은 돌아가실 때 멜기세덱 신권 대제사였고, 50년 동안 기쁘게 신권 봉사를 행하셨습니다. 사랑이 많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형님은 전임 선교사로 명예롭게 봉사하셨고, 성전 결혼을 하셨으며,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하셨고, 가정 복음 교사로 부지런히 봉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론 신권 소유자입니다. 여러분의 신권 봉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신권 경험을 한 날이 아직 50일도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게리 형님이 받은 것과 동일한 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그런 찬사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훌륭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으며, 여러분이 신권 소유자다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합니다.

### 아론 신권이 지닌 위대함

여러분이 소유한 아론 신권이 얼마나 위대한지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 주님께서 아론 신권을 회복하시기 위해 부활한 침례 요한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이 신권을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부여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동역자 된 종들”(교리와 성약 13:1)이라 불렀습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은 요한이 “요한 자신을 조셉이나 올리버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지 않았음”을 지적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나의 동역자 된 종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요한 자신과 동일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런 후 힝클리 회장은





신권 봉사를 통해 영적 힘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울 때 여러분은 참으로 신권 소유자다운 사람이 됩니다.

열두 살 난 집사도 요한의 동역자 된 종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sup>1</sup>

- 아론 신권은 천사의 성역을 할 수 있는 열쇠가 있습니다.(교리와 성약 13:1 참조) 의롭게 생활하고 부지런히 봉사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강화시킬 천사의 성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찬 집행을 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 축복을 받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sup>2</sup>
- 아론 신권은 “회개의 복음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의 열쇠들을 지니고”(교리와 성약 13:1) 있습니다. 회개와 침례가 결합하여 사람들이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문을 만듭니다.(니파이후서 31:17~18 참조) 여러분은 신권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하면서 사람들이 이 문을 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 아론 신권에는 성찬을 집행할 권세도 있습니다. 성찬을 준비하고,

축복하고, 전달할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합니다.(니파이후서 18:1~12 참조) 여러분은 가족과 친구들이 그분을 기억하고, 성약을 새롭게 하며, 성령을 동반하기에 합당하도록 돕습니다.

그러한 역할은 신권 소유자다운 사람의 몫입니다. 신권 소유자다운 사람은 영적으로 강하고 자신의 신권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 새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의무 책

여러분이 신권 소유자다운 사람이 되도록 살아 있는 선지자들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하나 마련했습니다. 새로 나온 자료이긴 하지만 이름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입니다.

저는 새로 나온 하나님에 대한 의무 책에 대해 기대가 큼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무를 배우고 [여러분이] 임명된 그 직분을 부지런히 행하기를 배우라”(교리와 성약 107:99)라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집사, 교사, 제사로서 이 책을 사용하면서 여러분은 영적 힘과 신권 의무라는 두 가지 부류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 신권 소유자 모형

하나님에 대한 의무 책에 나오는 각 활동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신권 소유자가 되는 데 도움이 될 모형을 따릅니다. 먼저, 복음 원리나 신권 의무 하나를 배웁니다. 그런 후 배운 대로 실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고 경험한 것에 관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나눕니다. 이 활동들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활동은 여러분의 신권 정원회에 맞게 일요일 공과 또는 주중 활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책 39쪽을 보면 이 모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책으로 이미 훌륭한 경험을 해 본 청남들이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 신권 소유자다운 사람

“신권 소유자다운 사람”이란 말을 생각할 때면 어김없이 게리 형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도 떠오르는데, 그분은 집사 시절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성찬을 취하도록 도우면서 자신이 거룩한 땅에 서 있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sup>3</sup> 위대한 아론 신권 소유자인 침례 요한도 떠오릅니다. 그는 성스러운 침례 의식을 가르치고, 간증하고, 집행하여 구주의 지상 성역을 위한 길을 예비했습니다. 여러분도 떠오릅니다. 신권 봉사를 통해 영적인 힘을 키우고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울 때 여러분은 참으로 신권 소유자다운 사람입니다. ■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하나님에 대한 의무 책자에 나오는 소개를 읽거나

[www.DutytoGod.lds.org](http://www.DutytoGod.lds.org)를

방문하십시오.

주

1. 고든 비 형클러, “The Aaronic Priesthood—a Gift from God,” *Ensign*, 1988년 5월호, 45쪽 참조.
2. 델린 에이치 옥스, “아론 신권과 성찬,” *리아호나*, 1999년 1월호, 44~45쪽 참조.
3. 토마스 에스 몬슨, “여러분의 의무를 행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리아호나*, 2005년 11월호, 56쪽 참조.

**1. 배운다.** 이 활동 부분은 여러분이 복음 원리나 신권 의무 한 가지를 배우도록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배운 것에 의거하여 계획을 세우도록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신권 의무를 행하기 전에 그 의무에 대해 “영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미국에 사는 아론 신권 소유자

“제 자신에게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과테말라에 사는 아론 신권 소유자

“경전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부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 사는 아론 신권 소유자

**2. 실행한다.** 이 활동 부분에서 여러분은 계획한 대로 이행하고 여러분의 경험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적습니다.

“우리 지부 청년들은 함께 모여서 조깅하는 목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런 계획을 세우고 신체 단련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게 되었다는 점이 정말로 좋았습니다.”

과테말라에 사는 아론 신권 소유자

“이 책은 …… 자기 반성을 할 수 있는 일기나 일지 같아요. 경험해 볼 만한 훌륭한 과정입니다.”

미국에 사는 아론 신권 소유자

“저는 경전을 공부할 시간을 잘 계획하지 못합니다. …… 경전을 읽고 기도하는 목표는 시간을 내고 계속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게 큰 효과가 있었고, 그렇게 했을 때 영을 느꼈습니다.”

필리핀에 사는 아론 신권 소유자

**3. 나눈다.** 계획을 이행하고 나면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가족이나 정원회 회원, 그밖에 다른 사람들과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나눌 때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거든요.”

미국에 사는 아론 신권 소유자

“부모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필리핀에 사는 아론 신권 소유자

“저희는 정원회 모임에서 각자 자신의 목표를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과테말라에 사는 아론 신권 소유자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교리와 성약 58:42)

**합당한 생활**

**배우기**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회개” 부분을 읽은 후,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을 노트나 일지에 적는다.

1. 속죄와 회개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가?
2. 회개는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3. 회개와 속죄, 개인적인 합당성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이 생각한 답을 부모님이나 정원회 회원들과 이야기해 본다.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가고 성스러운 의식에 참여하도록 준비하는 데 회개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토론한다.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합당한 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세 가지 이상 선택한다. 이 책에 나오는 표준을 공부한 다음, 여러분 스스로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돕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기록한다.

**실행하기**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공부할 주제:

---



---



---



---

이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 일:

---



---



---



---

**나누기**

■ 표준을 공부하고 적용한 후, 무엇을 배웠고, 자신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부모님이나 정원회 회원들과 나눈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복장과 외모”, “오락과 대중 매체”, 또는 “언어” 부분을 공부하고 생활에 적용해 보는 것을 고려한다.

Filling My  
to God  
Priesthood Holders

## 증조할머니를 두고 떠날 수 있을까?

**스**물한 살이 되자 선교 사업을  
나가고 싶었다. 증조할머니이셨던  
마가리타 십포 데 랄라나는 그렇게 하면  
당신 홀로 남게 된다는 점을 아시면서도  
내 결정을 지지해 주셨다. 할머니는 어릴  
적부터 나를 길러 주셨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동안 누가 그분을 돌봐드릴지  
걱정이 되었다.

우리는 1978년에 침례를 받았다.  
당시에 나는 열한 살이었고 할머니는  
일흔셋이셨다. 그러나 얼마 뒤부터  
우리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염려가 된  
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찾아 오셨다.

나는 다시 활동화 되었고, 와드  
회원들은 내가 성임받기를 고대했다.  
“이제 우리에게도 집사가 생길 거예요!”  
기대에 찬 회원들이 말했다. 당시 우리  
와드에는 아론 신권 소유자가 없었다. 또  
다른 집사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집사  
정원회 회장이 되었다. 내게 왜 그런  
부름이 주어지는지 의아했지만 와드

지도자들이 내게 신권 책임을 훈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할머니께서는 모임에 이따금씩  
참석하실 뿐 저활동으로 남아 계셨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선교 사업을 하겠다는  
내 결정을 지지해 주셨다.

선교사 지원서를 낸 1990년 당시,  
코르도바 출신 전임 선교사들은 대부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북 선교부  
또는 남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나는  
할머니에게서 멀지 않은 그 두 선교부 중  
한 곳으로 부름 받으리라 확신했다.

그런데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뜻밖에도  
내가 콜롬비아로  
가게 되었으니  
여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계속 걱정이  
되었지만 할머니께서는 선교 사업을  
떠나라고 북돋아 주셨다. 떠나기 직전에  
할머니께서는 그 다음 일요일부터 교회에  
다시 나갈 것이며, 내가 귀환하기 전에  
성전에 가지겠다고 약속하셨다. 믿기  
힘든 말이었지만 그 덕분에 발걸음을 땔  
수 있었다.

내가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할머니께서는 약속을 지키셨다.  
80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관련된  
모임에 다 참석하실 뿐만 아니라  
정시에 가셨다. 아울러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하신 후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으로 가셨다.

첫 성전 방문을 마치고 12시간 동안  
심야 버스를 타고 돌아오신 할머니는  
교회 모임이 시작되기 조금 전인  
일요일 아침 8시 30분에 와드 집회소에  
도착하셨다. 스테이크 회장님인  
루벤 스피탈레 회장님은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쉬실 수 있게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아니에요, 교회에 갈  
거예요.” 하고 대답하시며 모임에  
참석하셨다.

귀환 후에 나는 할머니께서  
2000년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할머니와 함께  
성전에 갔다. 선교 사업 덕분에  
우리 둘은 축복을 받았다. 내가  
집에 남았다더라면 그 어떤 축복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  
우고 파비안 랄라나,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선**교 사업을  
떠나기 직전에  
저활동이셨던  
증조할머니께서 그  
다음 일요일부터  
교회에 다시  
나갈 것이며,  
내가 귀환하기  
전에 성전에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 우리는 영의 음성을 따라다

**어**느 날 아침, 동반자와 나는 우리 관할 지역에 있는 필리핀 남부 작은 마을에서 가가호호를 하기로 했다. 집집마다 다니며 분주히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서 무얼 하느냐고 물었다. 그가 술에 취했다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은 우리 메시지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의 목적이 나와 있는 소책자를 건넸다. 우리는 그에게 그 소책자를 읽는다면,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면 집으로 방문해서 인생의 목적을 설명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를 기다리겠노라고 말했다. 우리는 토론 약속이 있어서 급히 그곳을 떠났다.

실제로 우리는 그날 밤 그 사람에게 가서 가르치고 싶은 의도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 후 매일 우리가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그곳에 들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렇지만 나는 곧바로 그 느낌을 무시하며 아마 그 사람은 술에 취해 우리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라고 합리화했다.

며칠 후, 그 속삭임은 아주 강해져서 더 이상 거부할 수가 없었다. 그의 집 문을 두드리자 우리를 맞이한 여성은 깜짝 놀라며 왜 약속대로 진작에 오지 않았냐고 물었다. 그녀는 남편이 그날 밤 우리를 기다렸고 결혼 후 처음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당황해 하며 사과하고 또 사과했다. 우리는 그날 밤에 다시 와서

그 부부를 가르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구마바이(가명) 형제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 마을에서 큰 기동과 같은 형제가 되었다.

그가 침례를 받고 며칠이 지난 후 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고 그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들이 계속 교회에서 활동 회원으로 남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나중에 나는 구마바이 가족이 살던 그 작은 마을에 지부가 생겼고 그 후 와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구마바이 형제는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다. 또한 그의 친척 대부분이 교회에 가입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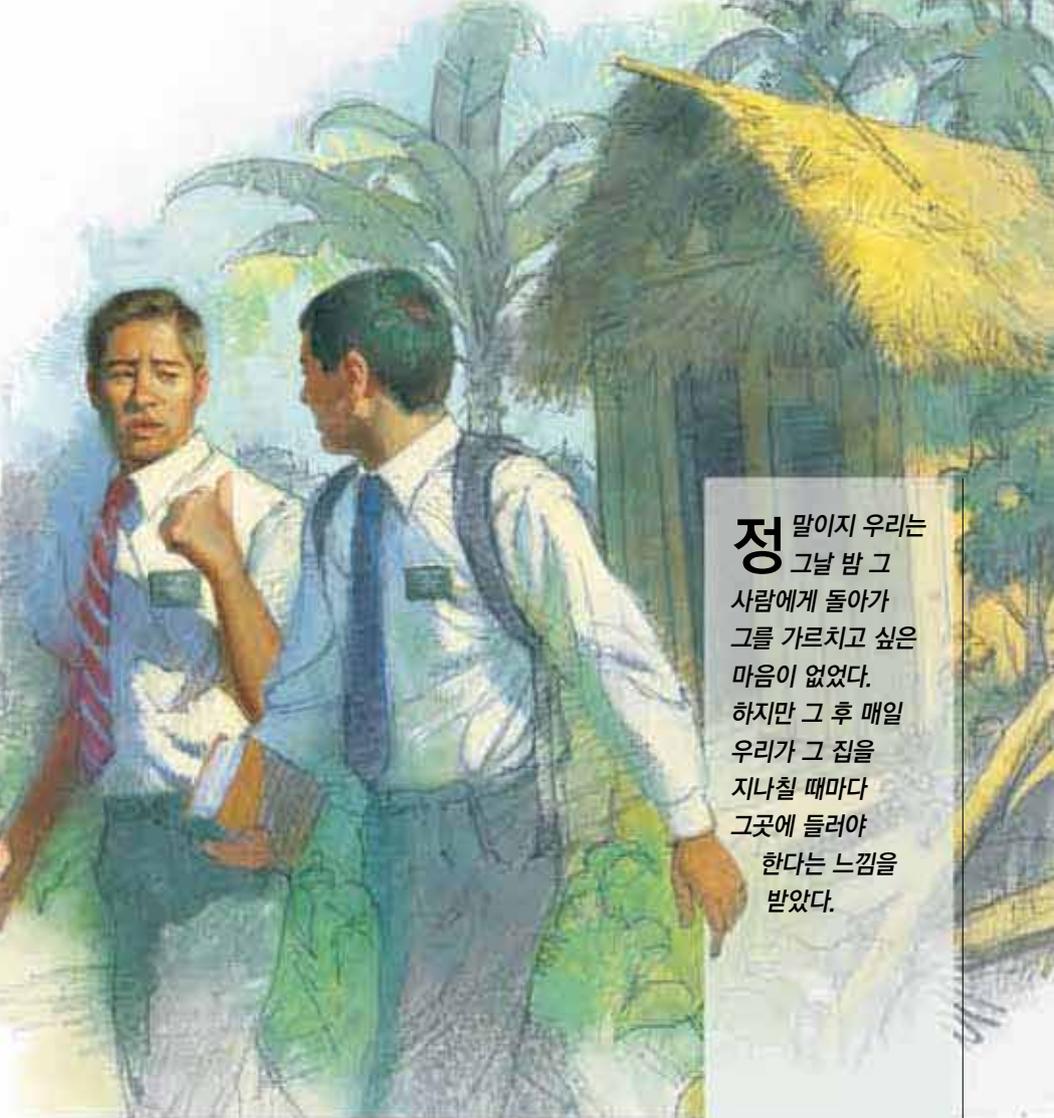
마침내 예전에 선교 사업을 하던

지역을 다시 방문했을 때 나는 그곳에 사는 많은 주민이 구마바이 감독의 훌륭한 모범을 보고 교회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께서 자신의 가족과 일상생활을 주관하시게 했다.

우리가 구마바이의 집을 방문하라는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서 정말 기쁘다. 그 경험을 하고서야 나는 구주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마태복음 9:12) ■

마이클 앤젤로 엠 라미레스, 뉴질랜드

**정**말이지 우리는 그날 밤 그 사람에게 돌아가 그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하지만 그 후 매일 우리가 그 집을 지나칠 때마다 그곳에 들러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 가정 복음 교사들에게 전화하라

**우** 리 네 아이들이 아직 어렸던 수년 전, 남편이 다른 주에서 직장을 얻었지만 나는 큰 아이와 둘째 아이가 학년을 마칠 때까지 살던 곳에 남아 있어야 했다. 우리 가정에 새 가정 복음 교사가 배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그분들은 남편이 직장을 옮기기 전에 우리 집을 두 번밖에 방문하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을 모두 잠자리에 눕혔을 때 어린 딸아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아기를 안아 올리자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 병원에 데려갈 생각을 하며 얼른 우리 가족이 든 새 보험증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보험이 남편이 일하는 아이다호 주 거주자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을 제외한 우리는 아직 워싱턴 주 주민이었다.

딸의 체온을 재보니 41도나 되었다. 그때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즉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다. 전혀 생각해 보지 않은 방법으로 응답이 왔다. 그것은 “가정 복음 교사에게 전화하라.”였다.

늦은 시간이라 가정 복음 교사인 할버슨 형제님과 버드 형제님은 분명 잠자리에 드셨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수화기를 들고 버드 형제님께 전화를 걸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재빨리 설명했다. 5분도 안 된 밤 11시에, 나의 가정 복음 교사들은 양복 차림에 넥타이를 매고 현관에 와 계셨다.

가정 복음 교사들이 오셨을 때 아기 볼과 눈은 빨갛고 머리카락은 땀으로

엉겨 붙어 있었다. 딸은 고통스럽게 울먹였지만 버드 형제님과 할버슨 형제님은 침착하게 딸을 안았다. 그리고 나서 아기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주시며, 구주의 이름으로 나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축복이 끝나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딸은 웃음을 보이면서 놀고 싶으니 내려달라는 듯 꿈틀거리고 있었다. 열은 완전히 내렸다!

“우리가 축복을 주는 도중에 열이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딸 아이를 놀란 눈으로 보고

있을 때 버드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다. 형제님들은 곧 떠나셨고 나는 깨서 놀고 싶어하는 아기와 함께 몇 시간 더 깨어 있었다. 굳이 재우고 싶지가 않았다.

가정 복음 교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두 천사가 딸을 축복해 주던 그날 밤 이후로 몇 년이 흘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아이다호 주로 이사하며 그분들과 연락이 끊겼지만 주님의 심부름을 하러 밤 열한 시에 우리 집애와 주신 두 분의 가정 복음 교사님들께 늘 감사할 것이다. ■

다이애나 로스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딸**의 체온을 재보니 41도나 되었다. 그때서야 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즉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다.



## 감독님이 실수하신 걸까?

**와** 드가 분리된 직후에 감독님께서 나를 보자고 하셨다. 나는 새로운 와드에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라 확신했다. 나는 청녀 조직에서 일해 왔고 청녀들을 무척 좋아했다. 청녀들은 복음을 아주 잘 받아들였고, 그래서 가르치는 기쁨도 컸다. 분명 주님께서는 내게 그 청녀들을 계속 가르치라고 하실 것 같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감독님은 주님께서 내가 초등학교를 가르치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다. 감독님이 실수하신 게 분명했다. 그러나 감독님은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내가 그 부름을 받아야 한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다. 물론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그들을 가르친단 말인가?

결혼생활 15년 동안 남편과 내가 느끼는 유일한 슬픔이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축복해 주지 않으셨다는 점이다. 입양을 하려고도 애를 써봤지만 의료 문제 때문에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

감독님을 믿으며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지만, 마음속에는 갈등이 일었다. 자녀를 주시지 않는 주님께 화가 났고 새로운 부름에 분개했다.

“주님, 왜 저에게 이런 요구를 하시나요? 당신의 뜻으로 저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왜 다른 사람들의 자녀를 가르치라고 요구하시는 건가요?” 하며 나는 의아해했다.

나는 그 문제로 기도를 드렸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눈물로 호소하면서



**감** 독님은  
주님께서 내가  
초등학교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물론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지만 어떻게  
그들을 가르친단  
말인가?

주님과 씨름했다. 마침내 나는 내가 그 부름을 이미 받아들였으므로 자기 연민을 버리고 최선을 다해 부름을 수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축복이 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나는 이내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나를 사랑했다. 아이들의 사랑은 내 삶의 공허함을 채워 만큼 컸다. 이윽고 나는 교회 복도를 내려갈 때면 적어도 아이 두 명을 양쪽 손에 붙잡고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내가 지나갈 때면 포옹해 달려며 가던 길을 멈췄다. 남편도 또한 스카우트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집은 아이들과 침대들로 북적거렸다.

남편은 1986년 11월에 47세로 생을 마감했다. 다시 한 번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나보다 더 잘 아셨다. 남편이 사망하고 몇 주 지나지 않아 나는 캘리포니아 주 프레즈노에 있는 라오티안

지부에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곳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보여 준 용기는 나에게 남편 없이도 계속 삶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어른으로 성장하여 선교 사업을 하고, 성전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특별한 기쁨을 느꼈다. 이 수많은 “입양” 아이들은 지금도 잠시 인사를 하러 들려서 나의 하루를 기쁨으로 채워 준다. 또한 내가 현재 봉사하는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성전에서 그들을 볼 때면 마음이 행복하다.

초등학교 봉사는 참으로 평생에 걸친 축복이 되었다. 우리의 부름을 인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하신다는 사실에 큰 감사를 느낀다. ■

지니 엘 소렌슨, 미국 캘리포니아 주

# 고대인들이 보인 모범,

# 현대에 받은 약속

이성과 만나는 일이  
쉬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나는 경전에  
나오는 충실함의  
모범에서 힘을 얻는다.

## 익명

**나**는 사교 활동을 즐기는 편이지만 이성교제는 어려움을 겪었다. 선교 사업 전에는 교제를 해 본 적이 없었고 2년 동안의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했을 때에는 특히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 후로 10년 동안, 나는 축복사의 축복에서 약속 받은 결혼을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니파이후서 25:23)이라 생각되는 일을 다했다. 그러나 아무런 결실도 얻지 못했다. 때로는 누구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지는 유혹을 느꼈고, 특히 암흑 같은 시기에는 울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나는 경전에 나오는 모범에서 큰 위안을 받았다. 다음 세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마련하신 계획을 신뢰하는 데 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희망을 간직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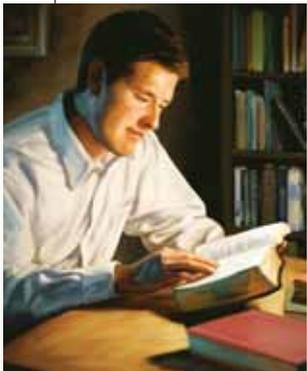
요셉은 열일곱 살 때 집에서 쫓겨나 종교가 같은 사람이 얼마 없는 이방 나라로 끌려 갔다. 이토록 가혹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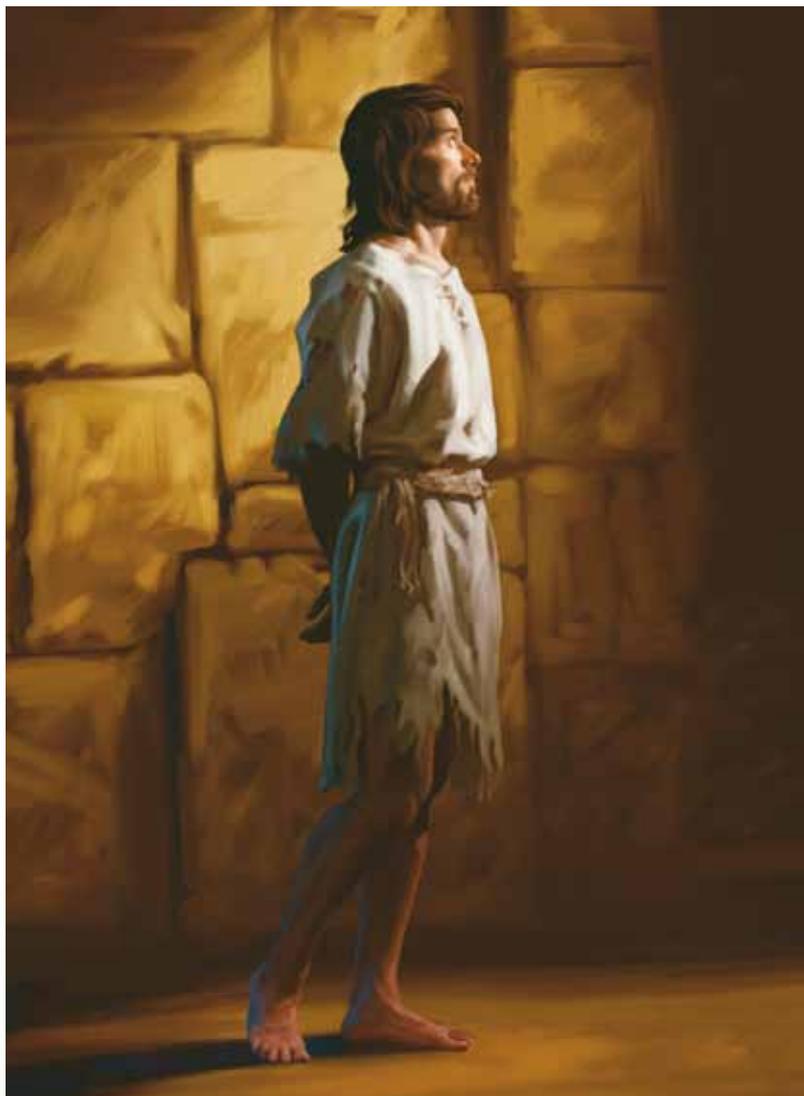
훌륭한 태도를 견지했으며, 주인과 하나님께 충실했다.(창세기 37장; 39~41장 참조) 그러나 13년 동안 요셉의 삶은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었다. 요셉은 열심히 일했지만 인정은커녕 서른 살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

때때로 나는 그런 생각을 한다.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혹은 감옥에 얼마나 오래 있어야 할지, 풀려날 수는 있을지 의심하지 않았을까? 요셉은 예전에 꾸었던 꿈을 떠올리며(창세기 37:5~11 참조) 밝은 미래가 올 것이란 희망을 얻을 수 있었을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을 기억하셨듯이 요셉을 기억하셨다.(창세기 30:22 참조) 요셉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을 받았다. 반항하거나 투덜거리거나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신 놀라운 신앙을 행사했다. 그 결과, 요셉은 큰 축복을 받았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인식하지 못하고 당장 겪는 환난에 대해 한탄하고 싶은 유혹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신앙과 희망을 간직하면 요셉처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신앙을 간직한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셉이 한 경험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지혜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다. 여러 해 동안 요셉이 기울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듯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감옥에서 풀려났고 바로 다음으로 으뜸가는 총리가 되었다.(창세기 41:41~43 참조) 요셉이 그런 큰 기회를 예견하거나 기대할 수 있었겠는가?

때때로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역부족일 때가 있다. 나는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고 순종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처음 바라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 훌륭한 태도를 견지하고 요셉처럼 가장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다면 주님께서는 언젠가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분]의 거룩한 팔을

*신앙과 희망을 간직하면 요셉처럼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신앙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신앙을 간직한다면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타내실 것이다.]”(이사야 52:10) 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고 실제로 늘 염두에 두고 계시며,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 위해 좋은 것들을 마련해 두셨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충실하게 남을 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아브라함: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얼마 전, 내가 꽤 마음에 두고 있던 사람과 헤어졌다. 이미 결혼에 대해 초조해 하는 상태에서 마음이 맞는 다른 상대를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삭을 바치라는 명을 받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생각났다.(창세기 22:1~14 참조) 우리 두 사람 모두 사랑하는 누군가를 포기하라는 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론 내 경험은 아브라함에 비해서는 하찮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경험에는 내 상황에 적용할 만한 점이 있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기를 오랫동안 고대했다. 이삭이 태어난 것은 기적이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히브리서 11:18)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다. 이삭을 바치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할 자”가 이삭으로 말미암을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어떻게 지키실지는 모르는 채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에서 우리는 그가 아들을 끄찍이 사랑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보일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교리와



성약 101:4~5 참조), 충실하게 견딘다면 큰 보상이 오리라는 약속도 받았다.(마태복음 24:13 참조) 교제하던 사람과 헤어졌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힘들었다. 결혼하게 되리라는 약속은 받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일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일과는 무관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약속에서 희망을 얻었으며, 다시 시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그분을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을 보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아브라함은 충실함으로 아들 목숨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무수한 자손과 다른 축복들로 보상받았다.(창세기 22:15~18 참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희생을 하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보임으로써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신앙을 시험하는 시련의 정수이다.

**사가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진실함을 믿으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사실을 알고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보인  
반응에서 우리는  
그가 아들을  
꿈쩍이 사랑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과연 이루어질지 의문을 품는다. 영원한 결혼을 바라고 충실하게 생활한다면 그 결혼으로 축복받게 되리라는 약속 같은 것 말이다. 제일회장단의 제2보좌이신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에 관해 이렇게 가르치셨다.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 소망에 반할지라도 소망을 위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sup>1</sup>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은 평생 자녀를 갖기 위해 충실히 기도하고 기다렸다. 마침내 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 노쇠한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여 낳을 것이며, 그 아이는 구주의 길을 예비하리라고 약속했다. 그것은 사가랴가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큰 축복이었다. 천사가 선언한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이렇게 물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누가복음 1:18)

사가랴처럼 우리는 소망하는 일에 대해 자주 실망감을 느끼거나 약속 받은 축복을 믿기 힘들어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마태복음 19: 26)라는 점을 잊기도 한다. 사가랴가 한 경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가장 큰 축복이 실재하며 그분께서 그 약속을 늘 지키신다는 점을 일깨워 주었다.

내 신앙을 굳건하게 해 주고 희망을 안겨 주는 이야기는 요셉과 아브라함, 사가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경전에는 신앙을 행사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들은 주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일에 대해 신앙을 갖도록 나를 일깨워 준다. 이제는 경전 어느 곳을 읽든, 주님께서 늘 약속을 지키신다는 점을 되새기게 된다. 이러한 이해 덕분에 나는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얻었다.

■

주

1.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무한한 소망의 힘”,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23쪽.

# 믿음에서 앎으로

치아오-이 린

**나**는 열아홉 살 때 기차역에서 후기 성도 선교사들을 처음으로 만났다. 이 젊은 여성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나는 그들에게 말을 걸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 타이완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들은 자신을 선교사라고 소개하며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몇 차례 그들과 만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과 몰몬경에 관해 배웠다. 이 중에서 마지막 주제였던 몰몬경 때문에 나는 교회에 가입했다.

몰몬경에 대해 기도한 일이 지금도 생각한다. 어느 날 밤, 몰몬경을 읽고 그 책을 덮은 다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책이 참된지를 여쭙었다. 나는 담요에 감싸인 듯한 따뜻함을 느꼈다. 이제껏 절에 다니면서는 한번도 느껴보지 못한, 매우 특별한 느낌이었다. 나는 누군가가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순간 교회가 참되다는 믿음은 교회가 참되다는 지식으로 바뀌었고, 나는 침례를 받기로



몰몬경이  
참되다고  
믿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결심했다.

그때 이후로 몰몬경은 줄곧 내 인생에 축복이 되었다. 선교사로 봉사할 때도 그 책은 내게 축복이 되었다.

다른 부름에서도 몰몬경은 축복이었다. 종교 교육원 교사로 봉사하면서

나는 몰몬경이 우리 시대를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sup>1</sup> 그러나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 말이 일반적으로 사실일 뿐 아니라 특정 시대에 특정한 상황에 처한 특정한 사람들에게도 사실임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때때로 가르칠 준비를 할 때 한 학생의 얼굴이 마음속에 떠올라 그 학생을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그러한 속삭임을 자주 받았고, 수업이 끝난 후에 한 학생이 와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수업이었다고 말해줄 때 그 느낌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내게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몰몬경이 내 인생의 지침서가 되었다는 것이다. 테이트하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나려 할 무렵 경전을 펼쳤던 일이 기억난다. 나는

몹시 괴로웠다. 그러나 내가 읽은 니파이후서 10장 20절은 내게 직접 말하는 듯했고 내 마음은 평온해졌다. “이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그토록 큰 지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를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의 고개를 늘어뜨리지 말자. 이는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기업의 땅에서 쫓겨났으나,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땅으로 인도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바다로 우리의 길을 삼으셨고, 우리가 바다의 한 섬 위에 있음이라.”

그 구절에 나와 있듯이 주님을 기억했을 때 나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음의 “큰 지식”에 의지할 수 있었고 내가 “버림받지” 않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내 앞에는 좋은 일들이 있었다.

내가 교회를 알아보던 시절에 선교사들의 말을 믿은 것은 큰 축복이었다. 복음이, 특히 몰몬경이 참됨을 스스로 알게 된 것은 훨씬 더 큰 축복이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경전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르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

주  
1. Ezra Taft Benson, “Book of Mormon Is the Word of God,” *Tambuli*, 1988년 5월호, 2쪽 참조.

# 해답을 찾아서

## 가족 기도를 했는데 따로 개인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고민을 여러 사람과 나누는 게 마음이 편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에게 은밀히 털어놓는 게 더 좋을까요? 스펜서 더블류 김볼(1895~1985)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개인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개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시간이나 기밀 유지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너는 기도하라. 마음으로 할 뿐 아니라 소리를 내어서도 하라. 그러하도다. 은밀하게 할 뿐 아니라 세상 앞에서도 해라.”(교리와 성약 19:28)

됩니다. 혼자서 하는 기도는 매우 귀중하고 유익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면 부끄러움이나 허식, 우물쭈물하거나 속이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소망과 생각을 솔직하고 올바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족 기도에서 편안하게 기도할 수 없는 내용은 개인 기도에서 잘 표현할 수 있고, 또한 종종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개인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솔직해질 수 있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과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할 것이란 계시를 받은 것도 홀로

## 저희 가족은 등급이 높은 영화를 봅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그런 영화를 보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가**족과 함께하는 동안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 혹은 그보다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가치관을 굽히려 하지 않는다는 점은 높이 살 만한 일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가족에게 축복이 돌아갈 것이며, 여러분은 가족에게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가족이므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훌륭한 영화나 게임, 도보 여행 같은 활동을 가족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겸손하고 진심 어린 방법으로 여러분이 지키는 표준을 알리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특정 부류의 영화를 보지

기도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일대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 마련된 영의 속삭임에도 더욱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기도 또한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족 기도를 할 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김볼 회장님께서 가르치셨듯이 “교회는 각 가족이 매일 아침저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촉구합니다.”<sup>2</sup> ■

주  
1. Spencer W. Kimball, "Pray Always," *Tambuli*, 1982년 3월호, 2쪽.  
2. Spencer W. Kimball, "Prayer," *New Era*, 1978년 3월호, 15쪽.

않기로 선택한 이유를 정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가족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힘을 간구하고 이해의 영이 함께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가족들이 여러분이 지키는 표준을 존중하고, 여러분이 해로운 매체를 멀리하면서 마음속에 영이 거하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



## 우리 형은 교회가 참된지 결정하는 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형**을 지지해 주세요. 형은 가족에게서 압력이 아닌 사랑을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형이 어떤 점을 걱정하고 의문스러워하는지 물어 보세요. 대답하기 전에 형이 모든 걱정거리를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형은 신앙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사회적 혹은 개인적인 부분을 염려할지도 모릅니다. 형이 원하는 대답을 모두 주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습니다.

형의 고민을 놓고 같이 기도하자고 제안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해 보도록 권고하세요. 응답을 받는 데 남들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다는 점을 유념하세요. 특히 스스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앨마서 32장, 제3니파이 17장, 또는 모로나이서 10장에서 기도하고 간증을 얻는 것에 관한 부분을 함께 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이나 감독 또는 지부 회장, 비슷한 고민을 해결한 다른 충실한 교회 회원과 상의해 보도록 제안할 수 있습니다.



영을 느낄 때 간증을 나누십시오.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들려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세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영입니다. 간증을 얻거나 이미 간증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성신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형에게 하루 종일 사실들을 말해 줄 수는 있겠지만, 간증은 영과 의미 있는 교감을 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지지하고, 경청해 주세요. 하지만 선택은 형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형은 영의 인도에 따라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경전을 읽어 주고, 성신이 증거하는 것을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간증을 얻도록 도와주세요.

제목란에 "To the Point"라고 쓴 후 질문을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 천사가 함께하여

선교사로 성별될 때, 우리 스테이크 회장님께서는 내게 이따금 천사가 함께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 천사들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 새뮤얼 고울드

2003년에 나는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한 선교부로 부름을 받았다. 그 나라에 대해 알아보니 내전이 계속되긴 했지만 사실상 휴전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놓였다. 선교사로 성별될 때는 더 큰 안심이었다. 스테이크 회장님께서 내게 이따금 천사가 함께함을 느끼게 될 것이며, 그 천사들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다. 또한 내가 순종한다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리라는 약속도 받았다.

임지에 나간 지 몇 달 후, 선교부 회장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권고하셨다. 우리는 수도인 아비장에 있는 아파트 숙소에서 3일분 음식과 물을 보관했으며, 모임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훈련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11월 4일, 반군들이 휴전 협정을 어겼을 때 우리는 긴장했다. 우리 선교부 지도자들은 귀가 시간을 저녁 6시로 정했다. 다음 날 마지막 토론을 가르치고 있을 때 갑작스런 폭발음이 들렸다. 즉시 우리는 기도로 토론을 마치고 그 가족에게 물문경을 한 장 읽도록 숙제로 남긴 후,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고 얼마 안 있어 우리 아파트에 사는 다른 선교사들도 도착했다. 선교부 회장님 보조들은 전화를 걸어 어떤 상황에서도 아파트를 떠나지 말라고 했다. 교회에 가셔도 안 되고 음식도 사러 갈 수 없었다. 공습에서 프랑스 평화 유지군들이 살해되자 프랑스가 군용 비행장을 공격하여 소규모인 코트디부아르 공군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에 따른 반발로 수도 전체에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다.

수만 명에 달하는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고, 마체테(날이 넓고 무거운 칼-옴긴이)를 휘두르며 프랑스 상점을 약탈하고, 프랑스인이 사는 것으로 의심되는 집들에 침입했다. 폭력이 벌어지는 모습이 우리 숙소 창문에서도 보였다. 우리는 백인이었으므로 우리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11월 7일 일요일 오후, 비명과 총소리, 폭발음 가운데에서 우리 네 사람은 숙소에서 성찬식 모임을 열었다. 비축해 둔 3일치 비상 식량에서 빵과 물을 꺼내 축복하고 돌린 후 우리 각자는 경전 구절과 간증을 나누었다. 나는 교리와 성약 84편 88절을 읽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나도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쪽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 이 구절을 읽는 동안 나는 스테이크 회장님이 주신 축복을 떠올렸고 내가 안전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아파트에 갇혀 있었다. 워드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우리를 방문하여 음식을 가져다 주셨다. 한 회원은 우리가 안전하다는 소식과 함께 우리의 말을 이메일로 우리의 가족들에게 전해 주셨다. 회원들은 실로 엄청난 도움을 주었다! 그러는 동안 우리 가족들과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은 우리가 안전하도록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 가족은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관찮을 것이라는 고요한 확신을 얻었다.

11월 12일 금요일, 우리는 철수를 시작했다. 코트디부아르 교회 회원들이 우리가 아비장 거리를 통과하도록 인도했고, 다른 피난민들이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는 무사히 영국 대사 사택에 처진 바리케이드까지 도착했다. 그 후 영국군이 우리를 그 나라에서 대피시켰고, 뉴스를 통해 나와



두 명의 장로들이 구조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가족은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다. 어두운 밤에 회원들은 아프리카 출신이 아닌 다른 선교사들을 선교부 사택으로 데려다 주었다. 거기서 이탈리아 공군이 선교사들을 가나로 수송했고, 우리는 거기서 다시 만났다.

그 나라 곳곳에서 외국인에 대한 공격이 수십 차례나 있었지만 그 폭동이 있는 동안 선교사들은 한 명도 다치지 않았고 선교사 숙소도 침입당하지 않았다. 우리가 선교부 회장의 권고를 따랐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숙소에서 안전할 수 있었고, 생존에 필요한 양식도 있었다. 또한 군인들의 보호보다 더 큰 안도감을 준 것은 주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다.

그 일요일 오후, 우리가 성찬식 모임을 마친 후에 한 무리의 시위대가 우리 아파트를 공격하려 했다는 사실을 구조될 때에야 알게 되었다. 이웃 중 한 명은 이렇게 외쳤다. “그 사람들은 프랑스인이 아니에요!” 하지만 시위대는 떠나려 하지 않았다. 마침내, 또 다른 이웃이 소리쳤다. “그들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러자 폭도들은 흩어졌다. 나는 다시 한 번 다음 말씀을 떠올렸다.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으리라.]” 그리고 나는 스테이크 회장이 축복해 주신 약속대로 살고 있었다. 나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

\*2004년 이후 코트디부아르는 상황이 개선되었다. 현재 외국인 선교사들이 다시 그 지역에서 봉사하고 있다.

# 2011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훈계를 따르다 할 수 있으니—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은 듣기 좋거나 혹은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  
(신약개조 제13조)



일레인 에스 돌튼(중앙), 청녀 회장; 메리 앤 쿡(왼쪽), 제1보좌; 앤 엠 딘(오른쪽), 제2보좌.



데이비드 엘 벡(중앙), 청남 회장; 래리 엠 김슨(왼쪽), 제1보좌; 에이드리언 오초아(오른쪽), 제2보좌.

## 우리는 믿습니다!

본부 청녀 회장단

**우**리는 영의 인도를 받은 정결한 청녀 한 명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본부 청녀 회장단으로서 우리는 청녀들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행하고, 증인이 되며, 복음 표준에 따라 생활하고,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청녀 한 명이 정결하고, 고요하고 작은 성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실천할 때 이룰 수 있는 일은 놀랍습니다.

신약개조 제13조를 쓰면서 조셉 스미스는 믿는 자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구해야 하는 것들, 아울러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모든 것을 열거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우리가 성신의 권능과 힘을 얻으려면 표준과 가치관을 믿고 그것들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말과 행동에서 구주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성전 축복에 합당하도록 준비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구주께서 보이신 모범을 따르고, 정결한 삶을 살며, 성전에 가도록 준비하도록 다른 이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용기와 힘 덕분에 지도자가 되었으며, 여러분이 결심한 일은 올해를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혁신과 행동이 지금 이 세상과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기술이 뛰어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것들로 세상을 차고

넘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할 힘이 여러분 손끝에 있습니다. 과거 그 어떤 세대에도 그러한 힘과 축복과 기회가 주어진 적은 없습니다.

### 세 가지 일에 더하여 매일 한 가지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지금이 단합할 때이며 힘을 얻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변화를 시작할 때입니다. 매일 다음 세 가지 일에 더하여 이 한 가지 일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1.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십시오.
2. 매일 5분 이상 몰몬경을 읽으십시오.
3. 웃으십시오!
4.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표준대로 생활하고 순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표준들을 익히십시오.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그리고 믿는 자로서 본이 되십시오.

올해에는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도우실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의 희망이십니다. 여러분의 모범이자 구속주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십시오! 표준대로 생활하는 모든 청녀의 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다 함께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믿음과 행동으로 세상을 바꿀 세대라는 점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

# 충실한 신권 형제가 됩시다

본부 청남 회장단

**초** 등회를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 중 상당수는 신앙개조 제13조를 외웠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도 암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는 회장단으로서 단순한 암기를 뛰어넘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우리는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고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정으로 배울 것을 권고합니다. 올해 상호 향상 모임 주제인 신앙개조 제13조에 언급된 각 성품을 주의 깊게 연구할 것을 권고합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표준대로 생활하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누리게 된 기쁨을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이와 같은 행동 유형은 여러분이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유형, 즉 배우고 실천하고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간단한 절차를 따른다면 여러분은 충실한 신권 형제가 될 것입니다.

신앙개조 제13조에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을] …… 믿는다." 어떠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상이며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대변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하다는 것은

여러분을 또래 소년 대부분과 구별해 줍니다. 여러분에게서 좋은 품성들을 발견할 때, 그들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갖고 싶어할 것입니다. 신권 의무를 배우고 실천하면서 여러분은 변화할 것입니다. "만민에게 …… 선행"을 베풀 때, 여러분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바꿀 것입니다.

## 훌륭한 모범

벤은 사람들을 돕고 그들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는 면에서 훌륭한 모범입니다. 벤은 그리 인기가 좋지 않거나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 나섭니다. 자신보다 남을 더 생각합니다. 켈런은 벤의 와드 지역으로 이사 왔을 당시 자신의 삶은 마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파티밖에 모르는 삶"과 같았다고 묘사했습니다. 켈런은 공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기 성도 친구들의 모범, 특히 제일 친한 친구인 벤이 보여 준 모범 덕분에 켈런은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벤은 켈런을 교회 활동에 초대했습니다. 그런 활동에서 켈런은 청남들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켈런도 그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몰랐지만 그것을 갖고 싶었습니다. 켈런은 그들처럼 행복해지고 싶었습니다.

켈런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교회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벤은 열여섯 살 때 동갑내기인 절친한 친구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켈런은 침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어요. 침례탕에서 나왔을 때 구주께서 사랑으로 껴안아 주시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믿음을 실천하는 좋은 친구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 아론 신권 권능

교리와 성약 58편 27~28절에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의를 이룩"하기 위해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하며 "모름지기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론 신권 권능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충실한 신권 형제가 될 때 훌륭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

여러분이 "만민에게의 선행"을 시작하면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 신앙개조 제13조

신앙개조는 1842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존 웨트윅스라는 편집자에게 쓴 편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앙개조는 나무에서 발행되던 교회 신문인 *Times and Seasons*(타임즈 앤드 시즌스)에 처음으로 실렸으며 나중에 후기 성도 경전에 포함되었습니다.



### 우리는 믿는다

“이 신앙에 관한 신조는 우리 신학에 대한 본질적인 선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신앙개조를

계속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을 천박하거나 부정적하거나 부도덕하게 처리하려는 유혹이 들 때마다 우리의 행동 윤리를 아우르는 이 훌륭한 성명서가 마음속에 강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선행하기를 두려워 말라”, *리아호나*, 2000년 2월호, 5쪽.

### 순결

“인간의 정욕은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실상 순결과 정절은 육체가 아닌 영에서 시작되며, 우리 영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 영이 복음 진리와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높은 표준에 따라 살기를 원하며 우리 행동은 그러한 바람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순결과 정절은 결혼 전에 성관계를 자제하고 결혼 후에 성적인 정절을 지키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활 수준을 나타냅니다.”

테런스 디 올슨, “도덕적 순결에 관한 진리”, *리아호나*, 1999년 10월호, 31쪽.

### 인자

인자란 친절하고 베풀 줄 아는 것, 한 마디로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입니다.”(사도행전 10:38) 인자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강화하고 고양하실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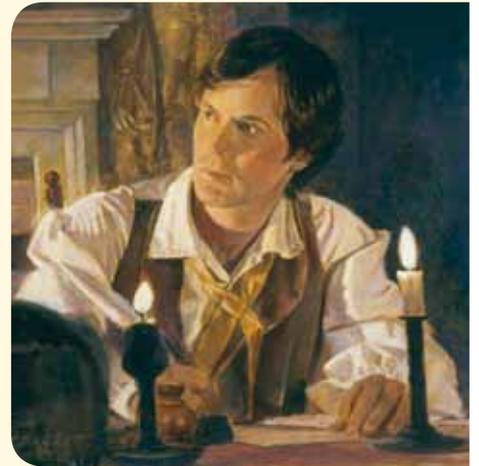
### 바울의 훈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서한 중 일부인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13 우리는 “정직, 진실, 순결, 인자, 유덕, 그리고 만민에게의 선행을 믿는다. 진실로 우리는 바울의 훈계를 따른다 할 수 있으니—우리는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며,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견디어 왔으니,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기를 바란다. 무엇이든지 유덕하고 사랑할 만하거나 혹은 듣기 좋거나 혹은 칭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않는다.

### 이것들을 구하여 마지 않는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서 “오락과 대중 매체”(17쪽)를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는 오락물은 이러한 표준 및 신앙개조 제13조와 일치합니까? 좋은



매체를 선택하여 받은 축복을 일지에 기록하는 일을 고려해 보십시오.



### 유덕

“덕은 ‘높은 도덕적 표준에 기초한 생각과 행동의 규범입니다.’(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118쪽) 그것은 순결과 도덕적 순수성을 포함합니다. 덕은 마음과 정신에서 시작됩니다. …… 그것은 수많은 작은 결정과 행동이 축적되어 이루어집니다. …… 덕스러운 여성과 남성에게는 고요한 위엄과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성신을 받고 그 인도를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레인 에스 돌트, 본부 청년 회장, “덕으로의 회귀”,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78-80쪽.

# 세미나리 수업을 들어봐

친구가 지나가듯 한 말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리사 페이스

“리사, 세미나리 수업을 들어봐.” 애슐리가 지나가듯 말했다.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우리는 이번 학기 선택 수업 목록이 나와 있는 서류들을 보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애슐리를 바라보다가 애써 웃음을 지었다. 애슐리에게 말하기는 싫었지만, 솔직히 세미나리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 당시 나는 살아오는 대부분 그래왔듯이 교회에서 저활동 회원이었다. 여러 해 동안 복음에 대해 어렵듯이 알게 되었지만 복음이 참되다는 간증을 강하게 느껴 본 적은 없었다.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미나리에 대한 호기심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애슐리를 비롯한 다른 모든 친구들은 세미나리를 듣게 되어 몹시 들뜬 것 같았다. 세미나리에서 친구들이 무엇을 하는지, 혹은 왜 그런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친구들이 하는 일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 내 계획에 대해 의논하고 승낙을 얻은 다음, 고등학교 첫해에 세미나리를 듣기로 결심했다.

그런 사소한 행동이 내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는 몰랐다. 다른 사람과 내가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세미나리를 듣기 시작한 처음 1년은 내 삶을 바꿔 놓는 해가 되었다. 가족은 저활동이었지만 나는 일요일에

교회에 가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언제까지나 세미나리에 감사할 것이다. 매일 세미나리를 할 때마다 나는 기도에 응답을 받았고 간증이 강화되었다. 세미나리는 성전 결혼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게 복돋아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안다. 세미나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굳건한 기초를 다지게 한 축복이란 사실을 안다. 여러분에게도 세미나리에 등록하도록 권하고 싶다. 세미나리는 여러분의 삶도 바꿔 놓을 것이다. ■



# 우리들 공간

## 변화에 대한 두려움

올리비아 개포얼켄

**나**는 기독교인으로 성장했다. 우리 가족은 종교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아버지는 늘 내가 참되다고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도록 가르치셨다.

십대 초반에 나는 갖가지 시련을 겪었다. 등을 수술했고, 부모님께서 이혼하셨으며, 어머니에게 병환이 찾아왔고, 여동생을 돌봐야 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모질고 냉소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열다섯 살이 되기 두어 달 전 어느 날, 선교사들을 만났다. 존슨 장로님과 채드워 장로님은 내게 복음을 가르쳐 주었다.

물몬경을 읽긴 했지만 장로님들이 권유하는 대로 바뀌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변화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장로님들에게 말했다. 그냥 날 좀 내버려 두라는 말이 턱밑까지 차 올랐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고개를 들었을 때 채드워 장로님과 눈이 마주쳤다. 장로님의 볼에는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고, 나는 태어나서 그렇게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없었다. 나는 장로님들에게 다음에 전화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간 뒤, 나는 처음으로 물몬경을



다 읽었다. 그런 다음, 생애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드리며 하나님께 물몬경이 참된지 여쭙어 보았다. 그때까지도 나는 하나님께 한 번도 질문을 드린 적이 없었다. 나는 변화가 너무나 두려웠다. “아멘.” 하고 말하자마자 고요하고 평화로운 느낌이 가슴 속으로 밀려들어왔다. 그때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물몬경이 참되며, 내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열흘 뒤에 나는 침례를 받았다. 부모님께서도 모두 침례식에 참석해 주셨다. 아직도 나는 가족 중에서 유일한 회원이지만 언젠가 우리 가족들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여쭙어볼 것이라 믿는다. 나는 이제 여덟 번째로 물몬경을 읽고 있으며, 처음 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너무나 훌륭한 느낌을 받고 있다. 물몬경이 참됨을 안다. 물몬경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

## 기도에 대한 간증

**기**도는 늘 자신이 바라거나 기대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여러분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점을 늘 기억하세요.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이미 응답을 하셨을 것이며, 그렇다면 문제는

그 응답을 인식했느냐에 있습니다.

메리 엠,  
17세, 영국



**우**리들 공간에 기고하려면 여러분의 이야기, 사진 또는 의견을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 주십시오. 제목란에 “Our Space”라고 적고, 여러분의 이름, 생년월일, 워드 또는 지부, 스테이크 또는 지방부, 부모 동의서(이메일 가능)를 포함시키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세계에 오게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 나 선교사 되고 싶어라?



로렌 쿡

“나 선교사 되고 싶어라”라는 초등학교 노래를 들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선교 사업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초등학교 노래가 있다. 노랫말에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 “나 지금 선교사 되고 싶네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도 그 말에 동의하셨다. “젊은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sup>2</sup>

그러나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봉사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어디로부터 시작할 것인가? 간증과 복음 지식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여기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 1. 신앙

우리는 매일 신앙을 키워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다. “만일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지면 내게 합당한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리라.”(모로나아서 7:33)

- 경전을 공부한다.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증거한다.
- 개인적인 문제에 대처할 때 신앙을 행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어려운 시기에

위로받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교육과 체력과 건강의 중요성을 배워서 몸과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운다.
- 계속 회개하고, 계명에 순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생활을 정결하게 한다.
- 청남인 경우, 신권 의무를 배우고 수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한다.

## 2. 영

벨라드 장로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다. “선교사들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sup>3</sup>

-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지침을 공부하고 따른다.
- 금식과 경전 공부, 인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성신의 인도를 구한다.
- 교리와 성약 46편 11~26절에 나오는 영적인 은사에 관해 읽는다. 여러분이 받은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는다. 영적인 은사를 발전시키도록 부모님과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한다.
- 이렇게 자문한다. “내가 보는 책과 내가 시청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영화는 나를 고양해 주는가?” 그렇지 않다면, 더 나은 여가활동 대안을 생각해 본다.





- 영의 속삭임을 듣는 방법을 배운다.

### 3. 사랑

선교사로서 훌륭하게 봉사하려면 자애, 즉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이 필요하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늘 쉽지만은 않다. 사랑에는 봉사와 신앙, 성신과 용기가 필요하다. 물몬은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려면 온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모로나이서 7:48 참조)

-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들을 사랑할 힘을 얻기 위해 겸손하고 진지하게 기도한다.
-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절할 행동을 하여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더 많은 사랑이나 관심이 필요한 가족을 선택하여 함께 시간을 보낸다.
-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친절할 행동을 하여 사랑을 보인다.



### 4. 봉사

베냐민 왕은 백성들에게 봉사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그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모사이야서 2:17 참조)

- 규칙적으로 봉사하는 습관을 기른다.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거나 형제자매의 숙제를 돕거나, 친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말동무가 되어 주거나, 집주변이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
- 구주께서 보이신 봉사의 모범을 따르면서 힘과

인도를 얻기 위해 기도한다.

- 청년 또는 청년 조직이 봉사 활동을 계획하는 일을 돕는다.

### 5. 초대

물몬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교사 중 한 명인 엘마는 비회원들에게 “와서 회개에 이르는 침례를 받[으라]”(엘마서 5:62)라고 권유했다. 엘마가 보인 모범을 따른다.

- 비회원 친구와 가족에게 좋은 친구이자 모범이 된다.
- 친구와 이웃에게 복음을 가르칠 기회를 살핀다.
- 복음을 배우고 지금부터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연습한다. 와드나 지부 선교 책임자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한다. 가능한 경우, 전임 선교사가 구도자를 가르칠 때 토론에 참여한다.
- 가정의 밤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공부한다. 돌아가며 토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 일부를 가르치고, 여러분이 배운 내용에 관해 서로에게 간증을 나누도록 권유할 수 있다.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는 목표는 지금 세워야 한다. 또한 지금부터 준비하면 매일 하는 생활이 선교 사업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준비하기에 너무 이른 시기란 없으며, 키가 더 클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

#### 주

1. “나 지금 선교사 되고 싶네”, 어린이 노래책, 90쪽.
2. 엠 러셀 벨라드,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방법”, 리아호나, 2007년 3월호, 10쪽.
3. 엠 러셀 벨라드, 리아호나, 2007년 3월호, 12쪽.

카렌 에이 김볼  
실화에 근거

“브리검 영(은) 후일의  
위대한 사업의 기초를  
놓는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때가 찬 시대에 나아오도록  
간직해 두셨던 ……  
[영이었던라.](교리와 성약  
138:53)

**소** 데베르그 선생님이 어떻게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설명하는 동안 캐시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캐시는 역사 수업에  
처음 참석하게 되어 무척 신났습니다.  
새 역사책 책장을 훌훌 넘기던  
캐시는 브리검 영 사진을 보고서 손을  
멈추었습니다. 브리검 영이 미국 역사에서  
그토록 중요한 인물인지 이전에는 전혀  
몰랐습니다.

소데베르그 선생님은 수업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숙제가 나갈  
거예요. 첫 번째 과제물은 내일까지 해 와야

해요.”

집에서 캐시는  
소데베르그  
선생님께서 내 주신  
과제물 질문을 보면서  
한숨을 지었습니다.

“학교에서 힘들었니?”  
엄마께서 물으셨습니다.

“매일 숙제가 있을 거래요.”

캐시가 말했습니다. 캐시는  
역사책에서 본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엄마,

브리검 영이 교과서에  
나와요. 왜 브리검 영이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람인가요?”

“브리검 영은 수천만  
명이나 되는 후기 성도들을  
솔트레이크 밸리로 이동하도록  
이끌었거든. 그런 후에는 사람들을  
무리로 편성하여 정착하게 했지.”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계획을 세워야 하는  
일이었어. 미국 서부 이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지.”

# 가장 훌륭한 브리검 영



다음 날 소테베르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연극을 할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서부 이동을 했던 사람을 연기할 것입니다. 부모님과 다른 학생들도 공연에 초대할 거예요.”

소테베르그 선생님은 배역을 정해 주고 대본을 나눠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브리검 영 배역을 맡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물으시자 캐시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오늘 밤 숙제는 각자 맡은 배역 대사를 암기하는 것이예요.” 하고 소테베르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외워야 해요. 대본 암기에 따라 점수를 매길 거예요.”

캐시는 친구 로라와 함께 교실을 나가면서 대본을 읽어 보았습니다. 캐시는 기분이 불쾌해졌습니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야.” 캐시가 로라에게 말했습니다. “브리검 영이 부정직한 사람으로 그려졌어.”

“넌 단지 너희 교회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것일 뿐이야.” 하고 로라가 말했습니다.

“난 이런 대사를 할 수 없단 말이야.” 하고 캐시가 말했습니다.

“넌 그 대사를 다 외워야 해.” 하고 로라가 다시 일러주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가 현관문에 들어서서 캐시의 두 볼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숙제가 더 많아졌니?” 엄마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보다 더 안 좋은 일이에요.” 캐시는

엄마께 대본을 건네 드렸습니다. “이거 읽어 보세요.”

엄마는 대본을 읽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걸 쓴 사람은 브리검 영에 대해 잘 모르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하죠?” 하고 캐시가 물었습니다.

“우선 브리검 영 의상을 찾아보자.” 하고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캐시는 할아버지의 긴 검정색 외투를 입어 보고 오빠의 흰색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려 보았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그랜디 아저씨께서 나무 지팡이 하나를 빌려 주시며 지팡이를 짚고 걷는 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엄마는 벽장에서 챙이 높은 검정색 모자를 하나 찾아내어 캐시 머리에 씌어 주셨습니다. “넌 브리검 영을 자랑스럽게 빛낼 거야.”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대본을 새로 써야겠다.”

캐시는 교회 역사 책과 교회 웹 사이트에서 브리검 영에 관한 내용을 찾아보았습니다. 잠시 후 대본은 새로 써졌습니다.

“이게 바로 브리검 영에 대한 진짜 이야기야.” 하고 캐시는 말했습니다.

공연을 하는 날, 캐시의 반은 강당에 모였습니다. 부모님과 다른 학생들은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소테베르그 선생님은 프로그램을 소개하신 후 무대 뒤에

서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학생들은 자신의 대사를 암송했습니다.

앨릭스는 대본을 완벽하게 암송했지만 랜들이 암송한 대사는 뒤죽박죽이었습니다. 소테베르그 선생님은 랜들에게 처음부터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캐시는 지팡이를 꼭 쥐었습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자 캐시는 브리검 영에 대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너 대본을 고쳤니?” 공연이 끝난 후 로라가 물었습니다.

“응. 사실을 이야기했어.” 하고 캐시가 말했습니다.

“소테베르그 선생님이 오신다.” 로라가 말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꼬마 아가씨들.” 하고 소테베르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캐시는 여태껏 내가 본 브리검 영 배역 중에 가장 훌륭했어요.” ■



“**브리검 영은 …… 올바른 원칙에 따라 행동하여 주님의 손에 들린 강력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90쪽.

# 어떻게 영적인 기초를 세울 수 있을까요?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엘 앤더슨 장로님은 다음 주제에 관한 생각을 나누어 주십니다.

4. 서로에게 기꺼이 봉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성품과 조화로운 생활을 해야 합니다.

3. 예배해야 합니다. 복음 의식을 받고 매주 성찬을 취하는 데에서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 모임과 가정에서 함께 모일 때에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2. 기도해야 합니다. 밤에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받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영적인 기초를 강화해 달라고 간구하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1. 경전을 공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기초를 굳건히 하기 위해 경전이라는 훌륭한 책을 주셨습니다.

"Storm Warning", New Era, 2001년 10월호, 44~45쪽에서 발췌.

영적 생활: 스킵 제러드

# 우리들 이야기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아는 가족 안에서 태어나서 무척 감사합니다. 제 여덟 번째 생일은 부활절 일요일이었습니다. 구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에 침례를 받게 되어

매우 기뻐합니다. 조금 떨리긴 했지만 아빠가 곁에 계셨고, 저는 아빠를 믿었습니다. 침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마음속에 따스함과 행복함이 느껴졌고, 아빠를 믿듯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열한 살이고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례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미리암 에스, 11세, 스위스



제리 엘, 9세, 필리핀

REUNIÃO FAMILIAR



“가정의 밤”, 니콜라스 엠, 6세, 브라질



일본에 사는 여덟 살 난 사쿠라 오는 최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쿠라는 물몬경을 매일 읽습니다. 교회에 가는 일을 즐거워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며 성전을 보는 일을 매우 좋아합니다. 사쿠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어하며 옳은 선택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볼리비아 베르메호 지방부, 프리메로 드 메이요 지부의 어린이들, 초등회 성찬식 발표를 마치고.

#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앤 차일드 및 크리스티나 프랑코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하였노니,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심이니라.”(니파이후서 32:3)

**물** 문경에서 리하이는  
꿈에서 보았던 생명나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꿈에서 리하이는  
가족들이 “다른 어떤 열매보다  
더 먹음직한”(니파이전서 8:15)  
나무 열매를 먹기를 바랐습니다.  
리하이는 생명나무로  
이르는 길을 따라 걷는 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중 일부는 어둠의 안개  
속에서 방향을 잃고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무로 향하는 길로 이어진  
쇠막대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그 쇠막대를 굳게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나무에  
이르러 열매를 먹었으며, 그

열매에서 기쁨을 느꼈습니다.(니파이전서  
8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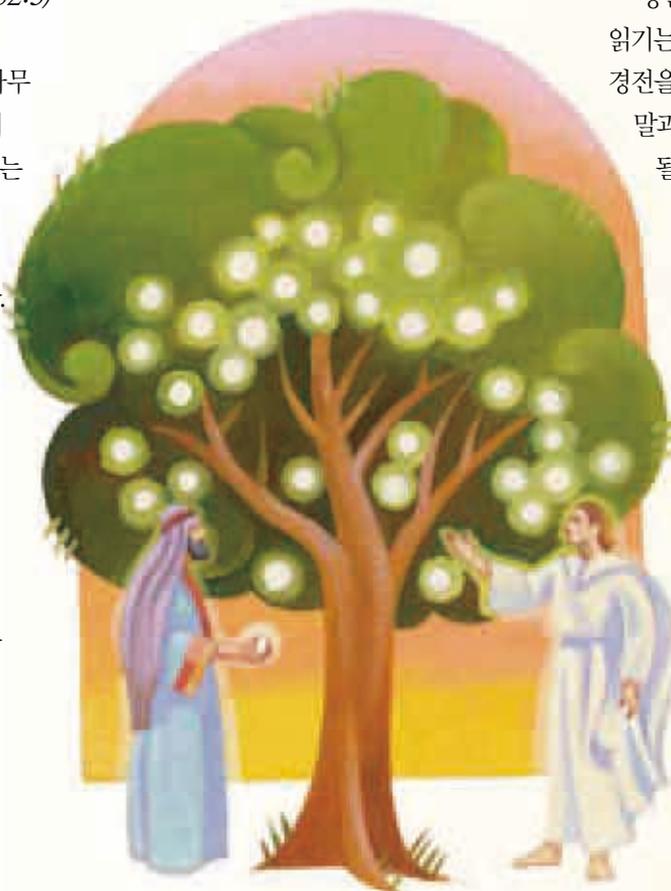
리하이의 아들 니파이는 아버지가  
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니파이는 아버지와  
똑같은 꿈을 보았습니다. 영은  
니파이에게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니파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있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축복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쇠막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니파이전서 11장  
참조)

경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전  
읽기는 쇠막대를 쥐는 것과 같습니다.  
경전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바라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생명나무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힘을 얻을 것입니다.

## 활동

**65** 쪽에 나오는 경전 구절을  
찾아서 리하이와 니파이가  
생명나무 시현에서 본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세요. 여러분이  
배운 내용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그림을 오려내어 활용하세요. 그  
이야기를 가정의 밤에서 나누어도  
되는지 부모님께 여쭙 볼 수도  
있습니다.





협착하고 좁은 길  
니파이전서 8:20



크고 넓은 건물  
니파이전서 11:35~36

조용하는 사람들  
니파이전서 8:26~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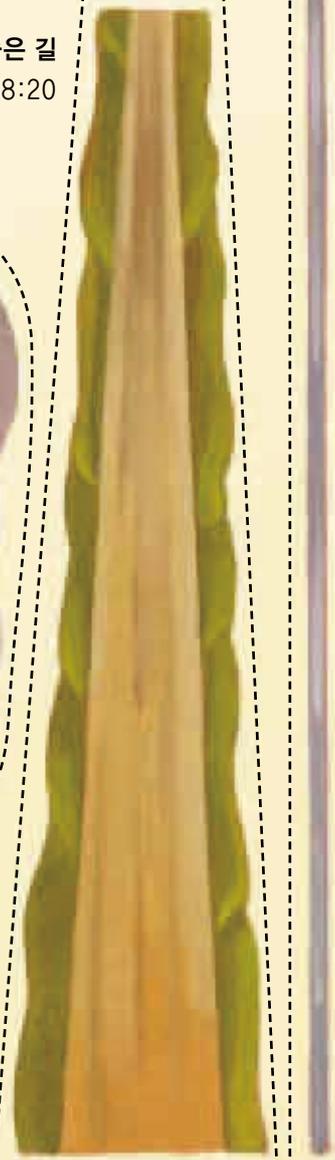
생명나무  
니파이전서  
11:21~22

쇠막대  
니파이전서 11:25

협착하고 좁은 길  
니파이전서 8:20



어둠의 안개  
니파이전서 12:17



광활한 벌판  
니파이전서 8:20



# 어린 시절의 예수님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은 지금 있는 성전과 달랐습니다. 규모가 아주 크고 안마당과 현관 입구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희생을 드릴 동물을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희생**-제사장들이 제단에서 동물을 희생으로 바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젠가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실 것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다이앤 엘 맹검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에 있는 분주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함께 성전에 비둘기 두 마리를 **희생**으로 바치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6주가 다 되었을 때입니다.

성전에는 시므온이라는 연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언젠가 구주를 만나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누가복음 2:26)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몹시 기뻐했습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곧이어 성전에서

봉사하는 안나라는 여인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께서 구주이심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구주의 탄생을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 왕도 장차 유대인의 왕이 될 아이가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헤롯은 자기 나라에 또 다른 왕이 있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지난 2년 동안 베들레헴 근방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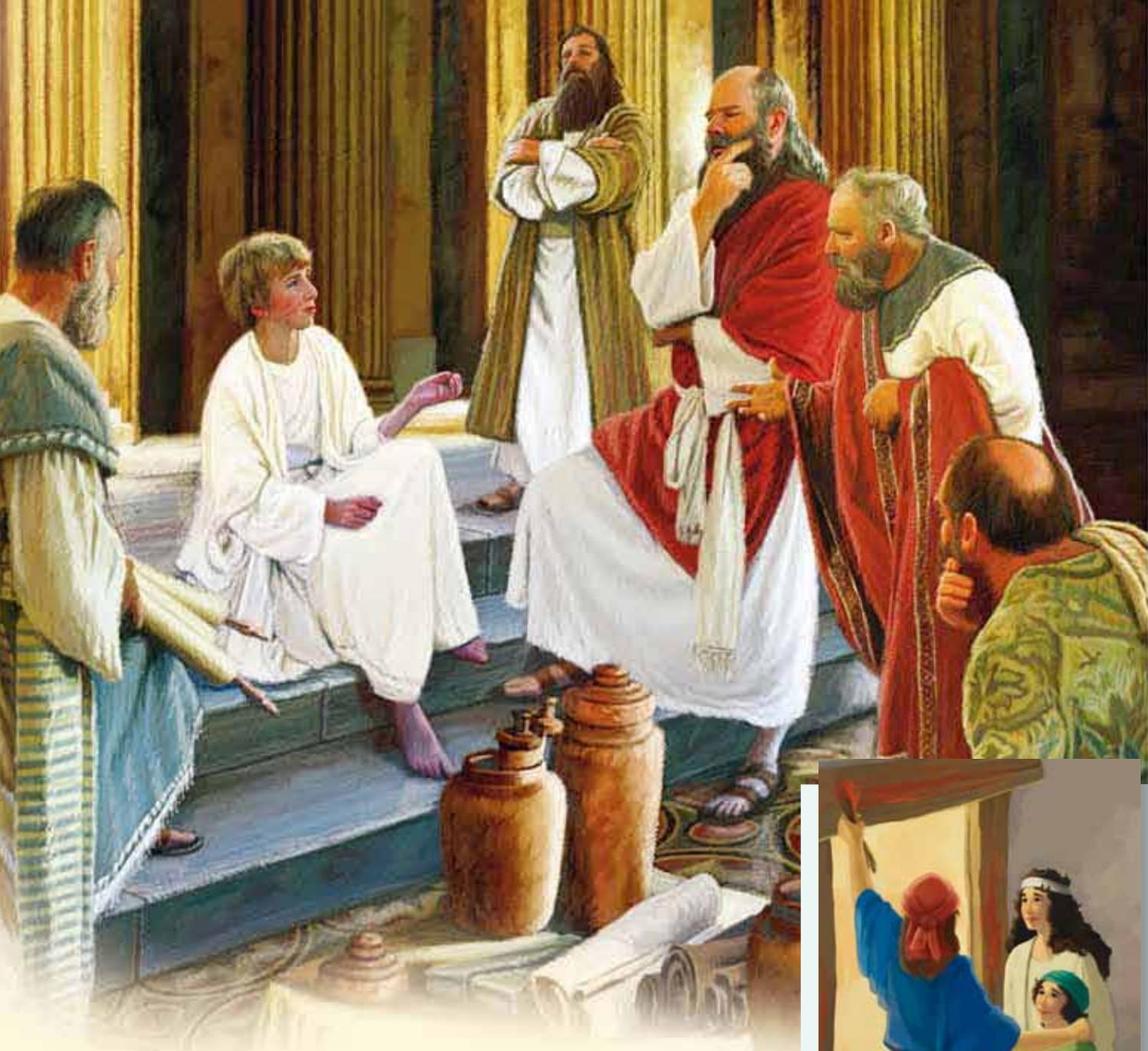
꿈속에 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헤롯의 계획에 관해 경고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한밤중에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곳은 안전했습니다.

헤롯 왕이 죽자 예수님 가족은 나사렛이란 동네로 이사했습니다. 요셉은 목수로 일했으며 마리아는 집안 일을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요셉 옆에서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른 모든 유대 소년들처럼 예수님은 경전과 유대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계명에 순종했으며, 예수님은 지상에 계신 부모님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습니다.]”(누가복음 2:40)

예수님이 열두 살이 되자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을 기리기 위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과 함께 여행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2장: 마가복음 6장 3절; 누가복음 2장 21~52절에 나옵니다.



여자와 남자들은 여러 무리로 나뉘어 움직였습니다. 가족들은 길을 따라 야영을 하는 동안 매일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한데 모였습니다.

유월절을 기린 후 요셉과 마리아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여행하던 그 어떤 무리에도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흘 뒤,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교사들과 이야기하며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계셨습니다. 성전에 있던 사람들은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자신과 요셉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해야 했다는 점을 마리아에게 짚어 주셨습니다. 아직 어렸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

**유월절**-이 중요한 명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약 1,400년 전에 여호와께서 유대인들을 도와 애굽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 일을 기리는 날입니다.

원본: 매 위: 그리스도의 삶은 부자, 권자, 그리고 그의 부분, 현대,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제공, 위쪽 삽화: 뎀 바: 나머지 삽화: 케이지 북스

# 이사벨은 어디 있지?

수잔 데니  
실화에 근거

“그들이 그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는 증거와 증언으로서 침례 받기를 심히 원하였으나”(모사이야서 21:35)

**이** 사벨은 무척 신이 나서 깡충깡충 뛰다시피 하며 아빠와 함께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엄마가 막 이사벨의 검은 머리를 빗겨 주셨고 침례식 때 입을 하얀색 긴 드레스의 지퍼도 올려 주셨습니다. 이사벨은 사람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무나 가져가도 되나요?” 이사벨은 작은 탁자에 놓인 물문경을 가리키며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놓아 둔 거란다.” 아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벨은 방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사벨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이모, 삼촌, 사촌들까지 모두 앞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인 그레이스는 가족과 함께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벨이 다니는 학교 선생님인 퍼킨스 선생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자.” 아빠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임을 시작할 시간이야.”

“퍼킨스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일 분만 더 기다리면 안 되나요?”

퍼킨스 선생님은 이사벨이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이십니다. 퍼킨스 선생님은 책을 좋아하셨고, 이사벨도 책을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을 초대하다니 잘했구나, 이사벨. 하지만 선생님은 못 오실 수도 있단다.” 아빠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벨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벨은 아빠와 함께 방에 들어가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개회 찬송이 시작되기 직전에 이사벨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생님이 오셨는지 돌아보았습니다. 그레이스 가족과 함께 앉아 계신 선생님이 보였습니다! 이사벨은 방긋 웃었습니다. 퍼킨스 선생님도 웃음을 보이셨습니다.

침례식이 끝나자 감독님은 모두 모여서 사진을 찍자고 하셨습니다.

“이사벨은 어디 갔죠?” 감독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모두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사벨이 없었습니다!

그레이스는 친구를 찾아 나섰습니다. 맨 처음 복도를 찾아보았지만 이사벨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현관 쪽으로 가 보았지만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스가 밖을 내다보았을 때 집회소 계단에서 퍼킨스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사벨이 보였습니다.

“제 침례식에 와 주셔서 감사해요.” 이사벨이 말했습니다.

“고맙긴.” 퍼킨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가 봐야 해서 미안하구나. 오늘 다른 약속이 있어서 말이야.”

“괜찮아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사벨은 복도 탁자에서 집은 물문경을 선생님께 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책 읽기를 좋아하신다는 걸 알아요. 이걸 정말로 좋은 책이에요.”

“고맙구나.” 퍼킨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 보실 거예요?” 이사벨이 물었습니다.

“읽어 볼게. 약속하마.” 퍼킨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이 제공할 수 있는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큰 열성으로'(교리와 성약 123:14) 복음의 빛을 전해야 합니다.

엘 톨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영혼들을 내게 데려오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09쪽.



이사벨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이사벨은 돌아섰고, 기다리고 있던 그레이스를 보자 빙긋 웃었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고 있었던 거니?” 그레이스가 물었습니다. “너희 엄마께서 단체 사진을 찍자고 하셨어.” “퍼킨스 선생님께 물문경을 드리려고 나왔어.” 이사벨이 말했습니다. 그레이스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지 않았어?” “조금. 하지만 선생님께서 물문경을 선반 아무 데나 놓아 뒤 버릴까 봐 그게

더 겁났어. 그래서 책을 읽으실 거냐고 여쭙 봤지.”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레이스가 물었습니다. “읽으신다고 약속하셨어!” “정말 잘됐다!” 그레이스가 말했습니다. 두 소녀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레이스가 널 찾아서 다행이구나, 이사벨!”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사진을 찍기 위해 모여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사벨은 맨 앞줄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사진을 찍은 후에 엄마께서 허리를 굽혀서 이사벨을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이제 침례 받은 날을 항상 기억할 수 있겠구나!” 이사벨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사진이 있든 없든 이사벨은 침례 받은 이 날과, 선교사가 되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

# 우리 친구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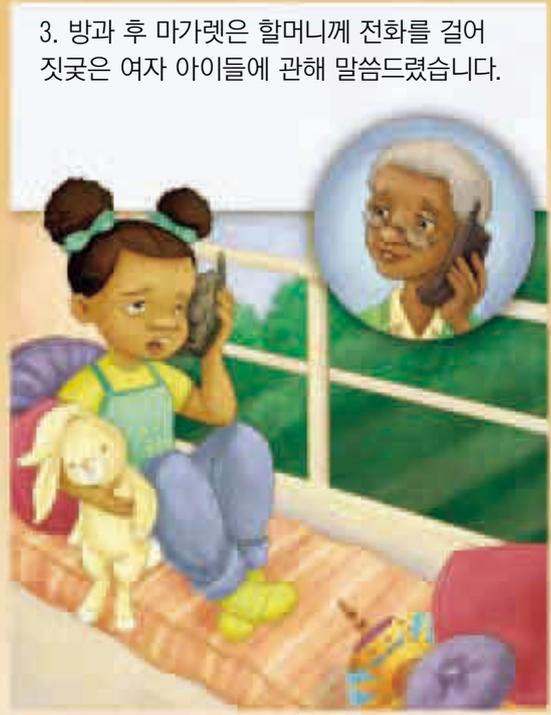
파트리샤 그레이엄  
실화에 근거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에베소서 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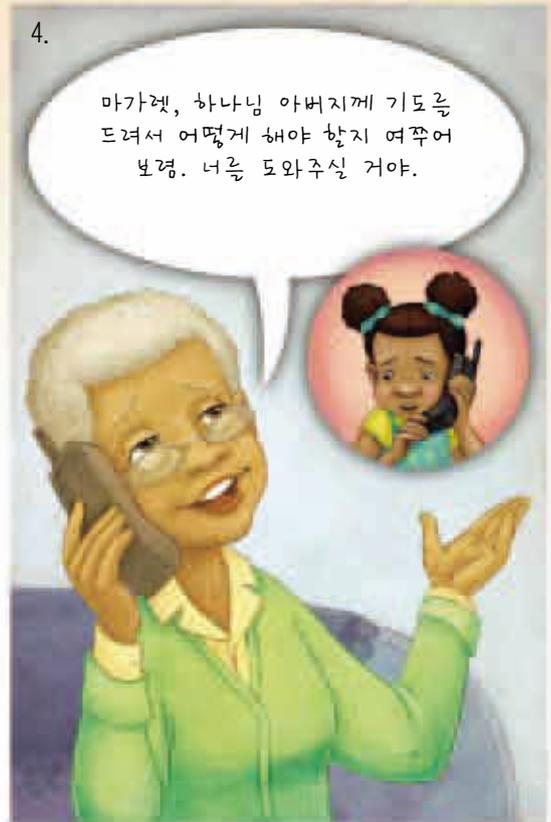


1. 마가렛은 새 학교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2. 몇몇 여자 아이들은 마가렛을 놀렸습니다. 한 아이는 마가렛의 머리끈까지 잡아당겼습니다. 마가렛은 새 학교 생활이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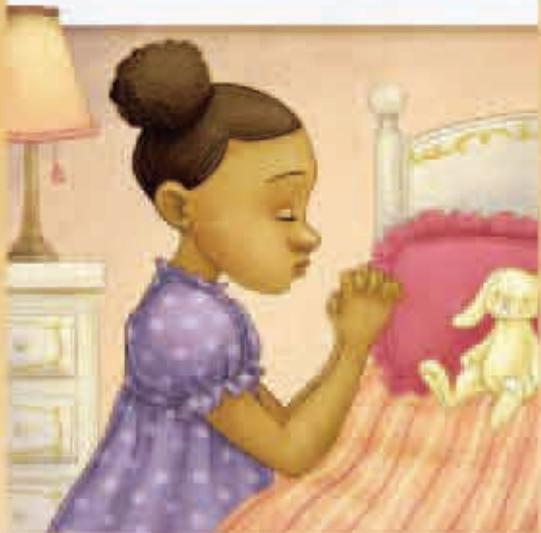


3. 방과 후 마가렛은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짓궂은 여자 아이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4. 마가렛,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쭙어 보렴. 너를 도와주실 거야.

5. 그날 밤, 마가렛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신이 겪는 문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6. 이튿날, 학교에서 여자 아이들은 또 마가렛을 놀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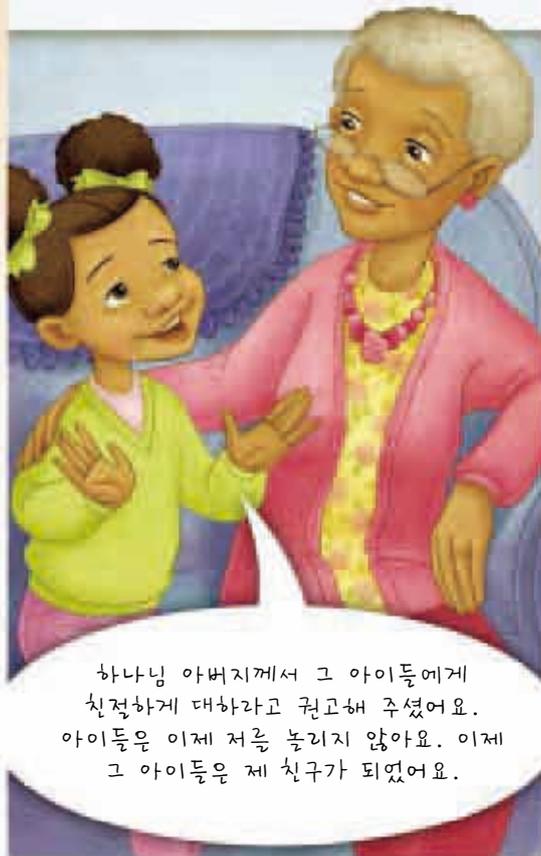
우리 친구하지 않을까?

7. 다음 날에도 여자 아이들은 마가렛의 머리끈을 잡아당겼습니다.



우리 친구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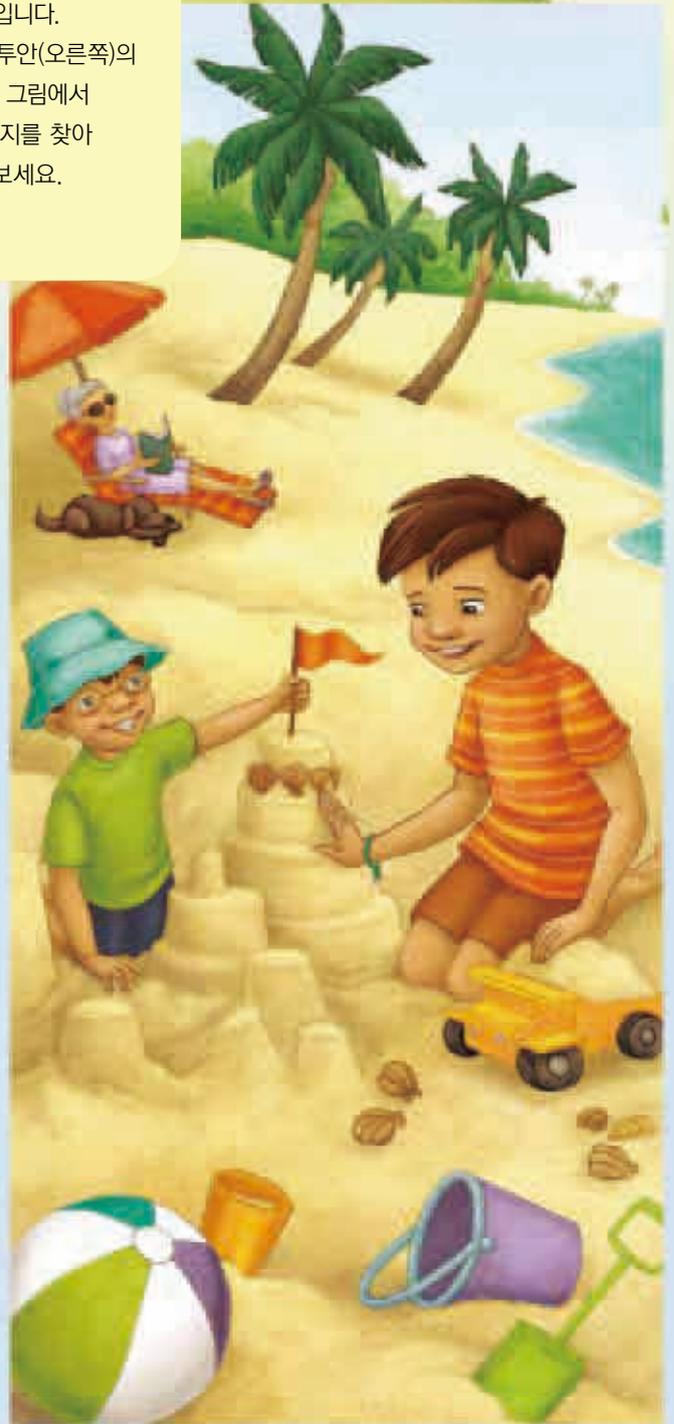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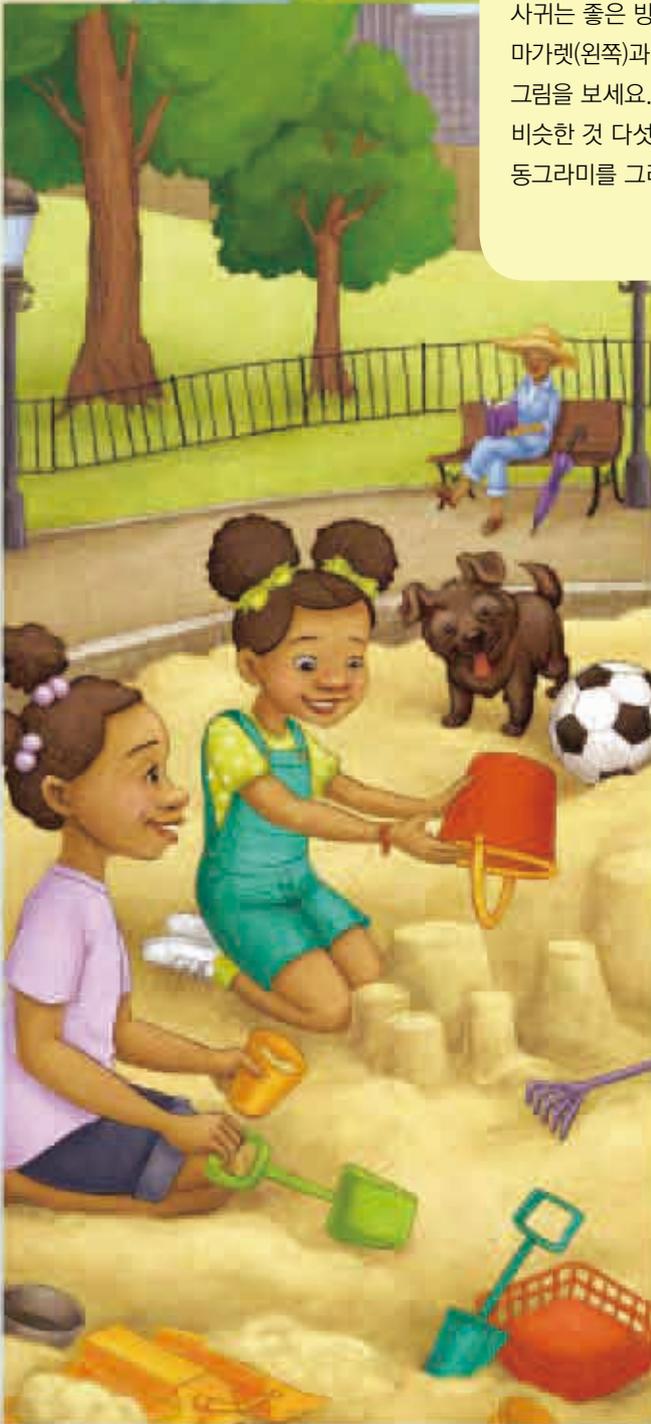
8. 일주일 뒤, 마가렛은 행복한 마음으로 할머니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고 권고해 주셨어요. 아이들은 이제 저를 놀리지 않아요. 이제 그 아이들은 제 친구가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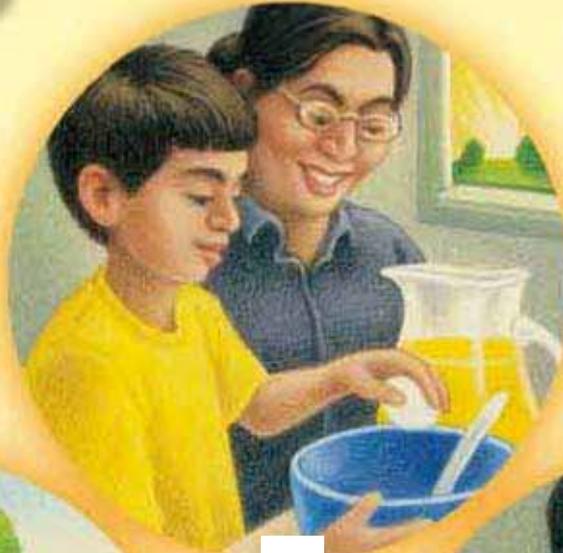
# 전 세계에서 친구 사귀기

우리는 어디에 살더라도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친구를 사귀는 좋은 방법입니다. 마가렛(왼쪽)과 앙투안(오른쪽)의 그림을 보세요. 두 그림에서 비슷한 것 다섯 가지를 찾아 동그라미를 그려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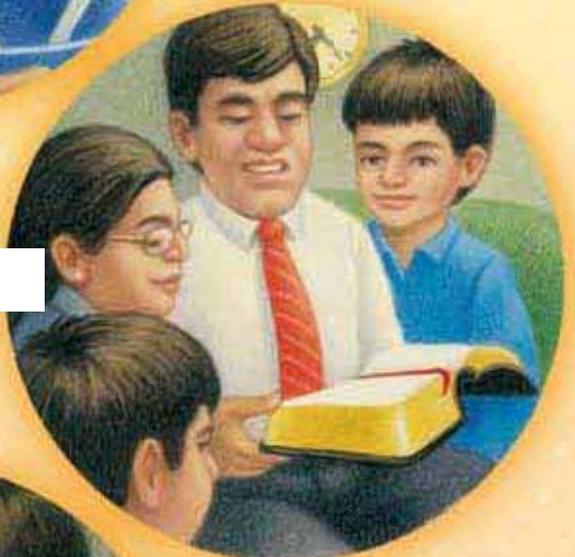
# 특별한 하루 보내기

린지 스티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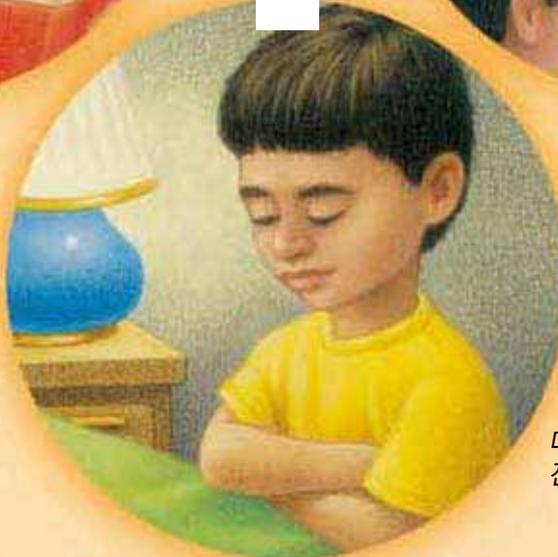


마누엘은 아침 식사를 만드시는 어머니를 도와 드렸습니다.

마누엘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마누엘은 아버지께서 가족들에게 경전을 읽어 주실 때 곁에서 들었습니다.



마누엘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마** 누엘은 착한 일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마누엘이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지 상자 안에 숫자를 적어 넣으세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착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 전 세계 훈련 모임에서 새로운 지침서가 소개되다

아담 시 울슨, 교회 잡지

**도**마스 에스 몬슨 회장과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들은 2010년 11월 13일,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에서 새로운 교회 지침서와 지침서에 실린 일부 중요한 변경 사항을 소개했다.

새 지침서인 **지침서 제1권: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과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는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을 통해 95개국에 있는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들에게 22개 언어로 소개되었다.

이 방송은 LDS.org에 있는 [www.lds.org/leadership-training](http://www.lds.org/leadership-training)에서 시청이 가능하다.

### 지침서의 중요성

몬슨 회장은 지도자가 교회 정책과 절차를 숙지하지 않으면 교회 프로그램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지침서 안에 안전이 있습니다. …… 지침서를 읽고, 이해하고, 따를 때 여러분과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의 말에 따르면 지침서는 간결성과 유연성을 높여주어 두 가지 큰 위험을 피하게 해 준다.

첫 번째 위험은 교회 프로그램에서 성신의 영향력을 규제하는 위험이다.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가 할 일은 영적인 일이며, 영적인 일은 영의 인도를 받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위험은 “복음이 정립되지 않은 채 교회를 세우는” 위험이다. 패커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회원들의 삶에 교회가 있어야 하고, 회원들의 마음에 복음이 자리잡아야 합니다.”

### 중요한 변화

**지침서 제1권: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은 대부분 2006년에 갱신된 **교회 지침서, 제1권** 내용 그대로이다. 가장 최근에 보내진 제일회장단 서한에 실린 지침이 수록되었고, 스테이크 회장 및 감독의 의무에 대한 장은 더욱 짙막하고 명료하게 바뀌었으며, 일부 자료는 더 간편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재편성되었다.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는 더 광범위하게 바뀌었다. 원리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교회 프로그램에서 복잡한 요소를 줄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정책과 절차와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몇 가지 부분을 조정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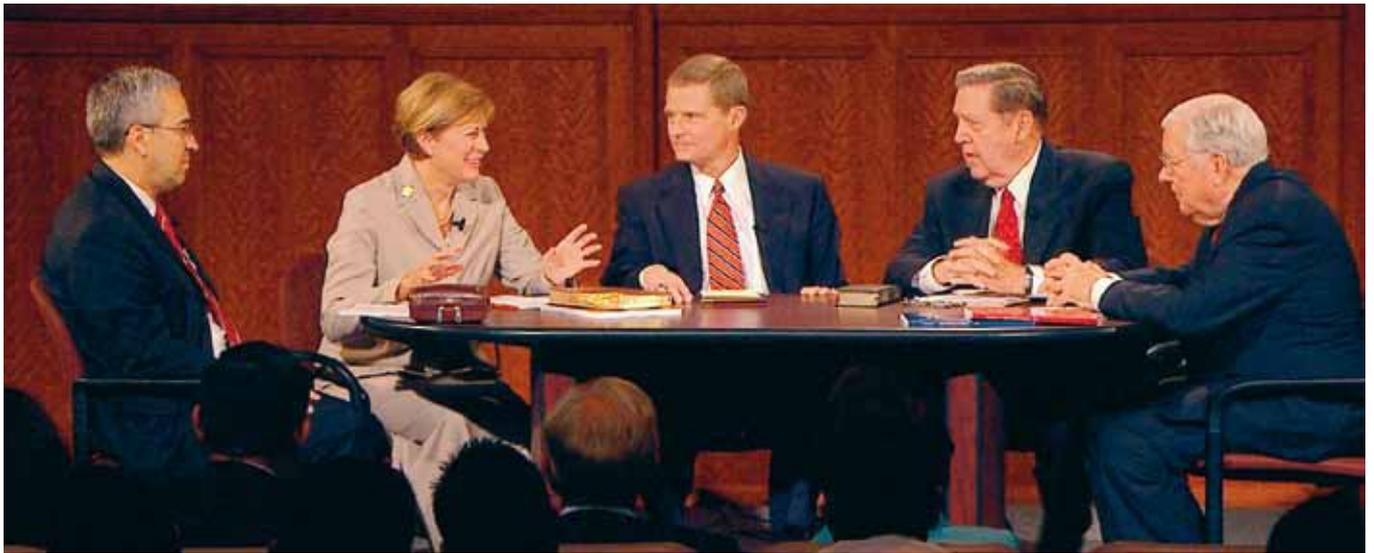
그 외에 다른 변경 사항에는 와드 평의회와 평의회 회원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감독의 업무량을 줄인 점, 와드 평의회 모임 횟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 교회 사명을 명확히 한 점, 와드 복지 위원회 업무를 신권 집행 위원회 및 와드 평의회에 포함시킨 점, 상임 와드 활동 위원회를 없애고 와드 평의회를 통해 활동을 다루도록 한 점 등이 있다.

두 번째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은 2011년 2월에 있을 예정이며,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의 책임, 정원회와 보조 조직의 임무, 그리고 지도자와 회원이 부족한 단위 조직에서 교회 프로그램을 온전히 수행하려 할 때 겪는 특수한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조명할 예정이다.

### 교회 사명

새로운 지침서는 제일회장장단이 1981년도에 언급한 교회의 세 가지 사명, 즉 전파하고, 온전하게 하며, 구원하는 일에 관한 혼란을 해소한다.

**지침서 제2권, 2장 2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이 세 분야가 한 가지 위대한 사업의 일환이라는, 1981년도에 밝힌 제일회장단의 의도를 재확인한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구원과 승영을 가져다주는 그분의 사업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직하셨다.”(모세서 1:39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는 “주님 사업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과 같은 다른 필수적인 요소들을 배제”하는 일에 대해 경고했다.

옥스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장 일반적인 원리는 2장 2편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교회 프로그램과 활동은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 일관성과 여건에 따른 조정

십이사도 정원회의 쿠엔틴 엘 쿡 장로는 지침서 제2권 첫 번째 세 장에 나오는 원리와 교리는 “교회 관리의 토대이며 [지도자들이] 하는 모든 일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다. 그러나 지침서에 나오는 이 장들, 특히 “일관성과 여건에 따른 조정”이라는 새로운 장에는 교회 정책과 프로그램을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설명되어 있다.

이 장은 “어느 곳에 있든 교회 안에서 동일해야 할 사안을 분명히 제시”해주며 또한 “지역별 조정을 허용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명시하고 있다.”라고 쿡 장로는 말했다.

조정이 적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에는 보조 조직에서 봉사할 사람 배치와 보조 조직 프로그램, 지도자 모임, 활동 형식과 빈도 등이 있다. 고려해야 할 상황에는 가족 상황, 교통과 통신, 소수의 회원, 안전 등이 있다.

쿡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판단하고자 할 때, 지도자들은 언제나 영의 인도를 구하며 직속 감리 역원과 논의해야 합니다.”

### 앞으로 나아가며

패널 토론을 인도하면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지침서를 한번에 한 장씩 공부하고 평의회에서 원리들을 토론하면 더 의미 있는 학습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침서에 나오지 않는 정책과 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이 있을 때, 지도자들은 그들의 해당 감리 신권 지도자와 상의해야 하며, 그런 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되는 가장 선임 신권 지도자가 그 사항을 제일회장단 사무실을 통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라고 옥스 장로는 권고했다. ■

2010년 11월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방송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와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인 줄리 비 벡 자매와 칠십인 회장단의 윌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는 새로운 교회 지침서에 나오는 원리에 대해 토론했다.

# 새벽반 세미나리

## 60주년 기념

**새**벽반 세미나리는 힘든 과정일 수도 있지만 지난 60년 동안 백만 명이 넘는 교회의 십대 회원들은 동트기 전에 일어나는 일과 눈으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경전에 집중하는 일이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교육감보인 켈리 하우스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매일 몇 분씩 경전 공부에 투자하고, 간증하고, 영을 느끼면 학생들은 학교에 갈 때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그들 삶에 미치는 치유 효과도 누리게 됩니다.

*60년 전에  
세미나리가  
시작된 이후로  
백만 명이 넘는  
젊은 후기 성도가  
이를 통해 유익을  
얻고 있다.*

학생들이 받았던 세미나리 반 수업을 받지는 못했다.

1940년대 말, 남부 캘리포니아의 교회 회원수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젊은이들을 복음 안에서 교육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스테이크 회장들은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교회 세미나리 프로그램 개설을 요청했다.

1948~1949학년도 사이, 훗날 칠십인 회장단에서 봉사한 매리온 디 행크스 형제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웨스트 고등학교에서 새벽반 세미나리를 성공적으로 가르쳤다. 캘리포니아 성도들은 그와 유사한 세미나리 반을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보았고, 11개 스테이크가 13개 새벽반을 개설하도록 승인 받았다.

### 다양한 필요 사항 충족

1950~1951학년도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새벽반 세미나리는 미국과 세계 전역으로 퍼져 나가면서 곳곳에 있는 청소년들이 경전을 배우고 복음 원리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최근에는 모든 세미나리가 새벽에만 열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식 명칭이 “매일반 세미나리”로 바뀌었다.

매일반 세미나리가 성공한 한 요인은 융통성에 있다. 스테이크와 지방부 단위에서 프로그램을 조직하면 와드나 지부 또는 복합 와드나 지부들은 청소년, 부모, 신권 지도자들의 필요 사항과 여건에 따라 반을 만들 수 있다.

교회 회원이 밀집한 지역에 사는 11만 5천여 명의 학생들은 매년 학교 수업 시간 동안에 열리는 휴식반 세미나리에 참석하는 혜택을 누리지만, 21만 7천 명이 가까운 전 세계 세미나리 학생들은 매일반 세미나리에 참여한다.

교회 회원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기 때문에 휴식반 세미나리나 매일반 세미나리에 참석할 수 없는 교회의 일부 청소년들을 위해 세미나리 가정 학습



세미나리는 청소년들에게 대단한 기회입니다.”

### 새벽반 세미나리의 탄생

첫 번째 세미나리 반은 1912년,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그래니트 고등학교에 인접한 세미나리 교실에서 학교 정규 수업 시간 동안 열렸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더 많은 교회 청소년들이 늘어나는 공립학교에 입학했지만 그래니트 고등학교

프로그램이 제정되었다. 가정 학습반 학생들은 매주 나흘 동안 지정된 자료를 혼자서 공부한 후, 매주 한 번 다른 가정 학습반 학생들과 만나 배운 내용을 토론한다.

**손대지 않고 깎아 다듬은 돌**

오늘날에는 미국 모든 주와 전 세계 140개국에서 세미나리 수업이 열린다. 미국 이외 국가 중에서는 1948년에 캐나다가 처음으로 세미나리를 열었다. 새벽반 세미나리가 확산되면서 1958년에는 멕시코, 1962년에는 핀란드와 독일, 1963년에는 일본, 1964년에는 파나마가 그 뒤를 이었고 해가 거듭될수록 더 많은 나라가 참여했다. 가장 최근에는 2008년에 베냉과 그루지야, 모로코에 세미나리 수업이 개설되었다.

세미나리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범세계적인 세미나리 학생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다. 사는 지역과 상관없이 세미나리 학생들은 똑같은 성구 익히기 구절을 암송하고, 똑같은 성구를 공부하며, 간증이 자라면서 같은 영을 느끼고 같은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희생에서 오는 축복**

휴식반, 매일반, 가정 학습반, 그 어느 반에 출석하든지 세미나리 학생들은 희생을 치르며,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

하우스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15세 청소년이 ‘나는 세미나리에 가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날 거야.’ 하고 결심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선택의지를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약속이며 그 약속은 축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은 6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며 모든 형태의 세미나리는 전 세계 청소년들의 삶에 계속해서 축복이 되고 있다. ■

**성도들, 아프리카 전역에서 봉사하다**

2010년 8월 21일 토요일, ‘2010년 범 아프리카 도움의 손길 날’에 참여하는 일환으로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있는 교회 회원들은 지역 사회를 향상시키는 하루를 보냈다.

지역 사회에 기반을 둔 몇몇 청소년 단체를 초대해 나이지리아 아바 스테이크에서는



올 해만 천 명 이상이 이 행사에 참여했다. 나이지리아 우무아히아 지방부에서는 6개 지부에서 온 회원 백 명 이상이 잔디를 깎고 꽃을 손보고 아비아 주 방송 협회의 하수구와 마당을 청소했다.

가나 아크라에 있는 지부들은 병원과 어린이 학교, 경찰서를 포함한 여러 지역을 청소하는 임무를 받았다. 일부 회원들은 도로에서 움푹 패인 곳을 메우거나 막힌 빗물 배수관을 청소하라는 임무에 지명되었다.

도움의 손길 조끼를 입은 회원들이 가는 곳마다 지역 사회는 감사를 표하며 도움을 받았다. 아비아 주 폴리테크닉 교구 목사는 자원 봉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이 정부가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지 묻는 이 시대에 인류에게 계속 봉사하는 조직이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

**인도네시아 어 경전 합본 구입 가능해지다**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이제 몰몬경,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가 함께 제본된 인도네시아어 경전 합본을 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어로 된 몰몬경 신판도 구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어 합본은 온라인 상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판에는 각주, 지도, 사진이 들어 있으며 독자들은 성구에 표시하거나 핵심 단어로 검색할 수 있다. 온라인 판에 접속하려면 scriptures.lds.org/ind을 방문한다.

인도네시아어를 사용하는 교회 회원은 전 세계에 6천 명 이상이 있으며,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미국에 거주한다.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제일회장단은 회원들에게 자신의 경전을 구입하여 정기적인 경전 공부, 교회 모임 및 교회 임무 지명에서 사용하도록 권고해 왔다. ■

## 음악과 진리의 말씀,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다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 주례 방송인 음악과 진리의 말씀이 미국 라디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이 방송은 위원회가 헌정될 프로그램 후보를 지목하고 대중이 선호하는 프로그램과 진행자를 투표한 뒤에 선정되었다.

음악과 진리의 말씀은 전국 개척자 부문에서 수상했으며,

이것은 최소한 10년 동안 라디오 산업에 기여하고 국가 차원에서 라디오 방송을 발전시키거나 향상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방송인에게 주어지는 영예이다.

음악과 진리의 말씀은 미국 최장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이다. 첫 방송은 1929년 7월 15일에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2천 개 이상의 라디오, 텔레비전, 케이블 방송국에서 방송되며,



© BUSATH PHOTOGRAPHY

musicandthespoken  
word.org에서도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다. 홈 페이지에서 Listen Live를 클릭한 뒤 온라인 방송 링크를 따른다. ■

매주 방송되는  
“음악과 진리의  
말씀”이 라디오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었다.

## 세계 단신

### 교회, 이동 전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출시

교회는 회원들이 이동중에도 복음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이동 전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The Gospel Library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사용자들은 경전, 연차 대회 말씀, 주일학교 교재를 읽으면서 책갈피, 강조 표시, 메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채널(Mormon Channel) 프로그램은 교회 공식 라디오 방송국을 연결해주며 경전과 연차 대회 말씀, 교회 잡지가 들어 있다. 호환성에 대한 정보를 알아 보려면 [mobile.lds.org](http://mobile.lds.org)를 방문한다.



### 로스앤젤레스 성전 방문자 센터, 다시 문을 열다

로스앤젤레스 성전 방문자 센터가 2010년 8월 7일, 개보수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방문자 센터는 기본 복음 원리에 초점을 맞추면서 남부 캘리포니아 교회 역사를 조명한다. 1,100 평방 미터 건물에는 전시를 위한 몇몇 공간과 극장 두 곳이 있다. 그 중심부에는 3.4미터 규모로 만들어진 그리스도 상 복제품이 있으며 방문자 센터 밖에서도 볼 수 있다.

### 2억 개 이상의 기록, 이제 온라인 상에서 이용 가능

2010년 8월, FamilySearch.org는 검색할 수 있는 새로운 기록을 2억 개 이상 발표했다. 이로써 Records Search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록은 모두 7억 개에 달한다. 무료 기록 모음에 접속하려면 Pilot.Family Search.org나 beta.family search.org를 방문한다. 검색 가능한 기록이 늘어난 데에는 전 세계에서 Family Search 색인 작업에 참여하는 35만 자원 봉사자들이 역사 기록 이미지를 컴퓨터로 검색할 수 있도록 옮긴 공이 크다. ■

## 애독자 편지

### 내 인생의 나침반

저는 *리아호나*를 사랑합니다. *리아호나*는 제 인생의 나침반이며 저를 올바른 길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합니다. *리아호나*는 저를 강화하고 제가 종종 마주치는 유혹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며 날마다 제 삶을 살찌워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신앙의 길에 머물도록 해주는 나침반이자 길잡이인 *리아호나*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나스타샤 엔, 17세, 우크라이나

### 조언자 역할을 하는 *리아호나*

저는 종종 친구와 회사 직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한 방법으로서 *리아호나*를 구독 신청해서 성탄절 선물로 줍니다. 직원들은 종종 제게 와서 자신이 읽은 기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리아호나*에서 조언을 얻으며,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리아호나*를 함께 읽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또한 사무실 대기실에 *리아호나*를 한 권 놓아 둡니다. *리아호나*는 훌륭한 선교 사업 도구입니다.

프리실라 빌라, 브라질

### 영적인 힘의 근원

저희는 미국 유타 주 로간에 사는 콜롬비아인입니다. 저희는 스페인어로 된 *리아호나*를 받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부모로서 세 딸이 복음을 실천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도록 노력합니다. 매달 *리아호나*를 출판하여 그 메시지 안에서 저희 가족이 영적인 힘의 근원을 찾도록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링컨 가족, 미국 유타 주

의견이나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내용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세요”, 8쪽: 가족에게 상자를 한 개씩 주고 꾸며서 사진과 일지, 기타 기록을 보관하는 데 사용하게 한다.

“개인 발전 기록부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

34쪽 및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아론 신권”, 37쪽: 새로운 개인 발전 프로그램과 하나님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배운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나누도록 격려한다.

가족 중에 침대가 있다면 그들에게 최근에 완수한 하나님에 대한 의무나 개인 발전 프로그램 활동에 바탕을 둔 가정의 밤 공과를 계획하도록 부탁한다.

“어떻게 영적인 기초를 세울 수 있을까요?”, 62쪽: 방수되는 용기 안에 작은 돌 몇 개를 나란히 놓고, 또 다른 방수되는 용기 안에 모래를 펼쳐 놓는다. 집이라고 가정할 작은 물건 두 개를 준비하여 하나는 돌 위에 놓고 다른 하나는 모래 위에 놓은 다음, 각 용기를 물로 채운다. 모래 위에 놓은 “집”은 잠기지만 돌 위에 놓은 “집”은 그대로 서 있을 것이다. 강한 영적 기초가 어떻게 인생의 폭풍우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지 토론한다.(힐라맨서 5:12 참조)



### 강아지에게서 배운 교훈

아이들이 어렸을 때, 공짜 금붕어 교환권을 들고 애완 동물 가게로 갔다. 그런데 두 시간 후에 우리는 아이들 돈으로 산 강아지와 함께 나왔다. 그날 밤, 강아지를 세탁실에 두고 재웠는데, 아침에 보니 세탁실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 당연히 청소는 아이들 몫이었지만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는지 아이들은 “못하겠어요!”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우리는 ‘결과’를 주제로 가정의 밤을 했다. “너희는 개를 사면서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어. 이제 개도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너희가 책임져야 해.” 아빠가 말했다. 우리는 선택에는 항상 결과가 따른다는 것에 대해 토론했고 아이들이 언제나 의로운 선택을 하도록 격려했다.

우리 개는 우리 가족으로 14년을 살다가 최근에 죽었다. 그러나 개에게서 배운 삶의 교훈은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이다.

질 그랜트, 호주 빅토리아

# 결코 버림 받지 않았다

아담 시 올슨  
교회 잡지

**주** 님께서는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자주 경전을 인용하셨다. 그러므로 구주께서 신약에서 언급하신 구절을 구약에서도 보게 되는 일은 어찌면 당연하다. 하지만 어느 날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시편 22편 1절을 읽고 적잖이 놀랐다.

나는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성스러운 기록을 인용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마태복음 27:46 참조) 그러한 생각이 들자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오, 하나님이지요,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교리와 성약 121:1) 나는 보통 영적으로 불안정하거나 괴로울 때 이 같은 물음을 던졌다.

그런 까닭에 구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보며 의문이 생겼다. 그분도 불안정함, 심지어 의심으로 괴로워하며 외치신 것일까? 그 말씀은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해 주시는 그분의 능력에 나의 구원이 달려 있던 바로 그 순간에 전지전능하신 구주께서 답을 알지 못하는 의문이 있으셨다는 걸 의미할까?

이 시편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이 말씀이 어찌면 주님도 예상은 하셨으나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셨을 “하나님도 눈감아 버리신, 온몸을 마비시키는 절망”이라는 영혼의 고통을 표현하지만 결코 그분이 의심하셨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sup>1</sup>

도움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순간에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을 때 성스러운 기록에서 말씀을



구주께서 인용하신 성스러운 기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결코 버림 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었다.

인용하신 것은 주님께서 지니신 신앙을 말해 주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심오한 가르침의 기회였다. 시편 22편은 질문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깊은 신뢰의 표현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4~5절)

시편에서 그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구주께서 겪으신 고통을 예시하면서 조롱(7~8절), 부당한 재판과 다가오는 고문(11~13), 구주의 고통과 괴로움(14절), 목마름(15절), 손과 발의 상처(16절), 제비뽑기와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18절)에 관해 예언하고 있다.

구주께서는 첫 구절만 인용하셨을 뿐이지만, 시편의 나머지 내용은 그분께서는 약속된 메시아이시며, 주님의 고통이 예언을 성취하였고, 구주께서 아버지를 완전히 신뢰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증언이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자 내 신앙이 그릇되지 않았다는 확신을 다시금 느끼며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결코 의심하지 않으셨으며 건지심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보다 더 강렬하게 와 닿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버리신 걸까, 또는 그분께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지 않으신 걸까 하는 의문을 말끔히 씻어준 시편의 다음 간증이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예수님]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아버지]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23~24절) ■

주

1. 제프리 알 홀랜드,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리야호나, 2009년 5월호, 87쪽 참조.